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2010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2010

2010 경기도 사서서평교육 결과보고서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2010

발행일 2011년 2월 25일

발행처 경기도·경기도사이버도서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흥동 123-69 **전화** 031-252-5237

홈페이지 www.library.kr

기획·편집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편집위원 조월레, 이송자, 윤한구, 이대건, 정은영

편집디자인 도서출판 나무늘보

I S B N 978-89-93395-24-2 03020

이 책은 2010 경기도 사서서평교육의 결과물입니다. 무단복제 및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2010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편

경기도·경기도사이버도서관

사서가 만드는 오작교, 책과 만나는 행복한 가교

“책과 도서관, 삶의 풍요로움”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을 표방하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또 다른 모토입니다. 이것은 책과 도서관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보편적인 진리에 기반하는 것이지요. 그 책과 도서관 사이에 숨어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서’이지요. 도서관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책 뿐 아니라 그 책을 도서관 장서답게 만드는 사서가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평교육은 그러한 사서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사서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책을 읽고 권하는 일, 책에 대해 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일을 사서 서평교육을 통해 이루어 갔습니다.

블프강 헤를레스는 『책vs역사』 서문에서 ‘책의 나비효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책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책은 사람과 똑같은 존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서부터 한 세대 역사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책과 언어의 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책을 소개하는 일, 그러한 책을 독자와 만나도록 다리를 놔드리는 일을 우리 사서들이 하고자 합니다.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났듯, 이제 우리 사서들이,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책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책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인생을 만나고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미흡한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쓰도록 해, 책이 여러분을 찾아가고 여러분이 책을 찾아오도록 행복한 오작교가 되겠습니다. 그 첫 발걸음이 2009년이었고 이제 두 번째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앞으로 한 발씩 더해가며 길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서들의 용기있는 발걸음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 2010년판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신 조월례 선생님, 윤한구 선생님, 이대건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작가와 책에 대한 시각을 보게 해준 오채 작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교육기간 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교육생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011년 2월 25일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사서의 책 이야기, 좀 더 많이 들려주세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도서관의 서비스 향상, 도서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사업과 교육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워크숍, 주제별 작은세미나, 경기도도서관총서 발간 등 그 사업들은 도서관과 사서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서서평교육’ 역시 그 모든 과정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책을 빼고 도서관을 생각할 수 없듯이, 책을 빼고 사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는 아주 기초적인 사고에서 시작된 사업이 바로 사서서평교육입니다.

책에 대해 사서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책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나에게 맞는 책을 찾는 일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서도, 책을 만드는 편집자도, 책을 쓰는 작가도, 교사도, 학부모도, 아이들도, 독자들도, 기자들도 모두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서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 같습니다. 사서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목소리가 꼭 필요한 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서들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서들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찾아가도록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사서서평교육’이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서평의 역할과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고, 서평의 대상이 되는 책과 그 특성에 대해서도, 언어학적 관점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배워야겠습니다. 나아가 책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겠으며,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책이 이미 만들어져서 시장에 나오고 그 중에 좋은 책을 선별해서 도서관 장서로 구축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만나게 하는 데는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원고가 쓰여지고, 편집되고 책이라는 모습으로 출간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지식이 적다면 그 부분도 채워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사서서평교육은 책의 탄생 전반에 대한 이해부터 서평의 역할과 기능, 글쓰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사고와 목적에 따른 글쓰기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사서서평교육은 사서가 책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여러 사서선생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평을 위한 책을 고르고, 그 책을 읽고, 분석하고, 주제를 잡는 눈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사서서평교육이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사서의 책에 대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더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2월 25일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정 은 영

차례

서평지를 펴내며 _ 4

서평지를 기획하며 _ 6

1부 서평쓰기 길라잡이

책, 사서, 서평 _ 13

서평글쓰기 개요 _ 24

국내외 서평 매체와 역할 _ 32

2부 작가와 만나다, 작가특강

오채 작가와 나의 블루보리왕자를 만나다 _ 43

서평모음, 오채 작가를 읽고 만나고 _ 49

3부 서평의 실제

동화 서평쓰기 _ 69

서평 쓰는 법, 작품해석에 대하여 _ 88

장르를 넘어서, 지식정보책 서평 _ 93

여러 가지 서평 살피기 _ 111

4부 서평, 목소리가 들린다

그림책 서평 _ 143

어린이 문학 서평 _ 175

어린이 비문학 서평 _ 209

5부 서평연수, 워크숍으로 꽃피다

서평연수 지상중계 _ 221

워크숍 모듈별 서평 _ 233

2010, 서평연수교육에 함께했습니다

2010 서평교육 수료자 명단 _ 244

서평자, 서평에 붙인 한마디 _ 244

서평하는 사서 곁에서, 또 한마디 _ 249

1부 | 서평쓰기 길라잡이

책, 사서, 서평
서평글쓰기 개요
국내외 서평매체와 역할

313.8

책, 사서, 서평

1. 어린이 책과 사서

2000년도를 전후하여 우리도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 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형태의 어린이도서관이 급속히 늘어났고, 아동도서 출판물도 양적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것은 우리도 도서관과 어린이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미국,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들의 공통점은 어린이도서관과 어린이문학이 일상적인 어린이를 교육의 중심축에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경제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전제에 밀려 어린이도서관이나 어린이 문학교육보다는 독서 교육도 경제적 성공을 위한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이제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문화로서 책 문화가 활성화되고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바탕을 다지기 위해 사서가 사서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사서가 도서관의 꽃인 이유는 수많은 책 속에서 독자들을 위한 책을 고르고 건네는 가장 앞자리에선 전문가이다. 당연히 출판문화의 변화와 어린이 책의 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어린이 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이다.

책에 대한 전문성이란 어린이 책을 바르게 보아내는 것, 어린이 책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가장 앞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2. 비평정신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서평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까닭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바로 학교에서 배우는 획일적인 독후감 문화일 것이다. 으레 동기 쓰고 줄거리 쓰고 마지막에 무척 감명 깊었다는 식으로 썼으니 말이다. 줄거리 대 감상의 비율을 90:10 정도로 하는, 평면적인 줄거리 나열과 교훈 위주의 감상이 그것이다.

이것은 자기 생각의 질서를 세우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읽는다는 것은 사고한다는 것이고, 사고한다는 것은 자기생각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즉 읽고 내용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을 자기만의 표현방식을 찾아 표현하는 것, 서로의 다른 생각과 표현방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가 세워지지 않을 때 이른바 ‘주례사 비평’처럼 전문 평론가들의 찬사 위주의 서평이 나오게 된다.

뻔히 알고 있는 사이에 깔끄러운 소리보다는 추켜세워 서로서로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바탕으로 삼는다. 이런 풍토는 비판과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서평이 주로 인맥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풍토는 오늘날 상업주의와 물질주의 세력은 보잘것없는 작품에 부당한 권위와 명성을 주기도 하고, 의미 있는 작품이 폄하되거나 묻혀버리는 일도 허다하다.

비평가는 범람하는 출판물 속에서 훌륭한 작품에 꼭 갖추어져 있는 특징을 가려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훌륭한 작품에 구비된 특질이란 문학적 가치를 말한다.

비평가는 훌륭한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근본 원칙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토대로 가치를 찾아내고 한계를 짚어내어야 한다. 그 가치를 재는 기본적 척도는 모든 책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런 종류의 책에는 이런 가치, 저런 종류의 책에는 저런 가치가 있을 수는 없다.

어떤 책에 대해서 가지는 비평의 시금석은 '왜 우리들은 그 책을 좋아하며 또는 좋아하지 않는가' 하는 비평이 '왜'이다. 이 '왜'를 분명히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책 표면에 그치지 않고 그 속 깊이까지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바르게 좋아하고 바르게 싫어하는 것, 이것이 그 이름 그대로의 모든 문화의 도달점이다.

좋은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을 가려보고 문헌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자면 독자가 그것을 읽었을 '이것은 옳다' '이것은 진짜' 혹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민감한 감수성과 판단력이 요구된다.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도록 정확하게 가르쳐줄 방식이란 따로 없다. 가치가 있는, 정평이 있는 책을 자주 읽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¹⁾

3. 어린이 책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

■ 처세를 익히는 방편으로서 책읽기

책읽기는 삶과 사회와 역사를 관통하는 통찰력을 길러준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감수성을 자극하면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바탕을 이루기도 한다.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눈뜨게 한다.

주변 인물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맺고 살아가는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게 하기도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는 마음의 힘도 길러준다. 결국 책을 읽는 일은 한 사람의 정신세계를 다지는 바탕이 된다. 그것이 생애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책읽기는 논술을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분위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출판시장은 '논술' 도서가 효자로 부상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인터넷 K문고에 들어가 '논

1) 아동문학론, 릴리언 H 스미스, 김요섭 옮김, 1989. 교학연구사

술'을 검색하면 1000여 종이나 되는 논술도서가 검색된다. 한해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어린이 책 4천여 종 가운데 대략 3분의 1이 논술용 도서인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에 공교육이 제도적으로 독서교육에 관여하면서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즉 책을 읽는 만큼 기록을 해가면 그것이 대입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책을 읽은 권수가 한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잣대로 적용되는 건 크게 아쉬움이 따른다.

저마다 자기 빛깔을 가진 아이들, 저마다 다르게 움직이는 감성의 촉수들 저마다 천 가지 만 가지 빛깔 재능을 지닌 아이들이, 수만 가지 빛깔을 가진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감성을 접고 오로지 독서는 논술을 위한 것이며 논술은 입시를 위한 것이며, 입시는 어찌되었던 경제적 성공만이 성공이라는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독서 문화의 현실이다.

출판은 한 시대 문화의 총체이다. 속성상 상업성이라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지만 어린이 교육과 문화를 대변하는 시대의 거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출판물로, 한 시대 아이들 삶과 꿈을 대변하고 이끌어내는 출판물로서 상업적 성공을 이끌어내는 출판정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출판 현실은 무한 경쟁 체제에서 상업적 성공만을 위한 출판물이 득세하고 있다. 입시와 논술이 대변하는 경제적 성공이 사회적 성공이며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라는 등식은 출판계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책을 읽어야 한다는 뒤틀린 당위는 어린이 출판 시장을 '이상비대' 현상으로까지 몰고간다. 여기서 뒤틀린이란 용어는 다 알겠지만 우리 독서 문화는 논술을 위한, 입시를 위한 방편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말한다.

전체 출판시장을 어린이 책이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 그 이면에는 논술, 경제, 처세라는 아이템을 통한 경쟁논리와 상업논리를 적용한 출판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요즘 대형서점에 가보면 어린이를 위한 재테크나, 처세술을 가르치는 책이

좋은 자리를 차지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시크릿>, <어린이를 위한 끈기>, <어린이를 위한 경제이야기>, <101가지 경제상식>, <어린이 경제 스쿨>, <어린이 경제이야기>, <어린이를 위한 마시멜로 이야기> 등 어린이용 자기계발서를 위한 특설코너가 설치되어 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과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부터 배워야 산다는 논리에 맞춘 출판물이 시장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다.

다음은 2009.06.24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이다.

1. 오스트리아에서 보물찾기(세계탐험만화역사상식 21), 곰돌이CO 지음. 아이세움. 2009.06.15
2. WHY 한국어 : 나라의 시작(초등역사학습만화1), 이근 지음. 예림당. 2009.04.30
3. WHY 한국어 : 삼국의 경쟁(초등역사학습만화2), 이근 지음. 예림당. 2009.04.30
4. 주니어 지식채널 e. 1, EBS 지식채널 e 지음. 지식채널. 2009.05.27
5. 마법천자문 고사성어. 1, 김주희 지음. 아울북. 2007.08.29
6. WHY 한국어 : 고려시대(초등역사학습만화3), 이근 지음. 예림당. 2009.04.30
7. WHY 한국어 : 조선 전기(초등역사학습만화4), 이근 지음. 예림당. 2009.04.30
8. 책 먹는 여우, 프란치스카 비어만 지음. 김경연 옮김. 김영사. 2001.10.15
9. WHY 한국어 : 조선 후기(초등역사학습만화5), 이근 지음. 예림당. 2009.04.30
10. 게으른 고양이의 결심, 프란치스카 비어만 지음. 임정희 옮김. 주니어김영사.

이번에는 2010.10.20 영풍문고 베스트셀러이다.

1. 마법천자문 18 - 오라환상의 세계로, 꿈몽. 시리얼, 아울북.2010
2. 수학도둑 39. 송도수, 서울문화사. 2010
3. 수학도둑 38. 송도수, 서울문화사. 2010
4. 내일은 실험왕 13 - 물질의 대결, 아이세움. 2010
5. 워피카드 - 학교생활의 법칙, 제프키니. 푸른날개. 2008
(이 책이 인터넷 만화에 기반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림이 주를 이루는 소설은 아니다. 각 페이지마다 만화는 한 두개 씩 삽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글이 위주다. -책 소개글 일부-)
6. 김연아처럼, 김연아. 중앙출판사. 2010
7. 수학도둑 15. 송도수. 서울문화사
8. 인체에서 살아남기1(서바이벌만화과학상식25), 곰돌이CO
9. 수학도둑 14. 송도수. 서울문화사. 2010.
10. 수학도둑 37 - 오프라인PG, 송도수. 서울문화사. 2009

2010.10.20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이다.

1. 성균관 스캔들. 김태희. 월드김영사. 2010
2. 21세기 만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김영사. 2010
3. 봉주르뚜르. 한윤섭. 문학동네. 2010
3. 스위스에서 보물찾기. (세계탐험만화역사상식25)
4. 과학영웅 2. 곤충의 습격. (BEN)10. 김강민. 중앙M&B
5. 마법의 설탕두조각. 미카엘엔테. 유혜자 옮김. 한길사. 2005
6. 수학도둑 18 . 송도수. 서울문화사
7. 책먹는 여우. 프란치스카비어만. 김경연. 주니어김영사. 2009
8. 행복한 도덕학교. 문용린. 주니어김영사. 2010

9. 행복한 도덕학교. 문용린. 주니어김영사. 2010

10. 21세기 먼나라 이웃나라 세트 12권. 이원복. 김영사. 2010

어린이 책 시장은 가벼운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과 컴퓨터 문화, 입시와 논술문화, 보고 듣는 것에 익숙한 문화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극에 길들여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출판이 교육이나 문화에 대한 정신보다는 상업성을 앞세운 출판물이 시장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만화로 된 지식책을 주요 정신의 영양소로 먹고 자라는 아이들 정신은 어떻게 형성될까?

■ 시장의 중심 2 번역서

앞서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와 달리 의식을 가지고 어린이 책 운동을 펼친다고 여겨지는 인터넷 서점 오픈키드의 2010.10월 베스트셀러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다.

1. 강아지똥. 권정생 글. 정승각 그림. 길벗어린이. 2000

2. 당나귀 실베스터와 요술 조약돌. 윌리엄 스타이그 글·그림 이상경 옮김.
다산기획. 2007

3.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허은미 옮김. 웅진주니어. 2001

4. 여우의 전화 박스. 도다 가즈요 글쓴이. 다카스 가즈미 그림. 햇살과 나무꾼
옮김. 크레용하우스. 2007

5. 고릴라. 앤서니 브라운 지음. 장은수 옮김. 비룡소. 1998

6. 현소 선생님께. 비벌리 클리어리 글. 선우미정 옮김. 이승민 그림. 보림. 2005

7. 루이 브라이. 마가렛 데이비스 글. 이양숙 옮김. 다산기획. 1999

8. 거미와 파리. 메리 호워드 글. 토니 디터리지 그림. 장경렬 옮김. 열린어린이. 2004

9. 엉뚱이 똥이. 박경선 지음. 정경심 그림. 우리교육. 2001

10. 선생님, 우리 선생님. 패트리샤 폴라코 글·그림 최순희 옮김. 시공주니어. 2002

2010.10월의 베스트셀러를 살펴본 결과인데 여기서 우리나라 책은 두 권뿐이다. 여기서는 80%가 외국책이다. 이 통계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장에서 큰 흐름이 번역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해마다 3월말에서 4월초가 되면 우리나라 출판계인력들이 대거 볼로냐를 향한다. 번역 타이틀을 구매하기 위해서이다. 볼로냐에서 한국 출판인들이 큰손으로 통한지 오래되었다. 시장에서 국내의 저작물 대비는 2:8, 3:7 정도로 접친다. 특히 유아용 그림책은 90%에 이를 만큼 외국저작물에 시장을 내어주고 있다. 특히 국내 독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앤서니 브라운 존 버닝햄, 레이먼드 브릭스 같은 작가들은 책이 나오기만 하면 묻지마 구매를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아동도서가 설자리를 잃고 있고 다양한 세계를 경험해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영·미·일 도서로 심하게 쏠려 있는 셈이다.

결국 우리나라 아이들은 서양 아이들 눈으로, 일본 아이들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다시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 아이들이 갖게 될 정체성의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적 자긍심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어른들 시장 논리에, 무조건적인 서구지향적 세계관을 지양해야 마땅하다. 어떻게 읽고 쓰고 토론하면서 어린이 책이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와 거름 장치를 통한 다양한 방식의 소통이 필요하다.

■ 어린이 문학은 비주류

최근에 아동출판사들은 새로운 작가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공모전 등을 통해 거액의 상금을 걸고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그 결과 새로운 작가들이 등장하여 눈길을 끌기도 하지만 시장을 이끄는 아이콘으로 부상하지 못한다. 80년대 아동문단을 이끌었던 권정생, 이원수,

이주홍, 마해송, 박상규, 임길택 등 작가군단이 90년 초까지 영향을 미쳤고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90년 중반 황선미, 이금이, 김중미, 박기범, 이상권 등 작가들이 역량을 발휘하며 역할을 했지만, 그 후 이렇다 하게 부상하는 작가군단이 형성되지 않는다.

2000년 들어서면서 최나미, 김옥, 이현, 공지희, 박효미, 김남중, 김기정 등이 새로운 작가군으로 등장하여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뚜렷한 흡인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역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아동문학이 상상, 재미, 흥미라는 코드를 찾아내는 역량발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시장은 자극 일변도로 흘러가고 작가들은 아이들의 감성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2010년 들어서면서 강정연, 김해원, 채인선, 김일광, 박효미 등의 90년대 중후반 작가들에서 노지영, 류미원, 김미애, 김하나 김혜연, 김돌 등 새로운 작가군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어린 독자들을 크게 만족시키는 것 같지 않다.

아이들이 자극적인 작품에 길들어서 일까? 아니면 작가들이 독자들 기호를 모르는 걸까? 아뿔튼 작가와 독자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듯하다.

논술과 가벼운 방식의 지식 전달 책이 시장의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작가가 시대를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부상하면서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아뿔튼 최근 어린이 출판 시장에서 어린이 문학은 비주류다.

어린이 문학을 주류로 끌어올리면서 인문정신을 살리는 일 이것도 역사 우리 문학이 살아야 할 중요한 까닭이다.

4. 어린이 책 전문가로서 사서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 책에 대한 비평 활동의 필요성을 더 말해 무엇하랴. 비평활동은 작가에 대한 독자의 관심과 애정이다. 독자의 관심과 애정 없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이 작가이다.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은 상황에서 작가는 자기 방식에 매몰될 수 있고, 독자는 이런 작가 작품에 등을 돌리게 마련이다.

작가와 독자의 긴밀한 소통이야말로 작품이 작품으로서 가치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활동이 될 것이다. 해마다 문화관광부 등 국가기관이나 한국출판인회의 같은 출판관련 단체들이 어린이 책 선정 목록 등을 발표한다. 하지만 선정 위원에 사서들이 참여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

어린이 책 정보를 생산하고 가공하여 적절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어린이 책 사서들이 담당해야 할 전문영역이 되어야 한다. 사서들이 어린이 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때 사서의 사회적 지위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사서들의 사회적 지위 확보는 읽고 쓰면서 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신뢰를 얻을 때 가능할 것이다. 즉 선택하여 읽고 쓰는 것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그것은 한해에 쏟아지는 수많은 책 가운데서 선택할 것과 버릴 것에 대한 가치 잣대를 갖는 것에는 사회 문화 역사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

사서의 가치관, 세계관이 반영되어 선정된 책들은 아이들이 정신의 질서를 세우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린이 책에 대한 전문성 획득은 사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부각시킬 것이며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 책에 대한 전문성 확보야말로 사서들이 욕심을 부려 마땅한 일이 아닐까 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사서 서평 집단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어린이 책 전문 서평지가 없다. 물론 간헐적으로 몇몇 잡지에서 서평을 부분적으로 다루기는 하지만 쏟아져 나오는 책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다.

서평은 작가에게는 자기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으로 인식되며, 독자에게

게는 책을 선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출판인들, 편집자들에게는 책을 출간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런 중요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는 사서들이 이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싶다.

어린이 책을 보는 눈이 부족하다. 글을 쓰지 못한다. 시간이 없다. 그건 전문가가 하는 일이다. 사서는 책을 잘 관리하고 도서관 업무를 잘 보면 된다.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해 왔다면 당신은 사서로서 자격이 부족하다.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부터 메우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사서들이 주는 올해의 어린이 작가상, 출판상 등을 쥐보고 그것이 작가들에게 명예가 되도록 해보자. 한국 어린이도서관협회 사서들이 어린이 책 전문가로서 어린이 책 관련하는 일에 앞장서서 교육하고 교육받는 살아 있는 사서가 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어린이 책 의미를 찾아내고 함께 공유하는 것, 작가들을 자극하는 것, 작가나 출판사들이 독자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 그것이 비평 활동이다.

따라서 어린이 책이 갖는 의미의 지점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어떻게 작가들을 독려하고 쓴 소리도 할 것인가, 출판사들로 하여금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비평 활동으로부터 시작한다.

어린이 책이 어린이 삶과 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것, 어린이 책을 읽고 쓰면서 반듯한 자기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살아 있는 도서관의 역할이며, 사서들이 서포터즈 역할을 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어린이 책의 중심에 사서가 있고, 어린이 책 전문가로서 사서가 있어서 살아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되어보길 꿈꾼다. 건강한 어린이 책 문화가 살아 움직이기를 꿈꾸어 본다.

서평글쓰기 개요

1. 서평의 대상

‘세상의 모든 책’은 ‘평’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서평(書評).

구체적으로 책의 무엇을 평해야 할까? 서평의 대상이 책이라면, 책을 이루는 모든 단위가 평의 대상이다.

책을 이루는 요소는 무엇일까? 책은 크게 내적인 구성과 외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 내적인 요소는 책의 내용(콘텐츠)이고, 외적인 요소는 책이라는 사물(이것을 책의 물성物性이라고 한다)이다.

책의 안팎

책을 읽어서 드러나는 것.

책을 보아서 알아채는 것.

전자는 활자를 읽어 내면화하는 것, 작가에 대한 것, 책 안에서 주인공들이 자기를 완성해가는 과정(갈등과 극복 과정을 통해, 서사, 내러티브라고 할 수도 있다), 역사 - 문화 - 사회적 좌표들이다.

후자는 책의 표지, 글과 그림의 배치와 완성도, 본문과 표지 종이의 재질, 적절한 후가공, 판형과 판면의 짜임새일 것이다. 보아서 알아채는 것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읽는 법’에 대한 기본 지식도 필요하다. 디자인적인 평이다.

책의 외부

표지(cover, 앞표지/ 뒷표지/ 앞뒤 책날개)/ 책등(spine, back)/ 북킷(Book Jacket,

Jacket cover)/ 표제지(Title page, 속표지/ 반표지)

면지/ 헌사/ 서문 혹은 여는글/ 차례 혹은 목차

책의 내용

부록/ 색인/ 판권지

책의 판면구성

판형/ 판면과 여백(하늘과 땅)/ 단/ 글줄길이

자간, 단어간, 행간/ 서체, 글꼴

본문서체와 표지서체/ 일책일자(一冊一字)/ 책의 격(冊格)과 인격(人格)

하이퍼미디어의 조건/ 찾아보기와 두주(면주)

2. 시작이 반, 도입부

도입부 시작하는 몇 가지 방법

에피소드를 끌어와/ 서평대상 책과 서평자 주변의 이야기로부터

다른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작품의 내용(줄거리) 소개/ 호기심 갖도록 여운을 주는 시작 글

책의 표지로부터

작가에 대해 언급하며

작품의 제목과 연계해서

지은이의 다른 작품을 건주어서

3. 사례로 보는 서평 도입부

■ 대한민국에서 열일곱으로 살아가기, 아니 살아남기!

『심리학, 열일곱 살을 부탁해』 이정현 지음, 걷는나무, 272쪽

발그레한 볼과 빨간 머리, 빨간 치마의 표지가 손길을 끈다. 딱 딱한 목차대신 눈길을 끄는 자기 성찰적 질문들로 17세와 그 언저리 독자의 마음을 끈다. 또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왜 난 꿈이 없는 걸까?”, “왜 난 공부가 싫은 걸까?”, “왜 부모님은 내 맘을 몰라주는 걸까?”

정신과 의사인 저자 이정현은 13년간 10대 아이들과 가진 상담을 통해 심리상태와 가슴 속 질문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제시해준다. 정답이라기보다는 왜 그럴까에 대한 상냥한 설명에 가깝다. 상담했던 학생들의 실제 질문과 함께 심리상태, 상담 과정에 대해 조곤조곤 이야기하며 어른들이 간과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준다. 이제까지 나의 상담은 걱정스런 맘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교과서처럼 뻔한 말들을 늘어놓은 것뿐이었다. ‘너의 어려움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다, 너 만 아픈 게 아니다…….’

이인문(서울관광고 사서교사)

■ 동화는 배려의 문학

『만국기 소년』 유은실 글, 정성화 그림, 창비

『이찬실 아줌마의 가구 찾기』 박미라 글, 김중석 그림, 바람의아이들

어린이날이 다가오던 즈음이었다. 라디오에서 갑자기 동요가 흘러나온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노래가 아이들 목소리 특유의 고음으로 짹짹 울려 퍼진다. “……금방이라도 알 수 있지 알 수 있어/ 아이들이 없어져 보면/ 낮도 밤인 것을/ 노래 소리 들리지 않는 것을…….” (동요 「아이들은」) 듣다보니 섬뜩하다. 아이들이 없어진다고? 마침 나는 운전 중이었고, 횡단보도에 멈추어 선 채 삼삼오오 짹 짹 지어 길을 건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던 참이었다.

그렇잖아도 나는 아이들이란 존재가 있어서 아무 데서나 마주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느끼는 때가 많은 사람이다. 아이들은 그냥 있다. 그냥 있어서 좋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내가 아이가 아니기 때문일까? 그런데 진짜 아이(목소리)가 주장한다. 세상이 밝은 것은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만일 어른들이 그걸 모른다면 한번 없어져 줄 수도 있다고, 그러면 당신들(어른들)은 세상이 얼마나 칙칙해지는지 알게 될 거라고. 이건 아무래도 아이들 화법이 아니다.

최윤정(아동문학평론가)

■ 내 자신감의 원천은 긍정 마인드! 언제나 당당한 나는 떠돌이 개!

『나는 떠돌이 개야』 이상교 글·이형진 그림, 시공주니어, 2009

『1학년 3반 34번』, 『에드워드: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 『점』, 『우리 다시 만날 때』, 이 책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바로 ‘어른들이 읽는, 어른들을 위한 어린이 책’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책들은 어린이들을 주요 독자로 하지만 어른들이 보아도 손색없을 정도로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룬 내용이 알찬 책들이다. 어린이 책이지만 어른들에게 충고의 한마디, 반성의 한마디, 깨달음의 한마디를 던져주는 책들이라고 할까?

박세현(군포중앙도서관)

■ 목어 소릴 들을 때마다 마음을 닦아야 한다, 왜?

『나무가 자라는 물고기』 김혜리 지음, 사계절, 2009

『나무가 자라는 물고기』, 제목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다. 물고기한테서 나무가 자라다니…….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첫 장을 펼치면 마지막까지 눈을 땔 수가 없다. 목판으로 찍어낸 듯한 그림은 거칠면서도, 표정 하나하나가 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표현하면서도 한두 가지 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이야기를 더욱 실감나게 한다.

주혜영(양주덕정도서관)

■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드립니다!

『먼지깨비』 이연실 글·그림 한솔수북, 2009

오랜만에 일기를 쓰려고 책상 앞에 앉는다. 일기장은 여기 있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파란색 펜은 어디 갔지?’ 책상을 열심히 뒤져봐도 ‘땅바닥에 떨어졌나?’ 내려 봐도 보이지 않는다. 열심히 찾다 지쳐 결국 일기 쓰기는 포기! TV나 봐야겠다.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눈에 보이는 파란색 펜! 어제 열심히 찾을 때는 안보이더니……, ‘어디 갔다 왔니?’ 아무래도 먼지깨비가 가져다주었나 보다.

『먼지깨비』는 이연실 작가가 다락방에서 조그마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나서 떠오른 생각을, 먼지깨비가 사는 상상 속 먼지마을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미지(양평어린이도서관)

■ 미친개는 정말 미친개일까?

『미친개』 박기범 글 김중숙 그림, 샘터, 2008

한지 느낌의 누런색 표지 위로 붓이 획획 지나간 자리에, 땅에 코를 대고 쿵쿵 냄새를 맡는 검은 개가 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여백에 선명하게 박혀 있는 ‘미친개’라는 세 글자. 마치 그 글자가 각인인 것처럼, 개는 고개를 들고 금방이라도 날카로운 눈과 발톱으로 공격해올 것만 같다. 하지만 이 개가 정말 미

친개일까?

이진화(경기평생교육학습관)

■ 우리는 소중하니까요!

『용구삼촌』 권정생 글·허구 그림 산하, 2009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라는 광고를 기억하는가? 자신들이 일류임을 알리는 기업 이미지 광고지만 보는 나로서는 무척 불편했다. ‘세상 사람 모두 일등할 리 없고, 순위를 가릴 수 없는 일도 있고, 협력할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올 때도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었다. 2등도 기억하지 않는 세상에 꼴찌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림책이 있다.

이수경(평택지산초록도서관)

■ 호랑이가 저승사자에게 잡혀갔다고?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호랑이』 김미혜 글·최미란 그림, 사계절, 2008

겉표지는 호랑이가 잔뜩 겁에 질린 모습이다. 호랑이가 왜 이렇게 겁을 먹었을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무섭거나 혹은 용감한 호랑이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표지를 들추면 손자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할머니. 옛날 얘기 하나 해줘” 하며 할머니를 조른다. 시작부터가 흥미진진하다.

문다혜(오산청학도서관)

4. 제목잡기, 낚시 혹은 황홀한 길안내

■ 좋은 제목, 이미 절반의 성공!

- 기억하기 좋은가?
- 책의 주제와 내용, 특징을 잘 담았는가?

- 분야나 독자층과 잘 어울리는가?
- 책 안에서 독자의 시선을 붙잡는가?
- 부제나 중간제목과 잘 어울리는가?
- 입에 착 달라붙는가?

■ 제목달기 이렇게

- 서평을 쓰고자하는 발상,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 서평원고의 본문을 이 듯 뒤져서.
- '중간제목 → 전체 제목' 중간제목의 힌트를 놓치지 않고서.
- 동사, 형용사, 부사의 조합 ≥ 명사의 원칙에 입각해서.
- 마실다니듯 인터넷 서점을 한바퀴 돌아서.
- 잘 안되면, 질문을 던져서.
- 가까운 예비 독자에게 물어서.

■ 서평제목 분석

- ◎ 대한민국에서 열일곱으로 살아가기, 아니 살아남기! 『심리학, 열일곱 살을 부탁해』
- ◎ 백과사전이 따뜻해진다! 『따뜻한 그림백과 - 생활편』
- ◎ 젊음이라는 특권을 상실한 청춘은 재미없다 『너의 앓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 ◎ 영차, 영차, 좀더, 조금만 더 『신화, 과학을 들어 올리다』
- ◎ 같은 시각에 우린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 『시간의 네 방향』
- ◎ 존재이며 장소이고 기억인, 삶 『나의 사직동』
- ◎ 어린 목숨을 위협하는 자, 누구? 『열한 번째 양은 누굴까?』
- ◎ 우울증 예방주사는 없을까? 『괜찮아 괜찮아 슬퍼도 괜찮아!』
- ◎ 살아 있다는 것은 실수하는 거라나? 『살아 있어』
- ◎ 선생은 고작 동화 몇 편 남겼다고 했으나…… 『랑랑별 때때롱』
- ◎ 지혜를 먹다, 달디 단 장맛일세 『가을이네 장담그기』

- ◎ '찍' 이는 글 '빨' 『지구 위의 작업실』
- ◎ 작가가 들려주는 작가 이야기 『작가』

5. 서평영역의 차별화

■ 따로 또 같이

그림책 - 문학 - 비문학

- 책이라는 장의 문제에서 동일한 도구
- 각 영역마다 독특한 도구

백인백색(百人百色)

- 서평자 스스로 독특한 영역, 독특한 도구를 찾자!

■ 나에게 들려주는 서평, 마무리

소리 내 읽어 보자

목독과 음독/ 연극의 구조/ 퇴고(교정교열의 힘)

■ 맞춤법과 문법, 띄어쓰기의 블랙홀 탈출기!

국립국어원 우리말배움터 → 한국어 맞춤법/ 문법 검사기

http://urimal.cs.pusan.ac.kr/urimal_new

국내외 서평매체와 역할

■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

도서관은 좋은 책을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며, 사서는 책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서는 '좋은 책의 선정 기준'을 가지고 발행되는 모든 책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실제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전문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좋은 책을 선정하는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서는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정보원의 도움이 적실히 필요하다.

■ 서평 매체의 필요성 부각

서평은 출판되는 책들에 대한 서지 정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도서에 관한 정보원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서평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책을 선정하고 구매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도서관과 사서는 서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도서관과 사서는 어떤 서평을 필요로 하는가?

1. 국내 서평을 제공하는 매체(어린이 책을 중심으로)

국내 서평 매체의 특성을 구명하고 문제점을 살펴보자.

〈표 1〉 어린이 도서에 대한 서평을 제공하는 매체

서평 매체의 종류	주요 매체
주요 일간지(10) 무가지(5) 주요 경제지(5) 지방신문(22)	- 조선/중앙/동아/한겨레/한국/경향/국민/문화/서울/세계 - 무가지(메트로/더데일리포커스/AM7/데일리이브닝/시티신문) - 부산일보/전남일보/매일신문 등
인터넷 매체(20)	-리더스 가이드/오마이뉴스 등
웹서점(13) 웹진(5)	- 교보웹서점/인터파크/YES24/알라딘 등 - 뉴북/다음커뮤니케이션/네이버북/문화웹진나비 등
서평출판매체(24)	- 책으로어는세상/학교도서관교사모임/한우리독서/학교도서관저널
어린이신문(3)	- 어린이동아/소년조선/소년한국
어린이문학지(35)	- 동화읽는어른/아침햇살/창비어린이/초등독서평설/동화읽는가족/ 아동문학평론/열린어린이 등
월간지(90)	- 개똥이네집/그림책상상/우리교육/좋은생각/좋은엄마 등
기타	- 평화방송 초록나라꿈동산/YWCA

참고: 브라가(www.braga.co.kr)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책만을 전문적으로 서평하는 서평 전문지는 사실상 없다. 하지만 많은 매체에서 어린이 도서를 서평하거나 신간 소개 형식의 글을 게재하고 있다(〈표 1〉).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일간지의 서평면이며, 서평의 생산량도 가장 많다.(신간 소개를 포함할 경우 연간 약 3천 권 정도의 책을 소개하고 있다.)

■ 주요 일간지

대다수의 일간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서평면(3~4면)을 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 책에 대한 서평은 독립적인 면이나 코너를 할당하여 어린이 책을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책 서평 지면이 줄어들면서 기사 형식의 서평은 줄

어둠과 신간 소개 형식의 서평이 주를 이룬다.

■ 어린이문학지

대다수의 어린이문학지는 발행처의 취지에 따라 서평을 게재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어린이문화진흥회의 <생각이 저요 저요>는 어린이와 독서지도사를, 아동문학평론사가 발행하는 계간지 <아동문학평론>는 아동문학가를, <일러스트>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우리교육>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 독자로 하여 서평을 게재한다.

<책으로여는세상>, <열린어린이>, <까치글짓기>, <월간 북새통> 등은 어린이책 유통회사가 정기적으로 출간하는 서평 매체이며, <창비어린이>, <동화읽는가족>, <우리교육>은 출판사가 발행하는 서평 매체이다.

■ 문제점

-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서평 매체의 부족

이는 서평 매체의 발행기관과 편집자 및 서평가를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일부 서평 매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리 목적의 서평 매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권위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종합일간지의 경우 어린이 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기자들이 서평을 쓰고 있어 일관성 있는 도서 선정을 하지 못한다.

- 도서 선정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 결여... 서평 매체의 발행기관의 객관성 및 추천 사유의 투명성 결여되어 있어 일부 대형 출판사나 유명 작가의 책이 우선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

- 서평 전문가의 부족 ... 사서들이 서평의 생산자로 나서야 할 때

- 서평의 시의성 부족 ... 서평 매체의 발행 간격이 월간 및 계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서평에 대한 접근성 결여 ... 대부분 출판 매체를 통해 서평이 게재되고 있어 서평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서평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 서점의 서평(출판사 보도자료)을 보고 도서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2. 서평 매체의 역할

서평의 역할은 서평의 목적이 도서관이나 개인이 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서평을 문학 평론의 한 형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 저널리즘으로서의 역할

“서평이란 책의 내용에 대한 개요를 알려주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 Boaz, 1958

“서평이란 문학이 아니고 독자들에게 책을 소개하려는 의도로 쓰는 저널리즘의 일부다.”

- Tisdell, 1958

■ 도서 선정 도구로서의 역할(문학적 평가를 중시)

“좋은 서평은 책을 간결하게 기술하고 책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가 머릿속에 책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Horning, 1997

“서평은 무엇보다도 책에 대한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 Fialkoff, 1998

■ 어린이 책 서평의 평가적 역할이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어린이 책에 대한 서평은 어린이 책의 출판 종수가 증가하면서 그 필요성과 가치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서평의 평가적 역할이 더욱 확대 강화되고 있다. 또한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이드 역할을 할 만큼 충분히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해외 서평 매체 (도서관을 중심으로)

1) 미국 도서관협회

- 6,400명이 넘는 사서와 교육종사자들이 회원인 미국도서관협회는 매년 1월 뉴베리상과 칼데콧상 수상작을 발표한다.
- Newbery Medal
1922년 미국도서관협회가 제정하여 소설, 시집, 논픽션 부문에 걸쳐 상을 수여
- Caldecott Medal
1938년 미국도서관협회가 제정하여 어린이 책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수여

2) 혼 북(The Horn Book)

혼 북은 1924년 설립, 아동, 청소년 문학잡지(The Horn Book Magazine, The Horn Book Guide)를 발행하여 아동문학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 Boston Globe-horn Book Awards(보스톤 글로브 혼 북 아동도서상)
혼 북이 주관하여 1976년 제정되어 그림책, 소설과 시, 비소설 부문에 걸쳐 시상

3) 영국도서관협회

- Kate Greenaway Medal
1955년부터 동화책의 그림 분야에 기여한 작가에게 수여
- 2002년부터는 도서정보 전문 공인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수상자는 금메달과 500파운드 상당의 책을 받아 자신이 선택한 도서관에 기증할 수

있다. 단순히 작가들의 작품 활동과 노고를 치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 도서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토양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상이다.

- Nestle Children's Book Prize

1985년부터 시작한 영국의 대표적인 아동문학상. 심사위원들이 먼저 후보작을 정하고 영국의 어린이들이 투표하여 수상작을 결정한다. 5세 이하, 6~8세, 9~11세 세 부분으로 나누어 수여한다.

4) 미국 도서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 협회

- The Golden Kite Awards

1973년에 제정된 미국 아동 문학상으로 소설, 비소설, 그림책 작가와 삽화가 부분을 시상.

- Parent's Choice award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학부모회(parent's Choice Foundation)에서 1978년부터 수여하기 시작. 도서뿐만 아니라 오디오, 잡지, TV, DVD, 비디오 게임, 웹사이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상한다.

- 어린이 책에 주목하는 많은 관계자들(교사, 부모, 사서, 서평전문가)이 나름대로 서평 활동을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책에 대한 평가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책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서들의 서평 활동이 두드러진다.

-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한국어린이도서상을 제정하여 어린이 도서에 주는 상으로 본상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수여하고, 수상부문은 일러스트레이션, 저작, 기획편집, 특별상 등이 있다.

미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 협의회의 도서 선정 기준

1. 거짓 없이 솔직하게 현실 생활을 묘사
2. 성실한 저작 목적으로 출판 된 것
3. 청소년의 긍정적 사고력 배양
4. 건전하고 사회적 성숙을 돕는 도서
5. 너무 교훈적이거나 권태감을 주는 도서는 피하기
6. 장점이 많은 것
7. 청소년의 관심사를 넓히고 지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책
8. 감동을 주는 책

3. 맺는 말

독후감이 주관적인 느낌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개인적인 글인 반면, 서평은 이러한 감상을 객관화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공문화하는 글이다. 그렇다 보니 서평의 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부분이 강조되어 책을 좋은 책과 그렇지 못한 책으로 구분하여 독자들의 독서 경향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서평 매체의 발행처가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발행 취지가 영리 목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설령 서평 매체의 목적이 영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MBC의 <느낌표>나 어린이도서연구회의 추천도서와 같이 독자들의 독서 활동에 쏠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폭넓은 독서 활동은 물론 다양한 창작 활동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 또한 서평 매체나 서평가가 권력화되는 듯한 인상을 남겨 서평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서평은 매우 중요하다. 서평은 독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독서활동에 참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창작활동을 자극하기도 한다. 그리고 보다 나은 독서 문화를 창출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서평

을 통한 양질의 독서 문화 발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부 | 작가와 만나다, 작가특강

오채 작가와 나의 블루보리왕자를 만나다
서평모음, 오채 작가를 읽고 만나고

313.8

오채 작가와
나의 블루보리왕자를 만나다

813.8



오채 작가와 『나의, 블루보리 왕자』를 만나다

1. 나의, 블루보리 왕자

『날마다 뽀꼬뽀스』로 2008년 제4회 마해송문학상을 받으며 많은 주목을 받은 오채의 신작 동화가 출간됐다. 작품마다 가슴 저릿한 감동과 따뜻한 인간애를 보여주고 있는 오채는 이번 작품에서도 경쾌하면서도 속 깊은 마음 씀씀이를 보여준다. 멋진 시베리안 허스키를 두고 한편으론 여리고, 한편으론 대범한 4학년 남자아이의 심리를 맞깔나게 그리고 있는 이 작품에서 작가의 관심은 여전히 ‘사람을 이루는 것’에 모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열한 살 아이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우정과 질투와 화해의 이야기를 애완견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따뜻하고 유쾌하게 버무려 놓았다.

아이들은 필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누군가 내 마음 속에 들어온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척척 알아서 들어주고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럼 굳이 엄마를 조를 일도, 억지로 말 잘 듣는 아이로 탈바꿈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다. 대개의 아이들은 어른들(특히 엄마 아빠)이 자기들의 맘을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아이들은 속으로 불만이 쌓여 갈 수밖에 없다.

이 책의 주인공인 초등학교 4학년 한솔이도 엄마 때문에 맘속에 불만이 가득한 남자아이다. 스스로 씩씩한 아이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이루게 해줄 멋진 개를 생일선물로 받고 싶었는데……. 세상에나! 생일날 한솔이 눈앞에 놓인 건 강아지 로봇이었다. 살아 있는 개가 아니라 로봇이라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한솔이에게 더욱 속상한 일이 생겼다. 과일 가게 아저씨 집에 무지 당당하고 늠름해 보이는, 이름도 생소한 시베리안 허스키 한 마리가 생긴 것이다.

한솔이는 비록 자기 개는 아니지만 어느새 아저씨네 허스키한테 마음을 쏟 빼앗기고 만다. 늘 당당하게 서서 푸른 눈을 빛내고 있는 허스키를 볼 때마다 자기에겐 없는 용기와 자신감이 마구 생겨나는 것만 같으니까. 또 어릴 때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를 다친 이후로 뛰다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허스키는 그런 한솔이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멋진 모습으로 달리기까지 하니까…….

■ 오 채

노을 지는 모습이 아름다운 안마도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2008년 장편동화 『날마다 뽀뽀맹스』로 제4회 마해송문학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는 『콩쥐 짝꿍 팔쥐 짝꿍』, 『오메 할머니』 등이 있다.

■ 선정평

『나의, 블루보리 왕자』는 개를 가운데 두고 펼쳐지는 4학년 아이들의 우정, 질투, 화해를 다룬 작품이다. 주인공과 민규, 민지 쌍둥이 오누이가 시베리안 허스키란 개를 사이에 두고,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이야기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소재를 선택했음에도 섬세한 미학적 결을 인물들과 상황 속에 잘 풀어놓았으며, 사건의 급속한 진행도 동화의 새로운 영역이라 생각되는 좋은 작품이었다.

- <문학나눔> 2010년 4분기 우수문학도서

2. 나의, 블루보리 왕자

개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한솔이는 생일날 자기 개를 선물받기를 고대하지만 엄마는 로봇개를 선물한다. 실망하던 중 이웃 과일 가게에서 늠름하고 푸른 눈을 가진 멋진 시베리안 허스키를 만난다. 한솔이는 그 개에게 마음을 속 빼앗기며 온 마음을 쏟는다. 개를 두고 과일가게 아저씨, 같은 반 아이들과 함께 사랑, 우정, 용기, 좌절, 배신,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겪는다.

- <교래가숨쉬는도서관> 선정 2010년 어린이책 50선

3. 새책꾸러미 - 나의, 블루보리 왕자

과일 가게 아저씨네 시베리안 허스키에 마음을 뺏긴 한솔이는 ‘왕자’ 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애지중지한다. 그런데 깽쟁이 친구 민지도 왕자를 좋아한다.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사연이 있는 자전거 타기 대결까지 무릅쓰는 한솔. 왕자는 누구 차지가 될까? 동물과의 우정, 친구 사이의 질투처럼 아이들이 공감할 이야기다.(3학년부터)

- <아침독서신문> 2010년 12월07일

4. 파란 눈의 늠름한 개..., 너에게 이름 지어줄게

과일가게 시베리안 허스키에 아이들은 이름짓기 경쟁
티격태격 하며 우정 쌓기, 반성하며 성장하는 동심 그려

『나의, 블루보리 왕자』 - 오채 지음, 오승민 그림, 문학과지성사, 8,500원

열한 살 한솔이는 생일선물로 강아지를 갖고 싶어 엄마를 계속 졸라댄다. 한솔이는 스스로 씩씩한 아이가 되기 위해 멋진 개를 선물받고 싶었다. 그런데

엄마가 안겨준 것은 강아지 로봇이었다. 자신의 마음도 몰라주는 엄마 때문에 한솔이는 속상해 죽을 지경이다. 그런 한솔이 앞에 아주 멋있어 보이는 시베리안 허스키가 나타난다. 과일가게 아저씨가 데려온 이 개는 파란 눈에 늠름한 자세로 한솔이를 푹 빠지게 만들었다.

광고계에서 3B가 등장하면 그 광고는 망할 염려가 없다고들 말한다. 미인(Beauty), 아기(Baby), 동물(Beast)은 광고를 보는 누구나에게 호감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블루보리 왕자』는 이런 이미지에만 기대고 있지 않다. 강아지의 매력보다는 한솔이의 성장과 건강한 관계맺음, 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솔이의 단짝친구 민규와 민규의 쌍둥이 동생 민지도 이 개에게 관심이 지대하다. 그러다 과일가게 아저씨는 개 이름을 아이들에게 공모하고 한솔이는 ‘왕자’, 민지는 ‘블루베리’라고 부르자고 한다. 결국 과일가게 아저씨가 선택한 이름은 왕자. 한솔이는 신이나지만 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둘은 자전거 시합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할지 정하는 데 합의한다.

어른들의 눈이라면 남의 개를 놓고 뭐하는 짓인가 싶겠지만 두 아이에게는 자존심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 결국 어렸을 때 사고로 한쪽 다리가 조금 불편한 한솔이가 지게 되지만 한솔이는 경기 조건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계속 왕자로 부를 거라고 선언한다. 한솔이와 민지 모두 결과에 승복하지 못했고,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게 아이들의 실제 모습에 더 가까워 오히려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한솔이는 시베리안 허스키 왕자와 더욱 친해졌지만, 왕자가 힘 조절을 잘못해 한솔이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변한다. 결정적인 계기는 자신

이 아픈 동안에 민지를 등에 태워준 왕자의 배신 때문이었다. 그런 왕자를 골탕먹이려고 감자싹을 먹이는 한솔이가 안쓰럽다.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거부당했다는 괴로움이 느껴졌다. 그렇지만 곧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에서 훌쩍 자라있는 한솔이를 만날 수 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좌절과 성취를 번갈아 겪는다. 감정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의, 블루보리 왕자』는 이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통을 잘 짜여진 이야기 속에서 녹여내고 있다.

- <국제신문> 최영지 기자 2010.10.08

서평모음, 오채 작가를 읽고 만나고

- ▶ 어린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_ 이송자(경기도)
- ▶ 첫 정, 처음으로 사랑을 쓴다 _ 최미화(하남 시립도서관)
- ▶ 소년 개에 미치다, 알고 보니 그것은 사랑이었네 _ 김택겸(파주 중앙도서관)
- ▶ 할머니와 오랫동안 뽀꼬뽀스를 ... _ 김영희(성남 중원도서관)
- ▶ 유년의 추억, 그리고 할머니가 생각한다 _ 김택겸(파주 중앙도서관)
- ▶ 아~~ 우리 할매 _ 김동관(남양주 별내도서관)
- ▶ 까칠한 시골 할머니와 천덕꾸러기 강아지의 도시 생활 _ 박정서(성남 중원도서관)
- ▶ '토종 할머니'의 위력을 떨치는 매력만점, 오메 할머니 _ 양지영(평택 지산초록도서관)

어린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이송재(경기도)



초등학생 4학년 남자아이들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한솔이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다. 생일날 강아지를 선물받고 싶었지만 받고 싶은 선물은 엄마에게 묵살당한다. 사실 한솔이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것은 엄마, 아빠를 대신해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엄마는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 하지만 옆집에 온 시베리안 허스키를 보고 한솔이에 반한 한솔이가 쥐는 사랑이야기이다.

한솔이는 시베리안 허스키(블루보리 왕자)를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자전거 타기에 도전한다. 몸이 불편하고 어릴 때 사고도 있어 자전거를 타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절실함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다. 한솔이의 블루보리 왕자 자기편 만들기는 흥미진진하게 이어진다.

우리에게 부모가 아닌 제3의 대상을 사랑하는 감정은 언제 처음 느끼게 될까? 사랑의 감정의 동반되는 설렘, 아픔, 질투, 시기.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의 아이들이 처음 느끼게 되는 사랑의 감정에 대해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줘야 할까? 아이들의 시각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해결하는 방법을 이책에서는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까지 어린아이들이 느낄 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마냥 어릴꺼라는 생각만으로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진 않았나 반성하게 된다.

우린 어른들의 잣대로만 우린 아이들을 보는게 아닐까?

한솔이는 '내가 진짜 강아지가 필요한 이유는 마음껏 뿔 수 없는 자신 대신 개가 마음껏 뿔 수 있어 대리만족은 하고 싶은 이유가 개를 갖고 싶은 진짜 이유' 라고 의젓하게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아이들이 느끼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정답이 없다. 내가 좋아 하는 것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진정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이 책은 보여주고 있다. 넌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가지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는 진정 떠나 보낼 수도 있다. 너의 감정이 제일 소중한니까!

『나의, 블루보리 왕자』 오채 지음 · 오승민 그림, 문학과 지성사, 2010

첫 정, 처음으로 사랑을 쏟다

최미희(하남시립도서관)



『나의, 블루보리 왕자』 제목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이상했다. ‘왜 중간에 심표를 찍었을까?’ 단지 심표 하나일 뿐인데 이런 것에 말 그대로 집착하고 있는 게 우습다 생각하며 일단은 책을 읽기 시작했다.

우선 표지를 보자.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이 녀석이 블루보리 왕자인가 싶어 싱긋 입꼬리를 올리며 웃고 있는 녀석을 눈여겨본다. 가만히 보고 있자니 의 미심장하게 웃고 있는 것도 같고.

어린 아이들은 애완동물에 대한 열망이 샘솟는가 보다. 초등학교 시절에 햄스터, 토끼, 강아지 등을 두루 섭렵하고 이젠 중학생이 된 사춘 동생만 봐도 그렇다. 이 책 속의 한솔이도 애완동물로 강아지를 갖고 싶어하는 초등학교생이다. 한솔이의 마음도 몰라주고 엄마는 생일날 강아지 로봇을 사준다. 그런 어느 날, 마음이 잔뜩 상한 한솔이 앞에 나타난 건 늠름하기 그지없는 시베리안 허스키! 과일 가게 아저씨가 산 시베리안 허스키에게 마음을 훌쩍 빼앗긴 한솔이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지막까지 화두가 되는 시베리안 허스키의 이름 짓기 경쟁에서 ‘블루보리 왕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과정도 눈여겨 봄직하다.

초등학교생에게 ‘정’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저자는 ‘오메 할머니’와 ‘나의, 블루보리 왕자’를 통해 일편단심으로 그런 ‘정’을 이야기하려 애쓴다. 기회가 되어 두 편을 모두 읽고 한솔이처럼 ‘기슴 한구석이 찌릿한 느낌’을 받았다면 성공이라고 할만하겠다.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 정을 주고 나면 뜻하지 않게도 소유욕이 생겨서 당황할 때가 있다. 선물

로 받는 화분이 걱정되어 출타도 어렵다던 법정 스님은 오죽했으면 ‘무소유’를 말씀하셨을까. 친구 사이에도 소유욕은 여전하니, 내 절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와 친하게 굴면 어찌나 질투가 나던지. 소유욕을 뺀 ‘정’이라는 게 어른이 되어서도 쉽지 않다.

첫 정, 처음으로 사랑을 쏟는 것이라는 구절을 본 순간 잠시 멍칫하며 연거푸 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읽었다. “처음으로 사랑을 너무 많이 쏟았다.” 그 뒤에 오는 상실감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준다. 그러나 고통은 그저 고통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고통 뒤에 오는 것은 아픈만큼 성장한 마음 크기일 것이다. 다른 새로운 것에 정을 쏟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음 크기.

다시 처음 생각으로 돌아가서 『나의, 블루보리 왕자』 서명과 쉽표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쉽표는 ‘나의’와 ‘블루보리 왕자’의 사이는 소유의 의미를 배제한 진정한 정을 나누는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나의, 블루보리 왕자』, 오채 지음 · 오승민 그림, 문학과 지성사, 2010

소년 개에 미치다, 알고 보니 그것은 사랑이었네

김덕겸(파주 중앙도서관)



사람 빼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개를 소재로 한 주인공의 동물사랑 이야기다. 요즘이야 장수풍뎅이, 집계벌레(사슴벌레), 도마뱀, 토끼, 고양이 등 여러 가지 함께 친구할 수 있는 동물이 많다지만 그래도 돌보는 이의 감정을 교환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강아지나 개일 것이다.

허스키는 시베리아가 고향으로 민첩하고 힘도 세며 사냥에 능하며 주인의 눈치를 꽤 알아채는 똑똑한 놈으로 나에게도 기억된다.

푸른 눈 혹은 갈색 눈에 흰색과 회색 털이 균형 있게 덮여 있는 단정한 모습은 한술이에게도 반해버릴 외양을 갖추고 있다. 과일가게 아저씨네 '블루보리'는 한술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한술은 개에게 정을 주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친구를 사귀거나 하는 과정은 노력과 정성 그리고 사랑을 주고 있다는 노력이 필요했다.

한술이는 블루보리에게 맞는 소시지를 과감하게 투자하고 개주인인 과일가게 아저씨에게도 블루보리를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흡사 우리네 첫사랑을 고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술은 쌍둥이 남매 친구인 민규와 민지의 우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엿보인다. 한술은 동물 블루보리를 사랑하면서도 까탈스럽고 사사건건 자기일에 참견하고 탄지거는 여자 친구 민지를 은연중에 좋아한다. 블루보리의 사랑을 차지하려는 경쟁과 과시를 통해 한술은 민지의 마음을 움직여보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블루보리가 민지에게 다가갈 때에는 씹이든 감자를 먹여 복수와 질투를 나타내고, 개장수에게 팔릴 것이 두렵고 안타까워 목줄을 풀어버리는 과감함도 서

숨지 않는다. 이쯤되면 사랑에 빠진 청춘남녀의 그것과도 다르지 않다.

작가는 간접적인 행동을 통한 감정의 고백을, 이즈음 또래 아이들의 공통된 심리를 잘 그리고 있다.

작가의 2007년 제4회 마해송문학상수상작인 『날나다 뽀꼬땡스』에 대해 한 심사위원은 “작품의 가장 큰 장점은 읽는 사람의 감정을 쥐락펴락하는 이야기의 힘에 있다”며 “한 편의 동화를 읽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하는 건 요즘 어린이 문학계에서는 흔히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오채는 안마도의 어릴적 추억이 큰 자산인 것 같다. 그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할머니’ (『나의, 블루보리 왕자』)와 ‘개’ (오메할머니, 『나의, 블루보리 왕자』)는 그의 작품세계에서 어린이와 어른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적합한 심리적 매개체로 보인다.

같은 인터뷰에서 오채 작가는 “언젠가 소설가 김원일 씨가 한 강의에서 모든 글의 소재는 작가의 스무 살 이전 기억에서 찾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며 “이 작품에도 어릴 때 제가 바라본 어른들의 세상이 녹아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의 작품은 아이들의 세상만이 아닌 어른들의 세상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나의, 블루보리 왕자』, 오채 지음 · 오승민 그림, 문학과 지성사, 2010

할머니와 오랫동안 뽀꼬땡스를 ...

김영희(성남 중원도서관)



오채 작가는 작가 자신의 이름만큼이나 책 제목도, 이야기 속의 주인공 이름도 특이하게 부른다. 처음, 책 제목을 보고 뽀꼬땡스가 무슨 말일까. 첫 페이지 보니 주인공 민들레의 이야기다. 들레가 누구지?

뽀꼬땡스(포크댄스)가 들레할머니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슬픈 현실에서 희망을 갖고자 다짐하듯이 할머니는 뽀꼬땡스를 매일 추고 싶어 한다. 넉넉하지 않은 밤섬마을을 배경으로 할머니와 민들레가 살아가는 일상이 묘사되고 있다.

섬마을로 지원해온 서울까투리 선생님과 또래까투리 보라가 섬마을로 오면서 들레와 진우의 5학년 생활이 시작된다. 보라와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지만 진우와 선생님의 도움으로 보라와 들레는 쪽밤 친구까지 되며 지내게 된다.

아빠의 죽음과 엄마의 재혼으로 더욱 힘들든 들레는 서울까투리 보라와 지내며 차츰 어른들의 세계도 이해하게 된다. 중학생이 되면 할머니와 함께 물으로 갈 날을 꿈꾸며.....

이 작품에 등장한 인물들은 개성이 있어 책읽기가 빨라진다. 들레의 감정 또한 너무도 잘 표현되어 독자로 하여금 읽기에 몰입시킨다.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사투리와 순우리말의 어우러짐도 생생한 느낌으로 더해진다. 순우리말을 따로 메모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날마다 뽀꼬땡스』는 4회 마해송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날마다 뽀꼬땡스』, 오채 지음·오승민 그림, 문학과지성사, 2010

유년의 추억, 그리고 할머니가 생각한다

김덕겸(파주 중앙도서관)



누구나 비슷하게 체험했겠지만 어릴 적 할머니의 추억은 무언가 먹을 것이 있으면 모아 두었다 주셨고, 부지런이 몸에 밴 할머니는 늘 소일거리를 찾으셨고 허리가 굽어서 업어주시지는 못했지만 할머니는 이런 저런 얘기를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참 좋아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할머니는 40대에 홀로 되시어 서른도 안 된 장남마저 동란중에 염병으로 보내시고, 어린 손자 3남매와 자식 3남매를 위해 열심히 사셨으며, 증손자의 재롱도 보고 행복하게 가셨다.

경험의 한계가 있지만 우리에게 할머니의 사랑과 즐거운 추억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인 7세 전후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고 무엇보다 엄마와 아버지의 혈육의 보살핌에는 어떤 것보다 앞설 수 없다. 할머니에게는 예쁜 손자이지만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릴 적 일생의 가장 친하고 행복했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추억으로 남는다는 것은 부모의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소중한 감성과 장차 사랑하게 될 모든 것의 자산이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추억은 무엇보다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오메할머니 또한 우리네 할머니와 다르지 않은 과정을 거쳐 왔다. 어려운 처지에서 바둥거리는 아들내외가 안타깝고 손녀 은지의 재롱이 보고 싶어서 며느리의 눈치를 애써 모르는 척 하고 방문한 오메할머니는 자식을 위해 늘 걱정하

고 주고 싶어 하고, 한편으론 이웃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하고 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옛 사람’이다.

반지택과 뽕스택도 오메할머니의 세대로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경제적 문제와 자식의 문제로 얽힌 우리들에게 흔히 갖고 있는 일상의 고민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옛 사람인 이들 세 할머니들에게 우리와 구별되는 확연한 점은 우리와 이웃을 생각하는 정이 있고 그것을 나누고 확인하려 한다는 것이다.

옛 사람과 구별되는 우리는 흔히 자기의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는 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들은 나와 가족의 관계는 물론 이웃의 관계에서 오가는 감정의 교류를 못지않게 중요시하고 있다.

어린손자를 데리고 어렵게 사는 뽕스택에게 기초생활자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동네 공원에서 할머니 서명을 받는 것이라든지, 손녀 은지를 위해 물결과마를 해주고 ‘땃짜꾸리’ 놀이를 가르쳐줘서 기를 살려주고 ‘달고나’를 만들어 은지의 기분을 풀어줄 줄 아는 지혜로운 노인이다.

“정 이란게 참말로 무섭제. 우리 아들네가 처음 봉지를 델꼬 왔을 때 요놈을 들어서 마당으로 던졌당께! 흐흐, 그때는 힘도 좋았제. 근디 내가 봉지랑 한방에서 자게 될 줄 누가 알았당가. 인자는 이놈 없으면 잠도 안 와”(오메할머니)

“내가 꽃님이를 델꼬 사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공계, 자식들 오는 거 멀뚱히 기다리느니 옆에 뭐라도 살아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당께요”(반지택)

우리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노후의 삶을 흔히 원한다. 하지만 정에 굶주리는 가족과 이웃의 소외에서 오는 건조한 삶의 결과가 주는 더 큰 어려움을

쉽게 지나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부모님을 한지붕 밑에서 매일 보고 있는 나는 엄마와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것이 나이가 들어 갈수록 더해 간다.

부모님 또한 매일 아들과 손주의 얼굴만이라도 보여드리는 재미 또한 있으리라 하는 소박한 기대를 한다.

정겨움이 물씬한 남도 사투리가 오메할머니의 개성을 더욱 살리고 주워온 늙은 개 봉지의 독백이 글을 재미있게 했다.

『오메 할머니』, 오채 글 · 김유대 그림, 주니어랜덤, 2010

아~~ 우리 할매

김동관(남양주 별내도서관)



환한 표정을 지으시는 세분의 할머니와 한 마리 개가 그려진 책 『오메 할머니』.

이 동화를 읽는 내내 예전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다.

4남매중 막내였던 철없던 손자가 할머니께 잘해 드린 것도 없이 받은 것만 너무 많아서 늘 고맙고 그리운 할머니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 닿고 가슴 찡한 감동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말끝에 자주 “오~메”를 사용하시는 ‘오메 할머니’와 손에 반지가 많은 ‘반지댁’, 박스를 모으시는 일을 하시는 ‘박스댁’ 그리고 오메할머니 아들집 개 ‘봉지’ 이들의 삶을 봉지의 시각에서, 오메 할머니의 시각에서 바라본 이야기여서 더 순수하고 꾸밈없이 다가왔던 것 같다. 책을 읽는 내내 어릴적 할머니 모습이 떠올라 마음 따뜻하였지만 무엇보다 봉지의 시각으로 그려진 점에서 ‘과연 말 못하는 짐승이 이럴까? 정말 이런 생각을 할까?’ 하는 점이 더욱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었다.

아들네 집으로 올라 온 오메 할머니의 활약은 대단하시다.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께 못된 행동을 하는 반지댁 자식을 혼내시는 강인함과 어린손녀를 위해 생일선물로 물결파마를 해주시는 자상함, 그리고 사정이 딱한 박스댁 할머니를 위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서명운동을 하시는 모습에선 우리 내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었다.

히나 정작 이러한 것들이 가족들과 불화의 원인이 되어 점점 힘들어하시는 모습에선 우리 시대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겪는 어려움과 설움 또한 엿볼 수

있었다.

같은 공간에서 차츰 멀어져가는 가족들과는 반대로 처음엔 같은 공간에 함께 할 수도 없었던 봉지와 할머니는 산책도 함께 하고 잠도 함께 자는 사이 서로의 늙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둘의 신세가 비슷함을 느끼고 안쓰러운 생각에 어느 순간 진정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의지하며 발 부칠 때 없는 낯선 서울생활을 잘 이겨내시는 오메할머니를 보니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오고 부모님 생각이 절로난다.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떨어져 있어 바쁘다는 변명으로 해결하려 하는 자식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가족의 소중함을 그저 당연한 길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금의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

언제나 떠난 후에 후회하는 우리네 모습처럼 아들네 부부에게 늙은 부모에겐 맛난 음식, 좋은 옷이 아닌 가족의 따뜻한 정이 필요한 걸 왜 몰랐냐고, 왜 계절 때 함께해주지 못했냐는 질책을 하여본다. 먼 훗날 나에게 되돌아올 질책인 걸 알면서도 말이다.

단 한 권의 동화책이 현재의 나를 되돌아보게 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더욱 부끄럽다. 이 책엔 유쾌하고 즐거운 삶의 이야기가 있고, 삶의 애환 있고, 가족의 사랑과 이웃 간의 정이 있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그게 바로 동화 『오메 할머니』이다

『오메 할머니』, 오채 글 · 김유대 그림, 주니어랜덤, 2010

까칠한 시골 할머니와 천덕꾸러기 강아지의 도시 생활

박정서(성남 중원도서관)



얼마 전 경기도 사서서평교육에서 작가와와의 만남 시간에 신인 작가 오채를 만났다. 노란색 표지가 정감 있게 눈에 띄는 동화책 『오메 할머니』와 함께. 작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예뻐 보였다. 게다가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쏟아내는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작품 속 오메 할머니를 닮았다 여겨질 정도로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느껴졌다.

『오메 할머니』는 전라도 화순에서 살다가 서울 아들네 집으로 오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할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아들의 경제적 어려움, 며느리와 대립과 갈등 등으로 인해 할머니의 서울 생활은 녹녹치 않다. 어느 날 할머니는 입에 봉지를 물고 다니는 강아지를 만나고 봉지란 이름을 붙여 준다. 봉지는 할머니와 같은 처지에 놓인 강아지다. 때로는 귀엽고 예쁘지만, 때로는 천덕꾸러기 신세다. 그래서 둘은 미운 정 고운 정 쌓으며 우정을 나눈다.

할머니는 말할 때마다 “오메~” 하며 사투리로 말을 시작한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마냥 할머니의 서울 생활은 인정 있고 현실적이다. 그렇지만 무작정 헌신만 하는 시골 무지렁이 할머니는 아니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멋진 세상을 꿈꾸며,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둘 해나간다. 때로는 친구와의 의리도 지키고 우정도 쌓으면서, 때로는 불쌍한 이웃사람들을 돕고 지킨다. 할머니는 이웃사람들에게 무관심한 현실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면서 남을 돕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게다가 나름 멋도 부리면서.

어느 날 할머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할머니 곁을 지켜주던 강아지 봉지는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서러운 울음을 터뜨린다. 코끝이 찡 하는 결말이다. 차라리 할머니와 봉지가 영원히 우정을 이어가는 것으로 결말이 났더라면 하는 작은 아쉬움이 남는다.

『오메 할머니』, 오채 글 · 김유대 그림, 주니어랜덤, 2010

‘토종 할머니’의 위력을 떨치는 매력만점, 오메 할머니

양지영(평택 지산초록도서관)



1년에 몇 번, 명절쯤에나 겨우 만나는 할머니. 만나는 횟수는 열 손가락을 넘기기 힘들지만, 할머니가 주셨던 용돈, 음식, ‘우리 강아지~’ 하며 쓰다듬어 주시던 손길처럼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넉넉하고 따스하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생활에 바빠질수록 몇 번 안 되는 만남조차도 어려워지고 점차 할머니의 존재와 기억이 희미해져 간다. 이러한 메마른 감정에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련한 추억을 웃음과 감동으로 더욱 풍부하게 되살려줄 책이 있다. 혹시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이 없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책의 주인공 ‘오메 할머니’는 2% 부족한 우리 마음에 만인의 할머니로 다가와 그 부재와 상실의 공간을 넉넉하게 채워줄 테니.

‘오메 할머니’는 시종일관 ‘오메~’를 외치며 구수한 사투리로 이곳저곳에서 ‘토종할머니’의 위력을 떨치는 매력 만점 할머니이다.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하고!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며! 도와야 할 사람은 망설임 없이 돕고! 버럭 해야 할 때는 가차 없이 나무라며! 사랑해야 할 사람은 아낌없이 사랑해주며! 보살펴야 할 봉지는 마음으로 보살핀다.

봉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책의 ‘화자’ 입과 동시에 오메 할머니 아들의 애완견이다. 오메할머니와의 만남에 편안한 잠자리를 잃고 문전박대를 당하는 굴욕을 당하지만 서서히 할머니와 정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어찌보면 ‘사람보다’ ‘자식보다’ 더 나은 ‘할머니와 같이 늙어가는’ 대견한 개이다.

할머니의 일상에서 헛된 것은 없다. 모든 일에 정성들여 ‘오메 할머니’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시원+유쾌+통쾌’ 하게 살아간다. 서툰 한글실력 따위 창피해 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 할머니를 돕기 위해 서명운동도 마다하지 않으며, 자신의 하루를 손녀가 선물로 준 공책에 정성들여 ‘오메할머니 시타일’로 기재한다. 가끔 자식과 며느리에게 섭섭함을 느끼고 철없는 손녀의 눈치를 보는 일도 생기지만 ‘오메 할머니 시타일’의 마음과 정성가득 사랑의 해결책은 서로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해준다.

할머니의 사투리가 구수하고 정겹게 느껴진다면 오메 할머니가 만인의 할머니 입에 부족함이 없다는 증거! 어느새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쉽고 할머니의 마지막에 코끝이 찡해졌다면 여러분은 이미 할머니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증거이다.

우연히 손에 넣은 책에서 뜻밖의 웃음과 감동을 만난다면 그야말로 ‘책 읽은 맛’ 누리는 행운이겠다. 오메 할머니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오메 거시기 하게 재미있구마잉~’ 정도가 될까? 쉽게 읽히는 재미 속에 눈시울 찡해지는 감동을 만나게 되는 책 읽는 맛! 함께 누리보자.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두의 할머니가 되기에 손색이 없는 매력만점 오메 할머니!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메 할머니』, 오채 글·김유대 그림, 주니어랜덤, 2010

813.8

3부 | 서평의 실제

동화 서평쓰기 _ 조윌레

서평 쓰는 법, 작품해석에 대하여 _ 윤한구

장르를 넘어서, 지식정보 서평 _ 이대진

여러 가지 서평 살피기

동화 서평쓰기

1. 어린이 책 비평인가

서평은 책을 읽고 감상하고 각각의 작품에 대해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 권의 책을 선택하는 행위, 감상하는 행위, 칭찬하고 비판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비평활동은 작품이 지닌 미덕을 찾아내어 올바르게 칭찬하고, 올바르게 비판하여 좋은 책을 가려내어 어린이를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의 책문화가 바르게 자리잡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작품에 대한 옳고 그름 또는 좋고 나쁨에 대한 평가와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출판산업 전반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보통 독서감상문이 주로 개인적인 느낌이나 정서 위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서평은 철저히 비판적인 책임기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

즉 서평은 한 권의 책을 예술의 총체로 인식하며 어린이 책을 통한 사회적 발언이며 독자에게는 좋은 책을 소개하고, 작가에게는 격려와 비판 등을 하며, 출판사에게는 바람직한 출판의 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독자, 작가, 출판사, 서적상과 소통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2. 어린이 책 비평 정신

1) 비판과 감시기능

베스트셀러나 상업적 목적을 앞세운 출판사의 의도적 홍보에 맞서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지닌 작품을 찾아내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바람직한 책 문화를 선도해간다.

오늘날 상업주의와 물질주의 세력은 보잘것없는 작품에 부당한 권위와 명성을 주는 예가 왕왕 있다. 서평 쓰기는 이처럼 범람하는 출판물 속에서 의미있는 출판물을 찾아내어 소개하고 보잘것없는 출판물이 부당한 권위와 명성을 갖지 못하도록 비판하고 감시해야 한다.

어린이 책은 눈술시장, 대여시장, 독서 학습지 시장이 있고, 서점 영업을 주로 하는 시장이 있다. 유통경로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건강한 비판과 감시기능은 건강한 출판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된다.

2) 객관적 태도

작가가 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지식과 시간과 공력이 뒤따른다. 시간과 공력을 들인 정도에 따라,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아이들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책이 갖는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작가가 한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에 따라 작품의 질이 달라지고 그것이 어느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치열한 글쓰기와 세계관에 달려 있다. 독자로서 작가에게 이러한 치열한 글쓰기와 한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요구한다면 독자도, 비평가들도 마찬가지다.

진정성을 가지고 쓴 글을 찾아내는 눈, 그것을 공들여 읽고, 공들여 분석하고, 공들여 써서 독자들에게 그 책이 갖는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창출해야 한다.

대충 읽고, 대충 쓰고, 대충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은 작가에게도, 독자에게도, 무엇보다 서평자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작가로서 아이들과 세상을 가볍게 보고, 가볍게 쓰는 저자에 대해서는 냉정한, 그러나 애정어린 비판과 충고의 매를 들어야 할 것이다. 저자가 공감하고, 독자가 공감하고 책을 낸 출판사가 공감하게 하려면 서평 역시 치열한 글쓰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거리두기

한국의 출판동네, 특히 아동출판동네는 좁다. 한두 사람 거치면 작가와 출판사가 모두 연결될만큼 좁다, 서로 다 알만한 사이이고,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작가와 비평가는 얼마든지 많다.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출판사와 기자와 비평가도 얼마든지 많다.

서평이 자신의 판단에 근거한 객관적 글로서 생명력을 가지려면 이러한 고리로부터 완전 자유로워야 한다. 아무리 객관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만나서 밥먹고 술마시고 하는 관계에서 대 놓고 비판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풍도도 두텁게 조성되어 있다. 전문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주례사 비평’이라고 해서 작가와 출판사, 작가와 작가의 연결고리를 맺고 칭찬위주의 서평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출판문화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행태이기도 하고 비판과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다.

서평이 주로 인맥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서 생기는 병폐에서 자유로워져야 하고 비평가는 출판사와 작가 그리고 독자와의 관계에서 이성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책을 평가하는 잣대는 철저하게 책 자체만이 되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서평자의 객관성을 위하여 스스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한다.

4)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평인가

서평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서평쓰기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서점인은 책의 가치에 따라 배열방식을 고민할 것이다. 물론 대개의 서점인들은 잘 팔리는 책을 선호하겠지만 서점에 오는 독자를 위한 선정자로서의 큰 역할을 한다. 그것은 매출과 직결된다.

▶ 작가와 출판인을 위한 서평

작가는 자기 작품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다. 때문 그것이 긍정적 자극이 되어 작가로 하여금 작가와 출판인들에게 작품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사서를 위한 서평

사서는 어떤 책을 어떻게 수서할 것인가를 가장 고민할 것이다. 서평은 ‘어떤 책’이라는 사서가 책을 선정하는 첫 번째 잣대가 될 것이다.

▶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서평

가장 최일선에서 책을 선정하는 이들에게 서평은 가장 1차적 정보가 될 것이다.

5) 서평쓰기 단계

리뷰가 감상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면 비평은 분석과 토론을 이끌어내는 글이다. 비평은 작품에 대해 알고 있거나 감상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일반 독자를 포함하여 어린이 책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과 관심을 가진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청소년 서평은 책이 갖는 질적 가치를 따져서 아동 출판산업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서평쓰기 단계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본다.

① 선택하기

대부분의 독자는 비평하기 위해 읽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하는 행위, 읽는 행위에는 이미 비평이 전제되어 있다. 서평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온전하게 읽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삶과 사회와 관련지어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작가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와 사회를 보는 건강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책을 읽다보면 다양한 마음의 움직임을 경험하게 되고, 이견이 생기기도 한다. 읽는다는 것은 인간의 지적 욕구의 한 부분이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 것처럼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각자의 지적 안테나를 동원하고 읽고 싶어진다. 지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읽었을 때 그것을 또 어떻게든 소화하고 싶다. 알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고, 확인받고 싶고, 동의를 얻고 싶다. 그래서 말하고 싶다. 말하고 싶은 내용을 글로 쓰면 서평이 된다.

말을 하고 글을 쓰는 데도 공식이 있다. 기술이 필요하고, 논리가 필요하다.

* 책 선정 - 구입이 가능하고, 독자의 흥미를 끌만한 책을 선정하여 객관적 평가를 한다.

* 장르별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문학(동화, 시, 옛 이야기) 비문학, 그림책.

② 읽기

- 비평가는 그 책에 흥미를 가진 특정한 독자층한테 그 책을 소개하는 데 주력한다.

- 도서관 사서는 그 책을 장서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고민한다.

- 학부모는 내 아이에게 적합한 책인가를 생각한다.
- 교사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소개해도 좋은지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나 고민은 다르지만 도달해야 할 고지는 모두 같은 곳이다. 따라서 마지막 판단의 기초는 같은 원칙이어야 한다. 그 원칙이란 문학의 가치판단이다. 바꾸어 말하면 작가정신이다. 즉 비평가는 어떤 책이든 훌륭한 작품에 꼭 품어져 있는 특질을 읽어내야 한다.

어린이 책을 읽다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사회문제와 문화가 반영된다. 경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온갖 잡다한 경제 책이 봇물을 이룬다거나 성공한 텔레비전 드라마가 어린이용 만화로 둔갑해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현상이다. 논술서나 경제서는 어른들에게 갈채를 받고 싸구려 만화책이 갈채를 받는다. 이혼가정의 문제나, 치매노인의 문제, 가출 청소년의 문제가 현상이 트렌드를 형성한다.

이처럼 일시적 유행을 따르는 테마는 본래 어린이의 흥미를 자극해서라기보다는 어른들의한 사회적 관심이 반영된 경우가 많다. 이들 책은 작가의 치열한 글쓰기나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으로 출판된 경우가 많다. 오늘날의 시대가 경제적 지위 획득이 사회적 성공으로 인식된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아이들에게 삶의 최고의 가치나 덕목으로 인식되고 문학의 주제가 되어도 좋을까? 오늘날 상업주의와 물질주의 세력은 보잘것없는 작품에 부당한 권위와 명성을 주고 있다.

비평가는 범람하는 출판물 속에서 훌륭한 작품에는 꼭 갖추어져 있는 특질을 가려내는 안목을 요구한다. 그것은 훌륭한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근본 원칙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책에는 이런 가치, 저런 종류의 책

에는 저런 가치가 있을 수는 없다.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그것은 모든 책에 적용되는 것이다. 즉 '작가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는가', '어떤 방법을 썼는가' '성공했는가', '만약 성공이 부분적인 것이라면 어디서 실패했는가'와 같은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좋은 책과 쓸모없는 책과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다. 성실한 비평가는 자기의 문학적 판단을 개인적인 정에서 꼭 떼어버리고 자기가 지니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를 가지려고 한다. 어떤 책에 대해서 가지는 비평의 시금석은 '왜 우리들은 그 책을 좋아하며 또는 좋아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비평이 '왜'이다. 이 '왜'를 분명히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책의 표면에 그치지 않고 그 속 깊이까지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바르게 좋아하고 바르게 싫어하는 것 이것이 그 이름 그대로의 모든 문화의 도당점이다. 좋은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을 가려보고 문학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자면 독자가 그것을 읽었을 '이것은 옳다', '이것은 진짜' 혹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민감한 감수성과 판단력이 요구된다.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도록 정확하게 가르쳐 줄 방식이란 따로 없다. 가치가 있는, 정평있는 책을 자주 읽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고전은 그것이 씌여진 시대가 지나버렸더라도 여전히 의의를 보존하고 새로운 의의를 획득한다.¹⁾

* 서평을 하는 사람은 서평을 쓰기 위해 적어도 두세 번은 읽는다.

*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책의 구성, 전반적 형태 등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하면서 읽는다.

③ 분석하기

작품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가치 있는가를 증명해 내는 과정이

1) 아동문학론/ 릴리언 H 스미스 저. 김요섭 옮김. 1989. 교학연구사

다. 이러한 과정은 비평가의 관심과 아이들에 대한 인식, 아이들을 둘러싼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역사 정치적 상황과 연관지어 파악하기도 한다.

일반적 비평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식이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권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아니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와 같은 치열한 정신으로 자신만의 느낌이나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좋은 글은 주제가 선명하고 구체적이다. 그런 글은 읽고 나면 가슴에 남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은 감동일 수도 있고 정보일 수도 있다. 관념적인 글보다는 사례와 사실이 많은 구체적인 글이 좋은 글이다.

내용은 아이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가, 작가의 세계관은 의미 있는가, 책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는 대상 독자와 호응할 수 있는가, 표지와 장정은 책 내용을 반영하면서 그 자체가 예술적 가치가 있는가, 글은 자연스럽게 읽히는가 등 우리가 세운 잣대를 참고하면서 분석해 나간다. 따로 분석표를 만들어서 점수를 주어가며 할 수도 있겠다.

비평가마다 읽는 방법과 관심과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책에 대해서도 견해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러므로 서평자는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야 한다. 서평자는 작품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사회적 발언을 하는 것이다. 어떤 텍스트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자신이 선택한 텍스트에서 발언의 요지를 찾아내는 것이 분석의 핵심이다.

* 스스로 분석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료, 어린이 등과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면 좋아.

④ 글쓰기

모든 글은 구성 방식에 따라 글의 질이 달라진다. 서평의 일반적 구성으로 ‘처음 - 중간 - 끝’ 3단계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 삶과 당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책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한다.

i. 제목정하기

서지정보 외에 책 전체를 아우르는 부제를 뽑아 제목을 정한다. 제목을 정하면 절반은 쓴거나 마찬가지다. 서평자가 본 책에 대한 느낌, 생각을 비교적 분명하게 표현하는 문구, 일종의 헤드라인에 해당하는 문구를 부제목으로 뽑아 책 제목 상단에 적는다. 예를 들어 서평 첫머리에서 ‘무척이나 시시콜콜하고 논쟁적이며, 그러나 감동적인 책’이라는 식이다. 그 책이 갖는 전체적인 핵심을 찌르는 내용이 된다. 이 문구를 통해 그 책의 주제 및 세부적인 측면까지 다루며,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답을 수 있고, 감동을 느낄 수도 있게 한다.

200~500자 서평은 글쓴이 목소리로 책을 소개하는 데 주력한다.

1,000자 이상은 근거를 대며 서평자의 잣대로 책을 소개하되 비평적 시각이 들어간다.

ii. 시작

서평 대상이 되는 책 내용에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나 예화로부터 시작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자면 쓸모 있는 존재와 쓸모없는 존재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이야말로 크나큰 편견임을 깨닫게 하는 책이 있다. 『강아지 똥』이다.

저자가 다루는 중요한 이슈나, 저자가 제기하는 핵심 주장 등을 언급한 후, 사회적 맥락과 결부시켜 시작한다.

요즘 ‘물고기처럼 자유롭고 싶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한 여중생의 이야기’로 시끄럽다.

학급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던 아이는 혼자서 괴로움을 감당하다가 홀로 세상을 버린 것이다. 이렇듯 최근 왕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동출판계에서도 ‘왕따’를 주제로 다룬 책들이 심심찮게 출간되고 있는데 그 중 ○○○○○는 왕따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수작으로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가 한번쯤은 보아야 할 책이다.

저자의 동향을 언급하면서 당시의 출판동향을 짚어가며 시작할 수 있다.

권정생 선생이 세상을 떠난지 수년이 지났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랑랑별 때때롱』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지구 환경의 문제를 권정생 문법으로 다룬다.

iii 중간

책에서 다루는 것, 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것을 짚어준다. 책이 갖는 아쉬운 점을 간략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지적하고, ‘이 책은 모든 공공 및 학교 도서관이 갖출 필요가 있다’ 든가, ‘학교 도서관이라면 가능한 한 갖출 필요가 있다’ 든가 하는 일종의 추천의 말을 넣는다. 학교 및 공공 도서관, 작은도서관 관련인들, 학부모들이, 그리고 관련독자들이 책을 선정하는 데 참고가 되며 출판계, 작가에게도 구매를 촉구하고 작품에 대한 질적 변화를 추구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한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해 중심내용(뼈대)를 세운다. 즉 작가가 작품을 통해 발언하였듯이 서평자는 작품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체계화시키는 것이다.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추려서 중간 제목들을 뽑는다. 책 내용을 요약하기만 하거나 일부만 다루는 경우 책 내용을 빌미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 객관성이 결여되어 글의 질을 떨어트리게 된다. 책에 대해 독자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넣는다.

책의 주요 독자층이 원하는 정보와 책의 가치를 언급하여 예상 독자층에게 필요한 정보를 언급하도록 한다. 즉 가능한 한 짧은 분량의 글로, 책의 전체적인 특성, 책 내용, 책 내용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도록 한다.

책에서 다루는 것, 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짚어준다. 책이 갖는 아쉬운 점을 간략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지적하고, ‘이 책은 모든 공공 및 학교 도서관이 갖출 필요가 있다’든가, ‘학교 도서관이라면 가능한 한 갖출 필요가 있다’든가 하는 일종의 추천의 말을 넣는다. 학교 및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관련인들, 학부모들이, 그리고 관련독자들이 책을 선정하는 데 참고가 되며 출판계, 작가에게도 구매를 촉구하고 작품에 대한 질적 변화를 추구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한다.

서평자들이 책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은 독자들과 출판계, 도서관계의 신뢰성과 권위를 획득하는 첫 번째 조건임을 잊지 않는다.

책을 쓴 저자에 대한 소개를 다룬다. 또 관련도서나 그 저자가 쓴 다른 책을 소개함으로써 저자 및 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쉬운말을 사용한다. 영어식문장,

일본식 문장, 한문투 문장이 되지 않도록 한다.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외국어, 외래어는 자제한다.

큰 출판사, 이름 있는 작가 외에 작은 출판사에서 나오는 좋은 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

iv. 끝

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시한번 정리하여 칭찬, 격려, 아쉬움, 비판, 제언 등을 밝힌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지 않도록 객관성을 유지하여 글을 읽는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은 독자는 작품을 선택하는데, 저자는 작품을 창작하는데, 출판사는 출판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형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읽어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쉬운말로 쓰는 것이다. 우리말을 살려 쓰고 영어식, 일본식 문장은 없는지 살핀다. 이와 더불어 맞춤법 및 띄어쓰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불필요한 수식, 뜻이 모호한 문장, 난해한 표현 억지스러운 주장, 주제의 일관성, 상투적 표현은 글의 질을 떨어트린다.

v. 글 고치기

글을 쓰고 나면 반드시 스스로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친다. 글의 구성, 하고자 하는 말을 순서에 따라 하고 있는지, 알맞은 어휘를 골랐는지, 자연스럽게 읽히는지, 군더더기가 없는지, 분량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지는 않은지 등을 살피며 고쳐나간다. ‘또, 그러나, 반면, 그런데’ 같은 접속사나 말들이 문장 앞에 붙으면 글의 흐름이 끊어진다. 글을 써 놓고 소리 내어 읽어 가면서 고친다.

⑤ 서평작성에 필요한 서지정보

* 저자(지은이, 그린이, 옮긴이)

* 서명

* 출판사

* 출판일

* 페이지

* ISBN

* 독자대상 -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으나 대체로 낮은학년, 중간학년, 높은학년 정도로 제시하는 것은 어떨까, 그림책도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이 있으니까.

⑥ 서평 어떻게 활용할까

* 도서관, 학교, 가정에서 책을 선정할 때

* 작가와 출판사의 소통

* 일반 독자들의 책 선택

* 작가, 독자, 출판사 간의 원활한 소통

〈참고자료 1〉

서평쓰기 매뉴얼

서명				지은이		그린이	
옮긴이				출판사		출판사	
가격		페이지		분야		ISBN	
대상	유아() 초등낮은학년() 초등중간학년() 초등높은학년() 전학년() 청소년()						
평가	★() ★★() ★★★() ★★★★() ★★★★★()						

책 선정 잣대

구 분		세 부 내 용	평 가				
			①	②	③	④	⑤
공 통 사 항	시각적 요소	제목은 창의적이고 매력적인가.					
		글자자체가 갖는 디자인적 요소가 매력적인가.					
		표지 색과 글자 배열은 디자인적으로 조화를 이루나.					
		표지와 면지는 내용과 연계성을 갖는가.					
		삽화는 내용과 연계성을 가지면서도 독자성을 갖는가.					
		색깔은 사물의 본질에 가깝게 사용하는가.					
		이 모든 것이 제 역할 할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어우러지는가.					
	사회적 요소	전문가의 잣대는 참고사항.					
		추천도서나 권장도서 목록에 의존하지 않는다.					
		편견에 간하지 않는다.					
		재미와 흥미를 고려한다.					
		보편성에 의거한다.					
	객관적인가.						
	형식적 요소	종이는 읽기에 불편하지 않다.					
		글자 크기는 적당한가.					
		오자나 탈자.					
		튼튼한 제본.					
	언 어	우리 말법을 사용한다.					
		사실에 맞는 표현인가.					
		쉽고 명쾌하게 읽히는가.					
		상투적 표현은 없나.					
의성어와 의태어 등 다양한 우리말을 사용하여 언어적 감수성을 자극한다.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저속한 언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하지는 않나.							
사물의 특성을 왜곡하는 언어는 아닌가.							
문 학	동 시	제목과 시 내용이 조화를 이룬다.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뚜렷하게 있다.					

구 분		세 부 내 용	평 가					
			①	②	③	④	⑤	
문 학	동 시	불필요한 말이 없다.						
		연 나누기가 적절하게 되어 있다.						
		리듬감이 살아있다.						
		시의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						
		공감을 일으킨다.						
		압축된 언어로 표현하며 감성을 자극한다						
		전체 내용에 통일성이 있다.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오른다.						
		독특하고 개성적인 언어로 표현한다.						
		상투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글감이 구체적이다.						
	아이들 삶이 반영되어 있다.							
	국 내 문 학	내 용	우리 정서와 문화를 고려한다.					
			우리 아이들이 호응할만한 캐릭터가 있다.					
			리얼리티가 살아 있다.					
			특정종교, 지역, 빈부, 이혼, 다문화 등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 대해 차별이나 편견을 갖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적합한 테마인가.					
			유머러스하다.					
			주제 소재, 배경이 아이들 삶에 기반을 둔다.					
			부당한 힘의 논리를 거부하는 마음의 눈을 갖고 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갖게 한다.					
			시류에 편승하는 내용은 아님.					
			건강한 가치관을 담고있나.					
			문화 예술의 총체로서 감수성을 자극하는가.					
			진실하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정신을 갖게 하나.					
			어린이에게 인과자 연,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한다.					
			건강한 정신이 살아있다.					
외 국 문 학	내 용	번역자가 있는가.						
		원작에 충실하게 번역했나.						
		문장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구분		세부내용	평가					
			①	②	③	④	⑤	
문학	외국문학	내용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말의 어법과 어순, 조사에 맞게 번역했는가.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깊은 번역자인가.					
			그 나라 문화나 언어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이해가 있다.					
			보편적 이야기인가.					
			약자에 대한 편견이 없다.					
			평화, 이해, 정의, 자유, 문화에 대한 이해가 담겨있다.					
			진실한가.					
			주인공들의 말과 행동은 합리적인가.					
	줄이거나 늘리지 않았다.							
	옛이야기		이야기에 담긴 가치관이 현대가치관과도 맞는가.					
			유머와 재치 해학이 살아있다.					
			조상들의 문화와 생활풍속과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민중들의 이야기인가.					
			흥미성과 교훈성이 살아있는가.					
			단순하여 쉽게 읽히는가.					
			우리나라 전래 풍속을 흥미롭게 표현했다.					
	만화		내용과 그림이 아이들 정서를 풍부하게 하나.					
			그림과 내용이 자극적, 폭력적, 음란하지 않다.					
			주제가 아이들에게 적합하다.					
			단어나 문장이 만화 예술의 가치를 살리고 있다.					
			종이,표지, 글자,디자인에서 아이들의 감수성을 자극한다.					
	그림책	국내	그림만으로도 이야기흐름을 알 수 있다.					
			장면의 이어짐에서 내용과 등장인물이 일관성이 있다.					
			크기, 표지, 내지, 글자 등 모든 요소는 그림책을 이루는 요소로서 통일성을 이룬다.					
			단순 명쾌하며 리드미컬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의성어 의태어 등을 활용하여 아이들 흥미를 끌 수 있다.					
색은 사물의 본질에 가깝게 사용했다.								
의인화의 경우도 동물이나 식물의 성격에 맞게 표현했다.								
편견이 없다.								

구 분		세 부 내 용		평 가					
				①	②	③	④	⑤	
문 학	그 림 책	국내	독창적이다. 미적 가치가 살아 있다.						
		해 회	옮긴이가 정확하다.						
			보편적이다.						
			편견이나 이데올로기가 배제되어 있다.						
			그림과 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아이들 연령에 맞는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이해가 쉽다.						
			여러 나라 문화와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적 가치가 살아있다.						
사물의 본질에 가까운 색을 쓴다.									
비 문 학	역 사	한 국 사	한국인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는가.						
			역사의 주체가 일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나.						
			역사적 사실에서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는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썼는가.						
		세 계 사	사진이나 도표 등 자료가 정확한가.						
			침략이 미화되지는 않았나.						
			특정한 종교나 집단에 대한 편견이 없다.						
			이해하기 쉬운 말을 사용했나.						
	인 물	국 내 인 물	힘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서술되지 않았나.						
			국 내 인 물	오늘날 어린이들이 공감할만한 인물인가.					
				태어나는 인물이 아닌 생성되는 인물인가.					
				쉽게 읽히는가.					
객관적인가.									
정확한 자료에 의거하는가.									
삼화나 사진등이 사실적이고 내용과 일치하는가.									
해 외 인 물		우리나라 아이들 정서에 맞는가.							
	보편성을 띄는가.								
	삼화나 사진등이 글의 흐름과 일치하는가.								
	한 사람의 영웅 때문에 주변 인물이 가려지지 않는가.								
과 학	국내 과학	쉽고 흥미롭게 읽히나.							
		최신 과학정보와 현재 신뢰할만한 과학적 동향을 다룬다.							
			내용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서술된다.						

구분		세부내용	평가					
			①	②	③	④	⑤	
비 문 학	과 학	국내 과학	이해하기 쉬운 어휘와 용어를 사용한다.					
			삽화나 일러스트가 내용 이해와 일치한다.					
	환경 생태	변화하는 환경생태 질서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전하나.						
		지구 환경과 인간삶의 조화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가.						
		생태계의 생명체와 인간 삶을 조화롭게 묘사하나.						
		인간이 환경을 지배한다는 관점은 아닌가.						
		그림과 글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통일성이 있다.						
	문화예술	민족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가치를 이해한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자극한다.						
		각 나라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바른 지식을 얻는다.						
		특정 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다.						
		예술가들 삶과 생애를 개성적, 객관적으로 표현했나.						
		삽화나 자료가 본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문장이 쉽고 명쾌하다.							
	잡지·신문	아이들이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갖는 문제를 다루나.						
		사회와 인간삶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흥미롭게 전달하나.						
		사회와 인간, 역사, 문화가 어린이 삶을 반영한다.						
한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한다.								
글과 그림, 디자인, 삽화 표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통일성을 갖고 있으며 어린이 삶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 어린이 책에서 국내외 도서비율은 1:1로 한다.

서평 쓰는 법, 작품 해석에 대하여

“왜 우리는 문학작품을 단순히 즐길 수만은 없는가? 왜 우리는 비평함으로써 문학작품의 재미를 망쳐야 하는가?”라는 말은 자칫 어설픈 작품 해석이나 비평이 문학예술을 빈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꼬집어 하는 말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문학작품을 아주 멋있게 즐기는 일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다.”라거나 “비평은 문학작품을 읽는데 호흡처럼 불가피한 일이며,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감정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T. S 엘리엇)는 말로 답한다면 우문현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끼리를 사냥하는 총으로 모기를 쏘는 것 같은 문학 분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작품 외적인 요소나 작품과 무관한 것들 또는 너무 실제적이어서 미학적 지각력을 떨어뜨리는 것들을 고찰하는 데에 몰두하는 문학 비평가들의 병폐를 경험하고 나면,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은 매우 고리타분한 일이 되고 만다. 그러나 균형 잡힌 그리고 지적인 문학 비평이 안내하는 풍요하고 즐거운 통찰과 그로 인해 점차 향상되는 독서 능력과 독서의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 문학 비평이 또 하나의 문학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위대한 문학 작품의 풍요성은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 즉 감성뿐만 아니라 이성에 의한 반응을 절로 불러일으키게 된다. 심지어 독자가 문학작품을 처음 접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개인의 심미적 경험도 이러한 반응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비평 이전의 반응’이라고 하는데, 문학작품을

아주 잘 감상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이는 비평 이전의 반응과 더불어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교를 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일반 독자가 문학 작품으로부터 보다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서평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1. 비평 이전의 반응에 근거한 분석

문학 작품의 면밀한 검토와 기법에 대한 지식이 문학작품의 분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배경, 플롯, 인물, 구조, 문체, 분위기, 주제와 같은 문학작품의 기본 요소들에 대한 첫인상만큼 작품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없다. 이러한 첫인상은 개인적이고 감상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평 이전의 반응 없이 책을 읽는 독자는 예술 작품 전체에서 또는 수많은 작품의 기본 요소들의 경이로운 결합(맥락)에서 발견하게 되는 재미와 즐거움을 결코 얻을 수 없다.

① 배경

- 문학작품에서 주제를 뒷받침하는 사회 및 시대의 환경
- 사건의 배후에서 그것과 연관을 맺고 있는 것
- 사건이나 환경, 인물 따위를 둘러싼 주위의 정경

② 플롯 _ 사건의 인과관계와 갈등 구조

- 플롯(Plot)은 문학작품(픽션)에서 일련의 사건을 연결하는 논리적인 패턴과 효과를 위한 배치를 일컫는 말로, 인물, 주제, 배경, 문체 등과 함께 픽션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다. 한편, 이 외래어를 순화시켜서 “이야기 구성”, “이야기 구조”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 픽션은 대략 다음과 같은 플롯의 4단계 구조를 지닌다.

- 1) 발단: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인물, 배경 등을 소개한다.
 - 2) 갈등: 사건이 전개되면서 인물 사이에 갈등이 고조된다.
 - 3) 절정: 이야기 내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이야기가 해결되는 전환점이 놓인다.
 - 4) 대단원: 이야기 내의 갈등이 해소되고 결말을 맞는다.
- 플롯은 픽션에서 작가가 의식적으로 골라 배열해 놓은 서로 연관된 사건들의 구조를 말한다. 플롯은 이야기나 우화에서 보통 볼 수 있는 서술구조보다 상당히 수준 높은 서술구조를 띠게 된다. E. M. 포스터가 그의 책 <소설의 양상 Aspects of the Novel>(1927)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줄거리(story)는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서 서술한 것인 반면, 플롯은 사건들을 인과관계의 의미에 따라 구성한다.
 - 문학적 구성 장치(Plot device) 또는 문학적 장치는 줄거리에 영향을 끼치거나 진행시키는 이야기에 소개되는 인물이나 사물이다. 재능 있는 작가는 독자나 관객이 그 장치가 작가에 의해 구성된 것임을 눈치 채지 못하게 설정한다. 이는 이야기의 설정이나 등장인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반면 숨씨 없는 작가가 설정한 플롯 장치는 독자가 이야기를 현실로 믿도록 하지 못하거나(리얼리티의 부족이나 '불신의 정치'), 어색하게 보이게 한다. 따라서 문학 작품이 어떠한 플롯 장치로 리얼리티와 서스펜스, 긴박감 등을 만들어 가는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③ 인물_인물의 성격, 인물의 대립 구도

인물의 성격과 인물 간의 대립 구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작품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그만큼 분석하기가 어렵다.

④ 구조

작품이 지닌 플롯의 주요 분기(分岐)와 발전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분석

⑤ 문체

- 문체(文體)는 문장의 형태로 작가가 개성적인 특색을 발휘하는 요소이다.
'쓰는 사람 또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본성이나 의도에 의해서 선택된 표현 수단에서 생기는 서술의 여러 가지의 모습' 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 문체가 작품 전체에 또는 일부에 어떤 인상을 만드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암시적 어휘, 극적 행동, 철학적 독백, 형식적 문체, 소박한 문체, 운율이 있는 문체, 비꼬는 문체 등이 주로 이런 이상을 만든다.

⑥ 분위기

- 인물의 내면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으로 작품에 스며 있는 느낌.
-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하여 분위기를 만든다. 긴박감, 목가적, 서정적, 인물의 무관심, 사건에 대한 인물의 태도, 화자가 구사하는 어휘와 어조, 관례, 의상, 제도, 관용과 수용 등
- 그림책의 경우 그림의 스타일이 주로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색조뿐만 아니라 선의 굵기 등 미술적 요소 전반이 수많은 수사법을 만들어 낸다.

⑦ 주제

- 줄거리의 기초가 되는 사상이 주제다. 주제는 문학의 복잡한 양상으로서 분별해 내는 데에 매우 의도적인 숙고를 요한다.
- 소재와 결부시켜 작가가 주제에 소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2. 독자 반응에 의한 분석

독자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반응한다. 독자들은 그들의 경험과 신념, 종교에 비추어 문학을 해석하고 그래서 그들의 다양한 해석이 정당하다고 견해이다. 그렇다고 하나의 문학작품에는 독자의 수만큼이나 많은

의미와 해석이 있다거나 그것이 어느 것이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문학 해석은 독자의 반응이 문학작품의 맥락 안에서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창조적이고 상상이 풍부한 독자 반응을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작품과 관련이 없는 의미를 문학 작품과 관련지어 해석해 넣는 것이 아니고 작품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익한 것들 모두를 발견해 내는 것이다.

그림책의 경우, 이러한 분석은 문학적이라기보다는 미술적이다. 그림의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각 언어로서 작용하는지, 기호나 상징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결합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미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장르를 넘어, 지식정보책 서평

▶ 장르를 넘어, 지식정보책 서평

▶ 도전! 개발의 달인 _ 서윤정 | 열린어린이 2010년 12월

▶ 지금, 사랑과 성은 어디에 _ 김정미 | 열린어린이 2010년 11월

▶ 스티브 잡스 이야기

_ [책읽는 경향] 스티브 잡스 이야기, 짐 코리건 저 권오열 역, 명진출판 | 송유정 | 영광중학교 교사

▶ 소중한 동심 담긴 이 아름다운 책 천만년 읽혔으면

_ [책읽는 경향] 한국 대표동시 100편, 박두순 엮음, 큰나 | 박민영 | 현암사 2010년 5월 30일

▶ 원하는 일과 꿈을 설계하라

_ [책읽는 경향] 한 권으로 보는 그림 직업 백과, 조은주 외, 진선아이 | 신재옥 | 푸른책들 2010년 5월 5일

▶ 아이팟 디자인, 이메일 '@' 선생님이 들려주는 기술 세상

_ 이경희 기자 | 중앙일보 2010년 12월 25일

▶ 원소 · 고체와 친구 되는 화학나라로 놀러 오세요 _ 곽아람 기자 | 조선일보 2010년 12월 10일

장르를 넘어, 지식정보책 서평

장르의 이해

어린이 실용서라고 일컫는다. 어린이 지식정보책은 그림책과 어린이문학을 뺀, 어린이 대상 책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한다. 어린이들의 성장과정에 맞춰, 고른 지식체계를 갖추도록 돕는 책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그림책과 문학(서사)의 형식으로 풀어내는 책들이 많아져, 장르의 경계가 섞이기도 한다. 따라서 장르의 구분이 그렇게 '확고'한 것은 아니다.

서평자는 각각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확보한다면 금상첨화다. 각 영역의 지식정보를 어린이 눈높이에 잘 맞추어 쓰고 편집했는지를 가리려면, 서평자 스스로 그 영역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하다. 현대 대한민국의 어린이책 가운데, 교양-지식-정보를 아우르는 영역을 따져보았다.

역사/ 과학/ 문화예술/

생태환경/ 여행지리/

건강/

인물(자기계발)/ 경제/ 사회/

만화/

종교/ 잡지/ 사전/ 공부법(교육)/ 학습부교재

서평도구의 차별화

어린이비문학, 지식정보책은 그림책과 어린이문학과 표현이나 서사의 방식, 정보화의 방식이 사뭇 다르다. 또렷한 목적을 갖고 기획과 집필, 편집이 이뤄

지기 때문이다. 지식정보책의 이러한 특징을 서평에서도 잘 반영해 책을 고르고, 읽고, 서평 설계해야 한다.

다음은 몇 가지 어린이 지식정보책에서 도드라지게 살필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 말하고자 하는 바(주제)가 분명한지
-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실히 담고 있는지(다층성)
- 이야기 구조를 갖는지 여부
- 주제에 충실하고 있는지 여부
- 문장의 힘이 어떤지(읽힘이 좋은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한지)
- 대상으로 삼는 영역이 단순한지, 여러 겹인지

- 역사적,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 정보화 방식과 도구는 적절한지 여부/ 정보의 구조화가 잘되어 있는지
- 글과 그림의 배치(따로인지, 같이인지)
- 이야기구조와 정보화구조가 잘 배치되었는지 여부
- 재현에 큰 문제는 없는지, 특정시대를 배경으로 하였을 때, 건축 - 복식 - 의례 등

- 화자를 따져보자. 존재여부와 얼마나 잘 드러나 있는지
- 책의 외부(표지부터 장정, 판면구조까지) 살피기
- 작가에 대한 접근(이전 작품과 어떤 흐름에 있는지)
-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잘 풀고 있는지
- 독자에 대한 설정이 잘 되어있는지

* 도전! 계발의 달인

어린이를 위한 + 자신감, 리더십, 끈기, 절제, 인내, 약속, 정직, 책임감, 창의력, 용기, 배려, 관계, 행복, 좋은 습관, 비전, 성공, 일등, 부자……. 간혹 한두 권씩 눈에 띄던 어린이 대상 자기계발서가 언제부턴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무슨 자기계발이 필요하냐,는 어찌 보면 촌스러움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를 껄끄러움과 거부감, 혹은 편견을 잠시 접어두고 보면, 어린이 자기계발서의 장점이 하나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체성과 실용성. 일상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는 자기계발서의 가장 큰 미덕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대화 발표의 기술』. 에두름과 꾸밈없이 단도직입적인 제목에서 이 책이 어린이들에게 말하기 기술을 알려 주는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리즈명도 솔직담백한 ‘어린이 자기계발기술’입니다.) 대다수의 어린이용 자기계발서가 그러하듯, 이 책도 동화와 정보의 결합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인 5학년 강한나는(‘강한’나). 자신감이 느껴지는 이름! 아빠의 강력한 권유로 2학기 학급 회장 선거에 나갑니다. 아빠가 준비해준 발표문을 가지고 저녁마다 연습을 했지만, 정작 아이들 앞에 서자 얼굴은 화끈화끈, 가슴은 쿵닥쿵닥, 머리는 어질어질하는 바람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보고 자리로 돌아오고 말지요. 잔뜩 풀이 죽은 채 집으로 돌아가던 한나는 우연히 ‘행복한 도넛 가게’의 주인 할아버지를 만나 대화와 발표의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꾸준한 훈련과 시행착오 끝에 한나는 학급 부회장이 되고, 전교생 발표 대회에 나가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펼치며 아나운서를 꿈꾸는 자신감 있는 어린이로 거듭나

게 됩니다.

한나의 성공담 속에 녹아 있는 핵심 내용은 ‘대화 발표의 기술 5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공감 능력 키우기. 한나의 말하기 멘토인 도넛 할아버지는 우선 말을 잘하려면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넓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경청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두 번째로 발표 불안증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세 번째 정보와 근거를 바탕으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말하기, 네 번째 눈빛과 표정, 손동작 등 적절한 제스처를 사용하기, 다섯 번째 돌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 통제력 익히기를 체득하면서 한나는 말하기에 자신감을 얻습니다.

현직 아나운서의 노하우가 살아 있는 이야기에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녹아 있습니다. 동화 뒷부분에 이어지는 정보면에서는 적절한 주제를 택해 대화를 이끄는 방법, 발표 전에 몸을 풀면서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 복식 호흡하기, 정보를 찾고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 효과적인 시선 처리 방법과 같은 실용적인 정보를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다양한 형식으로 풀어 놓았습니다. 테스트 항목이나 예시를 통해 어린이들이 앞서 배운 내용을 따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학교. 모든 게 처음이고 경험이 부족한 만큼 아이들에겐 사회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기술 혹은 스킬을 담고 있는 자기계발서가 각광을 받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말하기는 수업 시간에도, 친구들과와의 원만한 관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능력

이지요. 하지만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밑바탕’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대화 발표의 기술』에서도 대화 발표의 기술을 경청과 관찰을 통한 상대방의 이해에서 시작하여 진정성과 진심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말하기 역시 상대방과 관계를 맺으며 이루어 가는 쌍방향 작용임을 강조합니다.

명작과 고전, 시와 문학 작품을 자연 밥상이라 한다면, 자기계발서는 잘 가공된 영양제라고 할 만합니다. 어설픈 교훈보다는 구체적인 하나의 목표에 집중된 주제와 전문가의 집약된 노하우가 담긴 어린이 자기계발서는 적절히 활용한다면 자연 식품만으로는 얻기 힘든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보충해 줄 것입니다. ‘계발’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 가려내고, 취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 아무리 좋아도 영양제만 먹고 살 수는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서윤정 | 열린어린이 2010년 12월

* 지금, 사랑과 성은 어디에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또 성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과 성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여 있나요?

시공간을 막론하고 하나의 주제인데도 전혀 다른 시각이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제 앞에서 누군가는 입을 다물고, 다른 누군가는 활기를 띠니다. 이 도저도 아닌 입장에서 변죽만 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2010년을 살아가는 이들은 대부분 입을 다물거나 변죽을 울리는 쪽이 아닐까 합니다. 예전보다야 훨씬 나아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사랑과 성에 대한 ‘개방’에 한정된 것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당당하고 솔직한 척하지만, 두루뭉술하게 넘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랑과 성에 대한 정보가 음지에서 정처 없이 떠돌던 편이었으니까요. 이번에 소개하는 책은 그 사랑과 성을 환한 낮에 사람들 많은 광장에서 펼쳐 보입니다.

왜 하필 ‘사랑’ 이고, ‘성’ 일까요? 역사를 풀어 이야기할 수 있는 틀이 무궁무진한데, 왜 하필 개개인마다 다른 ‘사랑과 성’으로 역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류가 진화하고 발전해 온 역사에 사랑과 성을 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과 성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성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들여다볼 때 ‘성’에 집중한 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이라는 주제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건드리기엔 꺼림칙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전혀 불편하거나 거슬리지 않습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뭔가 센(?) 것을 기대하던 사람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강한 인상을 심어 주지 못합니다. 두 개의 세포가 유전자를 섞어 유일무이한 세포를 탄생시켰다는 최초의 사랑에서 시작해, 각 대륙에서 전해지는 여자와 남자의 기원에 관한 신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지구 최초의 인간으로 이어지는 역사는 흥미로운 것을 빨리 알고 싶어 안달하는 요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편이 아닙니다. 궁금하지 않은 척하면서도 귀를 슬쩍 여는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차원적인 흥미로움만으로 사랑과 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님을 알기에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욕심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사랑과 성의 역사를 찬찬히 짚어나갑니다. 단편적이면서도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알던 사람들에게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사랑을 했고, 또 얼마나 그릇되게 해석했으며, 그로 인해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색다른 사랑, 아시아의 관능적인 사랑, 유대교와 기독교의 엄격한 사랑, 아랍의 시적인 사랑, 중세의 비극적인 사랑, 식민주의의 이국적인 사랑, 미국의 모순된 사랑, 제국주의의 군사적인 사랑, 현대의 해방된 사랑 등 생물학이 아닌 인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사람들을 겁내지 않고 확고하게 서술해 나가서 독자들을 이끄는 힘도 상당합니다.

사랑과 성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성에 대한 개념, 주장이 얼마나 다양한지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 드러납니다. 조심스럽지만 진실하게 접근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글은 충분히 전문

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성에 관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고 솔직하지 못하다는 반성도 녹아 있어 사랑과 성의 이해에 대한 자만을 경계합니다.

맨 처음 이 책을 집어든 때를 생각해 봅니다.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는지 잠깐 본 사이에 내용이 마음을 잡아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사랑과 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갈증이 일었다고나 할까요. 그 갈증이 채워지고, 시원한 해갈은 또 다른 갈증을 부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사랑과 성에 대한 그릇된 통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만으로 사랑의 깊이와 성의 가치를 재려는 사람들에게 성의 역사가 처절했으며, 아름다웠고, 슬펐다는 것을 일깨우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책에 이어 사랑과 성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꾸준히 계승되면 좋겠습니다.

김정미 | 열린어린이 2010년 11월

* 스티브 잡스 이야기

스티브는 승승장구 성공을 연달아 했을 때가 아니라 커다란 위기를 맞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다. 또 과거와 신속하고 완벽하게 결별하는 것만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했다.

지난 일에 미련을 두거나 상처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속상해하는 것은 그의 체질에 맞지 않았다. 마음을 다잡은 스티브는 차고에서 애플을 처음 만든 스무살의 그날처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하루는 날을 잡아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이룬 것들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 내려갔다.

두말할 것도 없이 애플II와 매킨토시를 만든 것이었다. ... “그때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애플에서 나오면서 성공에 대한 중압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벼움으로 대체할 수 있었죠. 그 시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경험은 매우 쓴 약이었지만 어떤 면에서 환자였던 제게는 정말로 필요한 약이었죠.” (152~153쪽)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꿈꾼다. 하지만 성공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쉽게 이루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주인공, ‘아이폰’과 ‘아이패드’ 출시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스티브 잡스는 우리보다 특별하기는커녕 불우한 성장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루고 싶은 꿈을 갖고, 실패와 좌절을 겪고서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였기에 오늘

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스티브 잡스의 꿈을 향한 열정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함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싶다.

[책읽는 경향] 『스티브 잡스 이야기』, 짐 코리건 저 권오열 역, 명진출판

송유정 | 영광중학교 교사

* 소중한 동심 담긴 이 아름다운 책 천만년 읽혔으면

아버지는/일거리가 없을 때/하늘을 쳐다봅니다./어머니도/긋은일이 생기면/하늘을 쳐다봅니다./저도 숙제가 너무 많아/기슴이 답답할 때면/하늘을 쳐다봅니다./셋방살이 방 하나/우리 집 식구들은/하늘을 보고 삽니다.(30쪽, 박인술 '하늘')

-꽃들이/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꽃을 꺾는 것/-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것/-꽃을 마구 밟는 것 /-아니,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것/.../-그건 바로/손길 하나 주지 않고/내버려 두는 거래.(92쪽, 정은미 '무서운 것')

한 대학생 누나/너무 배고파/메추리알, 우유, 김치, 핫바/6650원어치 훔쳤다고 한다./설 때도 고향집에/아무도 없는 누나/누나의 가난을/누가 훔쳐 갔음 좋겠다./누나의 슬픔을/누가 훔쳐 갔음 좋겠다.(24쪽, 이화주 '누가 훔쳐 갔음 좋겠다')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어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참 많이 다르다. 때로 우리는 동시에서 자신의 모습을 더 잘 볼 수 있고, 더욱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훔친다’는 것도 우리 어른들에게는 얼마나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닌 말인가. 그런데 가난이나 슬픔 같은 걸 훔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아이들의 마음이라니...

밝고 건강한 아이들의 마음, 그것은 분명 우리가 가장 소중히 키워주고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자산임이 분명하다. 유용주 시인은 이 책을 두고 ‘이 아름다운 책이 100년이 아니고 천년만년 동안이라도 우리나라의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많이 읽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책읽는 경험] 『한국 대표동시 100편』, 박두순 엮음, 큰나

박민영 | 현암사 2010년 5월 30일

* 원하는 일과 꿈을 설계하라

“어른이 되면 무엇이 되고 싶나?”는 장래 희망을 묻는 질문을 받을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과학자, 대통령, 선생님,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 등 이 세상에는 매우 많은 직업이 있지요. 그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가요?

우리가 꿈꾸는 장래 희망에 관한 정보를 찾는 일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의 진로를 정하는 소중한 첫걸음이에요. 또한 수많은 직업 가운데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미리 그것을 준비하는 일은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지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일찍 준비하며 능력을 가꾸어 나가면 꿈을 이루는 순간이 더 빨리 찾아올 거예요(6쪽).”

초등학생을 위한 책이지만,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중·고생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는 책이다. 전문 분야별로, 또는 좋아하는 흥미에 따라 직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각 직업에 적합한 성격과 자질, 힘든 점, 필요한 교육과정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300여 개의 직업들이 소개돼 있어 ‘백과’라는 책 제목에 걸맞은 책이다. 내가 원하는 꿈을 설계하는 일, 삶을 행복하게 일구는 첫걸음일 것이다.

[책읽는 경험] 『한 권으로 보는 그림 직업 백과, 조은주 외, 진선아이

신재옥 | 푸른책들 2010년 5월 5일

* 아이팟 디자인, 이메일 '@' 선생님이 들려주는 기술 세상

『테크놀로지의 세계 1, 2, 3』 |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교사 모임 지음 | 랜덤하우스

기술의 진보 속도를 교과서로는 따라잡기 힘들다. 그래서 기술 교사들이 나섰다. 기술의 역사부터 최신 경향까지 3권으로 집대성한 책이다. 1권은 기술의 역사와 미래, 진로 등을 다룬다. 2권은 디자인·정보통신·제조·에너지 기술을 담았다. 3권은 전자기계·건설·생명·수송기술을 아우른다. 불의 발견부터 시작해 아이팟 디자인의 변천사까지 포괄하니 '선생님이 들려주는 기술의 모든 것'이라는 부제가 과장이 아닌 듯싶다.

교과 과정과 관계 없이 읽어도 재미있는 정보가 많다. 이메일 주소에 '@'을 쓰게 된 이유는 뭤까. 이 기호는 1971년 레이 톰린슨이 메일 서버 주소와 아이디를 구분하기 위해 처음 쓰기 시작했다. 각국에서 '@'을 지칭하는 이름도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선 '골뱅이', 러시아는 '작은 개', 대만은 '생쥐', 스웨덴은 '달팽이', 헝가리는 '구더기', 네덜란드는 '원숭이 꼬리'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선 해커와 해킹은 흔히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는 사뭇 다르다고 한다. 해커는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컴퓨터 전문가들로, 도덕적으로 정직하다. 반면 크래커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빼돌리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마비시킨다. 우리가 흔히 '해킹'이라 말하는 인터넷 마비 사태 역시 '크래킹'이라 부르는 게 옳다는 것이다.

2, 3권의 경우 기술 분야에서 진로를 찾으려는 아이들을 위해 각 분야별 전망과 관련 학과, 롤 모델이 될만한 인물도 소개한다. 신문지로 교량 제작하기, 스파게티 면으로 구조물 만들기 등 흥미로운 제작체험 코너도 마련됐다. 대상 연령은 10대이나 어른들이 읽어도 새로울 내용이 많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은 되어야 소화할 수 있겠다. 이 책에 맞는 교사용 교육자료집도 제작됐는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T-STAR(www.tstar.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이경희 기자 | 중앙일보 2010년 12월 25일

* 원소 · 고체와 친구 되는 화학나라로 놀러 오세요

『재미있는 화학』 | 댄 그린 지음 사이먼 바셔 그림 전대호 옮김 | 해나무

‘나’는 화학나라의 악동. 막무가내에다 고약하고 아주 위험하다. 기회만 생기면 금속을 갉아먹고 생물들의 피부를 태워버리려고 하는 나는 바로 ‘산(酸)’이다. 수소 이온을 내놓는 능력이 있는 내 특기는 ‘해리(解離)’다. 나는 물 속에 들어가 양이온인 수소 이온(H+)과 음이온으로 갈라지는데 이것을 ‘해리’라고 한다. 내가 내놓는 수소 이온은 용액 속의 다른 물질들과 자유롭게 반응해 심각한 파괴와 혼란을 일으킨다. 강한 산들이 내놓을 수 있는 수소 이온 전부를 순식간에 내놓는 반면, 약한 산들은 수소 이온을 훨씬 적게 내놓는다. 강한 산인 황산은 화학공업계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약한 산인 아세트산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서 활동한다.

‘나’는 실험실에 알록달록한 빛깔을 선사하는 존재. 내 이름인 ‘크로마토그래피(chromatography)’는 색깔을 뜻하는 그리스어 ‘크로마(chroma)’와 ‘글씨를 쓴다’는 뜻인 ‘그라페인(graphen)’이 결합해 만들어진 단어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용액에 녹아 있는 혼합물들의 성분을 분리하는 기술로, 집에서도 쉽게 해볼 수 있다. 거름종이를 길쭉한 띠 모양으로 자른 다음에, 한쪽 끝머리 근처에 사인펜으로 점을 찍는다. 점 아랫부분의 거름종이를 물에 살짝 담그고 하룻밤 동안 그대로 놓아둔다. 그러면 물이 거름종이에 스며들어 올라가면서 사인펜 잉크의 색소 성분들이 분리돼 여러 색깔의 띠가 생겨난다. 범죄 현장에서 염료가 발견되면, 과학수사관들은 그것을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한다.

고체·액체·기체·원소에서부터 거대분자·나노입자·탄화수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학 개념들이 자기 자신을 재기 발랄하게 소개하는 형식으로 꾸며진 책이다. 복잡한 개념들을 의인화해 독자들이 친근감을 가지도록 한 후 그들의 캐릭터를 살린 익살스러운 그림을 곁들여 ‘화학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떨칠 수 있도록 했다. 초등 고학년 이상 불만하다.

곽아람 기자 | 조선일보 2010년 12월 10일

813.8

여러 가지 서평 살피기

- ▶ 신분사회의 벽을 넘어 죽대있게 살아간 아이들 이야기 _ 꽃 신, 김소연 글, 김동성 그림
- ▶ 꽃보다 아름다운 할머니 이야기 _ 할머니의 레시피, 이미애 글, 문구선그림, 아이세움, 2009
- ▶ 들 꽃 같은 아이 이야기 _ 임길백 글, 김동성 그림, 길벗어린이 2008.7. 9800
- ▶ 관례적인 구도와 그 효과
- ▶ 미장센 스타일의 그림책
- ▶ 서로 다른 관점을 교차 서술한 그림책
- ▶ 물이면서 물인 '겹침공간' 염전의 산 풍경 _ 소금이 일어나는 물거울 염전, 유종인 글, 놀와 2007.9

신분사회의 벽을 넘어 जू대 있게 살아간 아이들 이야기

『꽃신』, 김소연 글, 김동성 그림, 파랑새어린이, 2008

한겨울이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거리에서 한 여자 아이가 눈을 맞추어 온다. 빨간 비단 두루마기, 까만 남바위, 털토시, 그리고 어여쁜 꽃신 등으로 차려입고 무슨 말인가 할 듯 조용히 응시한다. 오랜만에 만난 조카아이처럼 반가운 마음이 일어나고 달려가 손을 잡고 싶다.

책 뒤에 있는 작가 말을 쫓아가 보니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삼은 이야기라고 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19세기 조선 팔도를 누비고 다닌 보부상 일화에서 글감을 가져왔다고 한다.

조선 시대라면 양반들이 지배하는 엄격한 신분사회이자 남자들이 지배하던 세상이다. 천민들이 양반들의 위세에 눌려 숨 한번 크게 쉬지 못하고 살던 시대이다. 양반도 천민도, 남자도 여자도 같은 존재감을 갖고 첨단 과학명명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조선 시대를 살아간 아이들이 타임캡슐을 열고 우리 앞에 섰다.

이야기 배경이 되는 조선 시대는 아이들이 직접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관념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 온갖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은 경험이 녹아 있지 않아 관념으로 남아있기 쉽다. 인간 삶의 총체를 다루는 문학은 시대가 달라도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이 책에 실린 세 편 이야기는 역사를 직접 다루지 않으면서 한 시대 역사를 살아간 사람들 삶에 초점을 맞춘 문학작품이다. 문학과 역사의 만남은 한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어낸 삶의 문제와 만나게 한다. 그 속에는 우

리가 지금 여기서 겪고 있는 다양한 인간문제가 녹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이다. 양반과 천민, 가난, 사랑, 관계, 도덕, 윤리, 이 모든 것이 씨줄과 날줄로 얽여 사람의 역사가 이어진다. 이 책 내용은 힘의 논리로만 이루어진 양반들의 역사보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기대어가며 한 시대의 고난을 극복하는 역사로 이어진다. 사람 하나하나가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며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매개가 되어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신분 사회의 벽을 뛰어넘어

이야기 배경이 되는 조선 시대는 사람보다 신분이 더 중요했던 시대, 신분으로 사람값을 매겼던 시대였다. 양반이라는 신분으로 하늘같은 권력을 구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양반들의 그늘에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계급으로 구별되는 사람의 가치 때문에 술한 부조리와 갈등이 존재한다. 그런 사회속에서도 자기 존재감을 잃지 않으며 시대의 부당함에 맞서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옆사람에게 이야기하듯 풀어간다.

〈꽃신〉에는 양반집 작은아씨 선예와 화전민의 딸 달이가 이야기의 중심축을 이룬다. 선예는 아버지가 역모에 연루되면서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된다. 달이는 화전민의 딸로 태어나 하루아침에 역병으로 부모를 잃고 스스로 땀감을 마련하고 짚신을 만들어 신이며 부모를 절에 모시고 정성을 드리는 아이이다. 두 아이 모두 열다섯 아직은 어린 여자 아이들로 부모 문제로 마음고생을 한다

는 공통점이 있다.

감수성 풍부한 두 아이는 신분 차이에서 오는 마음의 벽 때문에 선뜻 다가가지 못한다.

상대를 경계하기도 하고 엿보기도 한다. 맞서기도 한다. 연민을 품기도 한다. 그러면서 조금씩 다가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를 마음으로 받아들일게 된다. 선예는 혼자서 땀감을 마련하고 맨발에 짚신만 신고도 부모 위패를 모신 절에 정성껏 공양을 다닌다. 이런 달이를 보며 자신의 처지를 새롭게 인식하며 마음을 다잡고 세상밖으로 나갈 준비를 차린다. 선예에게 낯선 마음을 가졌던 달이는 민들레 꽃을 넣어 엮은 짚신을 건네며 양반가 아기씨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선예는 달이에게 아버지가 남겨준 소중한 비단 꽃신을 건네며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 꽃신을 매개로 하여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된 아이들은 느닷없이 만난 어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만나게 될 큰 세상을 당당하고 힘차게 맞이하게 되리라는 상상을 하게 된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주인공들

두 번째 이야기 <방물고리>에 등장하는 덕님은 어쩐가, 병든 어머니를 수발하며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열다섯된 여자 아이이다. 조선 시대가 남자들의 세상이거나 말거나 양반들의 세상이거나 말거나 주근깨 덮인 코와 두툼한 입술로 빛바랜 몽당치마에 팔뚝이 비죽 나온 저고리를 입고 돼지먹이를 구하기 위해 온동네를 다니며 구정물을 모아들이기에 덕님이 치마

에서 휘파람 소리가 날 지경이다. 이러한 덕님이 일상은 마치 옆에서 보듯 생
생하여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흥미롭다.

덕님은 어머니 약값 마련을 위해 수탉을 옷닭이라고 속여 팔며 어긋난 길
로 나가기도 하는데 덕님을 딸처럼 어여뻐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김행수
에게서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 어른의 덕망을 느낀다. 든든한 언덕처럼 넉넉
한 주막집 할머니의 인심 등은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덕님이 마음으로 기
대도 좋을 올바른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억세고 부끄럼 모를 것
같은 덕님이 김행수 상단의 청년 보부상 홍석익과 줄다리기 하듯 벌이는 풋
풋한 사랑 줄다리기는 이야기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덕님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재산을 노리는 사촌오라비들 음모에 맞서
김행수와 홍석익의 도움으로 애지중지 키운 돼지들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방물고
리를 산다. 그리고 김행수 상단의 보부상 일행이 되어 길을 떠나는 덕님은
양반들의 세상, 남자들의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어떤 부당함에도 꺾
이지 않고 자기 존재감을 곳곳하게 세우며 곳곳히 헤쳐가는 모습이 요즘의 우
리 아이들 모습과 겹쳐지면서 감동으로 마음을 일렁이게 한다.

〈다홍치마〉의 큰돌이 역시 시대의 부당함을 떨치고 역사의 주인으로 거듭나
는 모습이 믿음직하게 다가오는 이야기이다.

큰돌이는 양반에게 말 한 마디 잘못된 죄로 매를 맞고 갇혔다가 도망친 노비

의 아들로 산속에 숨어 사는 부모를 대신해서 솫장수로 나선다. 큰돌이는 노비 출신이라는 가난하다는, 글을 모른다는 시대가 지워준 멍에 때문에 양반들에게 천대 받으며 살아야 했기에 양반에 대한 원한이 쌓여 있다. 정선비는 유배당한 채 동네 아이들에게조차 돌팔매를 당하면서 양반들에게 억눌러사는 처지로 두 사람 모두 신분의 차이에서 오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큰돌이와 선비는 스승과 제자가 되어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에 배려와 사랑 존경과 신뢰의 마음을 쌓아가며 신분의 차이도 시대의 아픔도, 양반들에게 받은 상처도 극복해간다.

큰돌이는 정선비를 통해 양반도 천민도 없는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은 선비가 큰돌이 동생의 माम을 고쳐준 것이 빌미가 되어 더 멀리 유배를 떠난 선비를 찾아가게 한다. 선비가 보물처럼 여기는 다홍치마를 전하기 위해서다. 큰돌이는 정선비의 바람대로 다홍치마를 다시 선비의 아내에게 전하기 위해 더 먼 길을 떠난다. 태어나 세상밖으로 한번도 나가보지 않은 큰돌이가 다홍치마를 가지고 먼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선비에게 받은 가르침, 선비에게 받은 배려, 선비를 향한 존경심 덕분이다. 정선비와 큰돌이가 신분을 뛰어넘어 교감하는 모습은 누구를 떠받들지 않아도 사람이기에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며 서로 가진것을 나누는 모습은 어느시대나 사람에게 부여된 고유한 특권임을 느끼게 한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 책에 실린 세 편 이야기는 주인공들이 모두 길을 떠나면서 끝을 맺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그들이 떠난 길위에서 벌어질 또 다른 이야기를 상상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선예는 비단 꽃신 대신 달이에게 건네받은 민들레로 엮은 짚신을 신고 어머니를 찾아 길을 나서고 덕님은 방물고리를 머리에 이고 방물장수가 되어 길을 나섰다. 큰돌이는 정선비의 다홍치마를 전하기 위해 먼먼 길을 떠났다. 그들 앞에는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겪은 시대의 아픔이 전해준 단단한 마음의 씨앗이 그들앞에 펼쳐진 길을 주저없이 걸어갈 것임을 믿게 한다.

이 책을 읽는 맛을 더해주는 것은 등장인물들의 섬세한 심리 묘사에 있다. <꽃신>에서 선예와 달이의 신분차에서 오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가 손에 잡힐듯 그려지는것이나 <방물고리>에서 덕님이가 홍석이에게 향하는 마음, 그 때문에 갖게 되는 설렘, 부끄러움은 마치 옆에서 보는 듯 그려진다. 이처럼 인물들의 섬세한 감정변화는 긴장감을 유발하게 되고 시대가 달라도 사람과 사람사이에 오가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한 <꽃신>의 구선스님 <방물고리>의 김행수나 국밥집 아주머니 <다홍치마>의 권서방 등 나이든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부모를 대신하는 어른으로서 도리와 덕망을, 넉넉함과 따듯함을 조

용히 드러낸다. 그것이 어른에게 향하는 신뢰감을 갖게도 한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무대에 오른 배우들이 저마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절하게 소화하고 있다. 주인공들이 부각되기 위해 주변 인물들은 적절하게 뒤로 물러서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은 세 편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책이 성공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글과 그림

이 책이 돋보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그림이다. 김소연의 진지하면서도 무겁지 않게 읽히는 글에 시대 배경과 인물들의 옷차림, 표정, 행동거지 등을 치밀하게 묘사한 김동성의 그림은 서로를 빛나게 한 요소로 작용한다.

동화는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림 역할이 그만큼 약하다. 그래서 마치 그림이 보조수단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김동성은 동화에서 그림책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인식시킨다. 글에서 주연과 조연의 역할이 적정하게 배분하여 전체 흐름을 조율하듯이 그림 역시 적절한 간격을 두고 등장하면서 주인공들이 살아간 시대와 인물들의 모습을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묘사한다. 그것은 한데 어우러져 한국적 정서를 아름답게 드러내며 책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이야기책에서 그림은 더 이상 소품이 아니라 정체성을 뚜렷하게 지닌 자기만의 몫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단정한 문장속에 뚜렷하게 부각되는 주인공들이 자존심을 걸고 시대의 부당함과 맞서는 치열한 정신, 사실적이며 섬세한 묘사력,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 글과 그림의 멋진 조화를 이루는 책으로 아이들에게 건네는데 주저하지 않게

한다. 김소연을 우리 아동문학의 힘이 되는 작가로 기대하게 하는 작품이다.

* 출처 :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월보, <도서관 이야기> | 2009년

꽃보다 아름다운 할머니 이야기

『할머니의 레시피』, 이미애 글, 문구선 그림, 아이세움, 2009

가수 안치환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힘껏 외칠 때 그냥 몸이 저절로 움찔거리며 마음이 뽕뽕 뜨곤한다. 흥이 가라앉고 이성을 찾으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긴’ 징글징글한게 사람이지. 라는 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한 번 더 이성을 찾으면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롭다는 걸 인정하게 된다. 수수만년 역사를 이어온 사람들, 아무런 조건없이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을 쏟는 ‘사랑’을 만날 때 그렇다.

『할머니의 레시피』는 꽃보다 아름다운 할머니 향기에 취하는 호사를 누리게 한다. 할머니가 오랜 삶의 연륜으로 빚어내는 향기를 취하지 못하고 어린날을 지나가게 하는 건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친다는 생각이 든다.

현실에서도, 최근 출간되는 어린이 책에서는 할머니 존재는 그리 향기롭지도 아름답지도 않다. 돈 없고, 힘 없고, 치매걸리고, 자식들에게 얹혀살며 눈치보는 불쌍한 존재로 그려지는 일이 많다. 그에 비해 『할머니의 레시피』에 나오는 서현이 할머니는 따듯하고 음식솜씨 좋고, 예전 방식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할머니다.

경운기를 끌고 여름방학을 할머니 댁에서 보내기 위해 서울서 내려오는 서현이를 마중나갈 만큼 씩씩하다. 시골에서 누구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는 것은 물론 친구 할머니들하고 마음놓고 오가며 자유롭고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모습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할머니이다.

이야기는 방학을 맞아 서울서 내려온 손녀에게 할머니가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데 그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다룬 열여덟 편으로 된 내용이다. 각 이야기는 한 편 한 편으로 되어 있지만 이어 읽으면 긴 이야기 한 편이 되기도 한다. 한 이야기가 끝날때마다 등장하는 〈할머니의 레시피〉는 각각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한다.

할머니는 스스로 농사지은 재료로, 마을에서도 알아주는 솜씨를 발휘하여 음식을 만들어간다. 그 음식들이 할머니 입을 타고 손을 타면 ‘매콤 달달 양념 찜닭’, ‘보들보들 가지찜’, ‘쫄득 쫄득 상추 시루떡’, ‘맷돌 돌돌 콩국수’, ‘쭉 찢어서 정구지 찌집’, ‘국물 걸죽 제물 칼국수’ 등이 된다. 음식들이 저마다 지닌 특징을 살리고 맛과 모양을 살려내 리듬을 타고 움직인다. 음식이름을 보면 단박에 입에 침이 돌게 되고, 바로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경상도 사투리로 맛깔나게 풀어가는 할머니 말솜씨가 일품 요리 못지않다.

“마당에서 꼬꼬댁 거리는 토실토실 참한 닭 한 마리를 잡는대이.

눈 딱 감고 손질해서 말끔히 씻어서 건져 갖고는 큼직큼직 잘라서 소금 쪄매, 후춧가루 쪄매 뿌려 놓는기라, 번철에 매운 홍고추를 툯툯 썰어놓고 기름 부어서 불에 올려 벌건 고추기름을 만들재. 이때 안타게 불조절 잘해야재.”

-매콤 달달 양념 찜닭-

할머니는 음식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모두 이야기로 한다. 곡만 붙이면 바로 노래가 될 듯 경쾌한 할머니 사투리는 사람을 향한 진심어린 사랑이 느껴진다.

꾸밈도 없다. 들꽃처럼 싱싱함이 살아있다. 음식을 만드는 도구도 번철, 무쇠 솔처럼 예전부터 쓰던 이름 그대로이다. 부뚜막을 매끈매끈 닦는 할머니를 보면 마음이 개운해진다. 이렇게 정갈한데다 만든 음식을 먹는 것도 예술이다.

“쌈은 커다랗게 이렇게 싸서 입 안 가득 넣고 묵는 게 제일 맛인기라. 요렇게.”
할머니 뺨이 아기 뺨처럼 볼록해 졌다. 골골이 진 주름도 퍼졌다. 내 뺨도 덩달아 볼록해 졌다. 터질 것 같았다.

먹는 것만 봐도 복이 들어온다고 했다. 할머니는 음식을 맛깔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모양도 사투리로 눈에 그리듯 말하여 입에 침이 고이게 한다.

예전 사람들이 그랬듯이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흰 사발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조왕신을 향해 정성껏 기도를 한다. 기도 내용도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것 아니다. 멀리 사는 외동딸과 사위와 집에 와 있는 외손녀가 별탈없이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게 해 달라는 것이다. 욕심없이 소박하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모습은 거창하게 무엇을 주장하지 않아도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을 알게 한다.

할머니가 날마다 손녀를 위해 준비하는 레시피는 종류도 재료도 만드는 방법도 다른 영화를 보는 것처럼 다양하고 새롭다. 맛있다. 향기가 난다. 그래서 서둘러 다음 장을 넘기게 된다. 거기에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레시피가 기다린다. 그리고 매번 할머니의 따듯하고 경쾌한 사투리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눈과 입을

즐겁게 한다.

할머니는 손녀딸을 위해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것이 즐겁다. 이에 비해 서현이는 시커먼 감자떡에 놀라고, 재래식 화장실에 기어다니는 구더기 때문에 혼비백산한다. 똥통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한다. 하지만 꽃보다 아름다운 할머니의 레시피가 빚어내는 마음의 온기와 시골 향기는 온전히 책에 빠져들게 한다. 서현이가 너무 수동적으로 그려진 아쉽지만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읽으면 좋겠다. 그 무엇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전통의 삶을 느끼게 하니까, 사투리에 담긴 시골 마을의 정취와 맛깔나는 우리 고유의 정서를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만의 다양한 음식종류와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알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꽃보다 아름다운 할머니 향기가 가득하니까.

* 출처 : 도서출판 아이세움 사보, 조월레 | 2010년 6월

들꽃 같은 아이 이야기

『들꽃 아이』, 임길택 글, 김동성 그림, 길벗어린이, 2008

화사한 들꽃에 묻힌 아이는 이야기 주인공 보선이입니다. 52세라는 젊은 나이에 80년 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저자 임길택이 80년 초 교사로서 첫 발령을 받았던 사북 탄광마을에서 만난 아이입니다. 보선은 학교에서 별로 눈에 띄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몇 개씩 넘어야 하는 산골 마을에 살기 때문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다 보면 날이 어두워져 손전등을 들고 다니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오며가며 들에 핀 꽃들을 꺾어 선생님 책상에 꽂습니다. 선생님은 자주 늦거나 결석을 하는 보선이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보선이 가정방문을 가보고 나서야 보선이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를 알게 되지요. 자신의 책상에 놓인 들꽃이 보선이가 학교에 오가는 길에 꺾어 자신의 책상을 장식하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초년 교사의 순수함과, 산골 소녀 보선의 순수함이 만나 들꽃보다 더 순수하고 맑은 이야기 그림책입니다. 화가 김동성은 산골 마을 학교와 갖가지 들꽃과 보선이가 오가는 들판과 산과 숲과 산골 마을 정경을 아름답게 묘사하여 읽는 그림책, 보는 그림책의 가치를 한껏 높여주는 책입니다. 중간 페이지쯤 가면 여름 초록으로 가득한 숲이 양쪽 화면을 가득 채우는데 초록 물빛이 손에 묻어날 듯합니다. 가까이 놓고 두고두고 보고 싶은 그림책입니다. 도시 아이들이 학원 숲에서 글자와 씨름하면서 다시 오지 않을 감수성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 보선은 들꽃 피는 산골 마을을 오가며 이렇게 들꽃 같은 마음을 키워간 것입니다. 화사한 봄꽃 가득한 표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그림책입니다.

* 출처 : 경향신문, 조월레 | 2010년 3월

관계적인 구도와 그 효과

『지하 정원』, 조선경 글·그림, 보림, 2005

우리는 그림을 볼 때 사물들의 배치, 색깔과 형태, 크기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의 관계와 특성들이 어떠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가, 어떻게 작품 전체의 미적인 느낌을 자아내는가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러나 그림책 그림을 볼 때는 그림이 그런 종류의 총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보지도 그리지도 않게 된다. 그 이유는 그림책 그림은 하나의 그림만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책 전체의 한 부분으로 구상되고 그려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림책의 이야기는 그 특성상 대체로 결말에 가서 안정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설령 각각의 그림이 불안전하더라도, 해결을 묘사하는 마지막 그림에서만 전통적이고 균형 잡힌 구성을 충족시키면 전체적으로 완성된 느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그림책에서 ‘통일된 시각적 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려진 그림을 종종 발견한다. 이것은 그림이 등장인물의 행위나 의미심장한 순간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표현하는 관계적인 구도를 껌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더욱 많은 정보를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책 『지하 정원』에서 첫 번째 바닥의 글은 모스 아저씨의 일상과 “비좁은 화분에 심어 놓은 작은 나무”에 대한 단상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글이 묘사하고 있는 시각적 요소들(화분이나 작은 나무 등)을 그림에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소실점이 있는 구도’로 그린 골목의 근경 부분에 아저씨를 배치함으로써 시선을 아저씨의 모습에 집중시킨다. 그 다음 바닥에서도 글은 주로 지하철역

에 대한 묘사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림은 지하철 청소부로 일하는 아저씨를 글이 묘사한 '나선 계단'이 아닌 두 개의 둥근 기둥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모스 아저씨에 집중시킨다. 세 번째 바닥의 그림에서는 모스 아저씨가 기둥에 가려진 채 가장 작게 그려져 있다. 하지만 앞의 두 그림으로 인해 인물들의 시각적 무게감은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과장된 얼굴 표정이나 행위에도 불구하고 모스 아저씨에게서 더 느껴진다. 이처럼 『지하 정원』은 주인공 '모스 아저씨'에 대한 수많은 정보(일상, 직업, 성격 등)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한편 이 그림책의 그림들은 얼핏 보아 투시 원근법에 기초하여 공간을 포착하고, '소실점이나 소실축이 있는 구도'로 그려냄으로써 원근감을 드러내고 역동성을 묘사하려 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투시원근법과 '소실점 있는 구도'의 측면에서만 보면, 뭔가 어색하고 부적절함이 눈에 띈다. 모스 아저씨가 걸어 나오는 골목 그림은 좌측 중앙을 소실점으로 하는 구도로 그려졌지만, 건물의 창틀은 투시원근법의 근간이 되는 선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림책 뒷부분의 다른 그림들에서는 건물들이 제각각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모스 아저씨가 터널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림에서는 소실점 부근의 계단이나 철길을 아웃 포커싱(out focusing)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말해 원근법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함께 사용해야 하는 명암법이나 공기 효과 등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아서 깊은 터널, 즉 아득한 소실점으로서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고 있지 못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투시원근법의 실물 그대로의 ‘사실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재현과 표현의 한 매개체로서의 투시원근법의 특징이나 관례적인 구도와 그 효과에 더 관심이 쏠린다. 따라서 이 그림책의 그림들을 투시원근법이라든가 관례적인 구도에 집착하여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부조화가 만들어 내는 또 다른 효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골목이나 길거리 그림에서 창틀을 투시원근법의 근간이 되는 선들과 어긋나게 그리거나 건물들이 제각각 다른 방향을 보고 서 있게 그림으로써, 그림 전체로서의 역동성을 드러내기보다는 건물 하나하나의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터널을 바라보고 있는 아저씨 그림에서는 ‘소실점 있는 구도’를 통해 터널을 깊이 있는 공간으로 묘사하려 했다고보다는, ‘소실점 있는 구도’가 만들어 낸 터널 부근의 초점과 터무니없이 크게 그려진 아저씨 얼굴의 시각적인 무게감을 균등하게 하고 다소 불안한 그림의 구도에 안정감을 갖게 한다. 이로써 멍하니 터널 안을 바라보는 아저씨의 시선이 불안하거나 초조한 시선이 아니라 무언가를 생각하는 사색의 시선임을 연상케 한다.

우리는 특정한 형태에서 특정한 감정을 연상하기 때문에, 시각적 대상들의 형태는 배경과 다른 대상들의 전후관계에 의해 일정한 긴장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 자체의 의미를 암시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 중에서도 그림의 구도는 등장인물들과 환경의 관계를 암시할 때가 많다. 또한 인물과 공간과의 관계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때가 많다. 그러나 그림의 구도는 균형과 질서를 낳기 때문에, 상대적인 배치의 파괴는 불균형과 긴장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그림책에서 방안에 있는 아저씨 그림은 소실점을 중앙 상단에 둥글게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을 자아내는 반면, 나무를 보도보다 더 넓게 펼쳐진 부채꼴로 그려냄으로써, 작은 쉼터의 나무가 힘차게 뻗어 올라가는 느낌을 자아낸다. 반면, 역삼각형의 나무들이 다소 불안정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정은 다음 그림에서 지하철 터널 안을 소실점 없는 평면적인 구도로 그림으로써 이내 사라지게 되고, 머리가 희끗해진 모스 아저씨를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인물로 느껴지게 한다. 이처럼 이 그림책의 전반적인 특성인 불균형, 왜곡 등으로 나타난 배경의 불안정을 마지막 그림에 이르러서는 매우 안정된 구도로 마무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하고 완전한 것으로 마무리한다.

이 그림책만큼 그림의 구도가 크게 드러나는 그림책은 드물다. 또한 어린이 그림책에서 이처럼 투시원근법을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그림책은 원근법을 경시하거나 관례적으로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원근법을 고리타분한 묘사 기법의 하나로 여기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이 그림책에서는 ‘소실점이나 소실축이 있는 구도’를 전면으로 드러내고, 투시원근법을 적절히 변형함으로써 배경과 등장인물들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관례적인 구도와 그 효과를 배경보다는 인물 묘사에 이용함으로써 매우 성공적으로 인물 중심의 이야기를 시각화하는 데 성공한 좋은 사례라 여겨진다.

그 나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지, 또 그 나무를 심은 한 사람, 그의 순수한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끼게 합니다. 지하철 청소부 모

스는 사람들이 지하 터널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상심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때가 덕지덕지 낀 터널의 벽…….

* 출처 : 열린어린이, [윤한구의 그림책 읽기], 윤한구 | 2005년 9월

미장센 스타일의 그림책

『영이의 비닐우산』, 윤동재 시, 김재홍 그림, 창비, 2005

문학이든 미술이든 예술 작품이 형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예술 작품에 구현되는 사유를 ‘형상적 사유’라 부르기도 한다. 시는 어떻게 형상과 관계를 맺는가? 그 방식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시의 요소로 작용하는 감각적인 부분 형상들로 더 큰 전체 형상을 만들어 내는 독자의 지적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림책이 구현하는 ‘형상적 사유’는 시의 그것과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것은 그림에서 인지되는 비사유적인 것, 즉 독자의 감각과 지각에 의한 인식작용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윤동재의 시 「영이의 비닐우산」의 전반부는 비 내리던 월요일 아침, 비를 맞으며 담벼락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거지 할아버지와 빗물이 훑쳐 넘치는 쭈그러진 깡통, 짓궂은 아이들의 행동, 문방구 아주머니의 거친 입담 등을 ‘영이가 보고 들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비 내리던 날, 시인이 ‘보고 들었던 것들’을 영이라는 아이가 보고 들었다고 함으로써 ‘보고 들었던 것들’을 ‘영이의 심상’에 하나하나 중첩하여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은 시의 요소로 작용하는 감각적인 ‘부분 형상’을 더 큰 형상(전체 형상)으로 결집되게 하고 ‘영이는 여기서 무엇을 느끼고 보았을까?’와 같은 독자의 지적 여정을 자극한다.

나는 이 부분의 시적 형상화가 이 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형상화가 성공적일 때, ‘아침 자습을 마치고 영이는 교문 밖으로 나가 보았다’라는 구절과 맥락으로 연결되고 플롯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부분의 형상화는 ‘영이는 아침 자습 시간 내내 고민을 하였고, 마침내 자신의 초라한 비닐우산을 씌워 드리기로 했다’는 영이의 결심과 인과 관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적 형상화와는 달리, 그림책에서 ‘영이의 심상’을 그림으로 구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형상화를 요구한다. 여기서 그림작가 김재홍의 작가적 선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그림책의 ‘그림으로 이야기하기’는 영화적이다. 그림은 비 내리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객관적 관찰자인 카메라는 그것을 창문 너머로 바라본다. 영이는 창가에 있던 비닐우산을 쓰고 학교로 간다. 카메라는 영이를 따라간다. 그러다가 영이가 시멘트 담벼락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거지 할아버지를 보았을 때부터 카메라는 영이의 시선과 함께한다. 그러나 문방구 아주머니가 “미친 영감태기…….” 하고 욕을 해 댈 때, 카메라는 영이와 다시 분리되어 영이가 학교로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아주머니의 욕설은 ‘페이드아웃(fade-out)’ 된다. 여기까지 마치 하나의 ‘롱 쇼트(long short)’로 촬영된 듯하다.

그 다음 카메라는 비 내리는 등교 길바닥으로 전환한다. 아직 그 자리에 문방구 아주머니의 욕설이 울리고 있다. “영감태기 돼지지도 않고.”라고, 빗줄기가 거세게 내려친다. 카메라는 길바닥에 고정된 채로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 그 장소에 미련이 남은 듯이……。 물그림자에 영이의 모습이 살짝 보인다. 그리고 영이가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씌워 드리자 비로서 카메라는 영이를 따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카메라는 학교로 뛰어나가는 영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영이가 사라질 때까지 카메라는 ‘롱 테이크(long take)’ 한다. 그

리고 화면은 ‘페이드아웃’ 된다.

이처럼 ‘롱 쇼트’와 ‘롱 테이크’로 맥락에 맞게 움직이는 카메라는 비 내리는 골목길이라는 공간을 정의 내리고 깊이를 창조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비 내리는 골목길을 연이어 다섯 바닥이나 그려냄으로써 그 장면이 수 시간 동안 지속되는 듯이 느껴지도록 만들고 있다.

그림 작가는 여기서 무엇을 노린 것일까? 그는 ‘보고 들은 것들’을 각각의 분리된 화면에서 의미를 창조하기보다는 화면 내부에서 의미를 전달하기를 바란 것 같다. 그래서 그림 작가는 사건이 전개되는 공간, 즉 비 내리는 골목길을 통해 영이의 심상을 형상화하고, ‘아침 자습을 마치고’와 같은 시간 경과를 롱 테이크된 ‘비 내리는 길바닥’ 그림으로 의미를 전달하려 한 것 같다. 이러한 나의 짐작은 그가 사용한 ‘롱 쇼트’와 ‘롱 테이크’의 구성이 그림책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 그 중요성과 관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리 사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림 작가의 연출 의도였음이 확실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려면 그가 창조한 이야기의 시공간은 마치 현실의 환영처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림 작가는 여기서도 치밀함을 보인다. 그는 비 내리는 골목길을 흙을 붙여 질감을 살리는 마피에르로 그려내고, 물그림자를 이용해 영이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현실의 환영을 더욱 강화한다. 한 마디로 말해, 그의 리얼리즘 스타일의 그림과 미장센을 이용한 연출 기법이 탁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미장센 스타

일에서 프레임이 단순히 객관적인 관찰자인 카메라 앞에서 사건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시의 '3인칭 서술'과 '과거 서술'과 같은 시적 요소와도 잘 어울린다.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다른 그림책에서, 특히 글의 문학적 완성도가 높거나 이야기하기의 대부분을 글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 이런 종류의 그림책은 그림책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그러나 이 그림책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든 '그림으로 이야기하기'가 서툴다면 모를까 '그림으로 이야기하기'가 훌륭하고 이것이 독자의 감동을 자아 낸다면 칭찬받아 마땅한 그림책이 아닐까

『영이의 비닐우산』은 비를 맞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우산을 건네 주는 영이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시그림책 시리즈 여섯 번째 책입니다. 비 오는 아침의 풍경이 고스란합니다.

* 출처 : 열린어린이, [윤한구의 그림책 읽기], 윤한구 | 2005년 10월

서로 다른 관점을 교차 서술한 그림책

『넉 점 반』, 윤석중 글, 이영경 그림, 창비, 2004

『동물원』, 이수지 글·그림, 비룡소, 2004

그림책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건들은 언어적이거나 시각적인 기호들로 재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현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서술' 또는 '이야기하기'이다. 그림책의 서술은 말하지 않고서도 행위를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설과 다르다. 예를 들어 그림책 『넉 점 반』에서 “영감님 영감님 엄마가 시방 몇 시냐구요.” 하고 아기가 물었을 때, 그림 속 시계는 이미 ‘네 시 반’임을 독자에게 알려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순간 작중 인물인 아기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처럼 그림책이 말하지 않고도 행위를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보는 것과 작중 인물들이 본 것으로 간주되는 것 사이의 격차를 만든다. 그리고 이야기가 ‘누구의 관점을 서술하고 있는가’에 따라 독자가 서술 정보를 다르게 인지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렇다면 그림책에서 이야기는 ‘누구의 서술 관점을 서술하고 있는가’를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독자들은 그림책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당연해 보이는 이상 이런 질문을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순진한 독자에게조차 당연해 보이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보면, 그림책의 서술이 만들어 낸 다양한 의미들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이수지의 그림책 『동물원』은 이러한 문제 즉, ‘누구의 서술 관점을 재현하고 있는가’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대비시키고 이를 하나의 맥락으로 엮어 낸 그림책이다.

『동물원』에서 타이틀이 있는 첫 그림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동물원 입구 장면이다. 이 그림은 대부분 무채색으로 그려져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동물원’이라는 타이틀 밑에 공작새와 아이의 볼은 유채색으로 그려져 있다. 아이는 동물원 입구에서 풍선을 손에 든 채 공작새를 바라보고 있다. 이 시선은 독자

들에게 이 그림책의 이야기는 작중 인물인 아이의 관점에서 서술될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오늘 나는 엄마 아빠랑 동물원에 갔어요.”라는 글을 읽는 순간 이러한 추측은 올바른 것으로 확인된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아이의 관점, 즉 아이가 보고 겪고 상상한 것들이 서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글과 유채색으로 그려진 그림들로 재현된다. 아이는 공작새를 따라 동물들에게 가고 동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동물원은 정말 신나는 곳이에요.”라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만이 이 그림책의 이야기를 모두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동물원 입구 장면으로 가 보자.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물원에 들어가기 위해 분주하다. 동물원 안에서 아이들은 싸우거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고, 어른들은 사진을 찍거나 벤치에 걸터앉아 있고, 엄마 아빠는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게다가 회색빛 시멘트 건물, 촘촘한 철창, 동물에 무관심한 관람객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동물 우리에는 동물이 없다. 딱딱하고 단조로운 직선과 무채색으로 그려진 동물원 전경 그림은 동물원에 대한 작가의 단상을 드러낸다.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본 동물원 전경 안에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관찰자적 시각으로 담아낸다. 이는 작가 자신이 또 하나의 서술자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동물원 이야기를 강조하여 서술하지 않고, 오히려 작중 인물인 아이가 서술하는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부각시키고 의미를 강화하는 데 이용한다. 이는 주로 그림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내포적 서

술자인 작가가 말하는 현실의 세계는 회색빛 시멘트 건물과 촘촘한 철창으로 둘러싸인 동물 우리, 동물이 없는 동물 우리, 엇갈리는 시선, 무채색, 딱딱하고 단조로운 직선으로 그려진 반면, 명시적 서술자인 작중 인물 아이가 말하는 상상의 세계는 천연색, 거침없고 자유분방한 곡선, 함께 놀고 함께 즐기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의 맥락 안에서 통합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이수지의 『동물원』은 이 점에서도 적절한 효과를 구현하고 있다. 그는 명시적인 서술자인 아이와 내포적 서술자인 작가 자신이 서술의 주체를 넘겨주고, 넘겨받으면서 동일한 장소와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이야기를 균등하게 전개하고, 이를 하나의 맥락 안에 교차 편집함으로써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한다. 이를 위해 그림책 전체의 흐름은 글로 서술된 이야기의 순서를 따라간다. 아이가 ‘하마 수영장’에서 하마와 놀고 있을 때 엄마 아빠는 같은 장소에서 아이가 없어졌음을 알게 되고, 아이가 코끼리와 놀고 있을 때 엄마 아빠는 ‘코끼리 궁전’ 앞에서 아이를 찾아 헤맨다. 즉, 서로 다른 사건과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관점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 결과 사건들은 장소에 의해 하나의 문맥 안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아이의 웃이나 신발이 점점 채색된다. 이는 아이가 동물원 나들이를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이나 만족감 또는 동물과의 교감 등을 표현한 것으로, 아이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이야기를 진전시켜 나간다. 마침내 “동물원은 정말 신나는 곳이에요.”라는 글이 있는 그림에서는 아이는 활짝 웃고 있으며 고릴라는 아이가 잃어버린 빨간 신발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감이 아이의 상상만은 아니라

는 듯이, 먼지 그림에서 고릴라의 몸짓으로 이를 보충 기술한다.

한편 아이 신발이 아이와 동물들의 교감의 징표라면 공작 풍선은 엄마 아빠와 아이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무채색의 공작 풍선과 유채색의 신발은 시각적으로 대조적인 현실 세계와 상상의 세계를 넘나든다. 아이 신발은 무채색으로 그려진 현실 세계에서 더 두드러지고, 공작 풍선은 유채색으로 그려진 상상의 세계에서 더 두드러진다. 그리하여 독자의 시선을 끌면서도 하나의 문맥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이의 물건인 신발과 풍선은 『동물원』의 이야기가 작중 인물인 아이의 서술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 관점에서 볼 때, 작가 자신이 보고 느낀 동물원 전경은 배경처럼 보이게 된다.

종합하여 말하면, 이수지의 『동물원』은 명시적 서술자인 아이의 이야기와 내포적 서술자인 작가 자신의 동물원에 대한 단상을 하나의 이야기 속에 엮어 내면서, 현실과 상상의 공간을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대비시킨다. 또한 아이의 물건인 신발과 공작 풍선을 이용해 두 공간을 하나로 연결하고 그 잔상이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도록 했다. 이러한 서술 기법은 매우 유용하게 보인다. 그러나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이수지의 그림책이 밋밋하고 심심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이 작가는 『동물원』을 통해 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저 아이의 상상 속에 살아 있는 즐거운 동물원을 보여 주고 싶었던 것일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그림책의 이야기는 단조롭고 평이하다. 작가 자신의 동물원에 대한 단상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러나 이를 주

제라고 하기에는 이야기가 너무 불명확하고 가볍게 처리된 것 같다. 이는 앤서니 브라운의 『동물원』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독자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앤서니 브라운의 『동물원』도 가족의 동물원 나들이를 소재로 하고 있다. 그 역시 동물원에서 보고 느낀 바를 이야기한다. 그가 말하는 동물원은 자연의 다양함과 거룩함을 맛보게 하고 자연을 존중하게 만들 수 있는 배움의 장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야만성을 드러내는 곳이다. 우리 독자들은 이 그림책을 통해 동물원에 대한 작가의 성찰뿐만 아니라 인간과 동물에 대한 철학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독자들은 감동하고 깨달음을 얻는다. 한때 왜 이수지의 그림책은 나에게 이 같은 감정적 울림을 주지 못할까. 작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할지’에 대한 형식적 고민만큼, ‘하고자 한 이야기’에 대해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앞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말하는 것이다.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작가의 삶속에서 얻은 지혜나 철학에서 또는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는 작가의 시각 언어로 어떻게 독자와 소통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파생시킬 것이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 독자는 그 깊이로 감동받고 그 울림에 즐거움을 얻게 될 테니까.

아이들은 동물원에서 어떻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요? 『동물원』은 그 은밀하고 즐거운 놀이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동물원에 많은 인파가 모였지만, 희색

배경 속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표지 다음 그림이 암시하듯, 고릴라를 마지막으로 동물들이 우리를 빠져나가 동물원이 텅 비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린 소녀는 달한…….

* 출처 : 열린어린이, [윤한구의 그림책 읽기] 윤한구 | 2005년 03월

물이면서 물인 ‘겹침공간’ 염전의 산 풍경

『소금이 일어나는 물거울 염전』, 유종인 글, 박현우 사진, 놀와, 2007

“옛날은 염전이고 폐염전은 오늘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접두사인 ‘폐(閉)’가 붙여지기 전 생생한 날것으로서의 염전은 여전히 오롯하고 고귀하게 서해안 곡선을 따라 혹은 주변 섬 안쪽에서 마흔을 모르는 청춘으로 남아 있기는 하다. … 터전과 흔적마저 지워져 수십년 이상을 물사람들을 위해 소금을 대주던 염전의 이름은 오히려 낮설고 생경하기까지 하다. 소금은 자꾸 우리 곁에서 새로운 소금으로 일어나고 싶는데, 우리네 자본의 손길은 그런 소금을 자라고 거칠게 토닥인다. 소금창고를 버려두고 염전에 흙모래가 가라앉게 놔둔다. … 갈대숲 허리에 매달린 개개비새의 울음으로 소금의 전생과 그 유전을 묻는 곡절이 자못 곡비(哭婢)에 가깝다. 개개비는 저들의 등지를 틀게 된 폐염전 갈대숲이 어떨지 몰라도, 그 울음 속에 녹아 있는 어쩔 수 없는 소금의 함량은 여전히 새의 부리 속에 놓고 있는 햇바닥에도 작디작은 붉은 염전을 거느리고 있지 않겠는가.” (172~173쪽)

물이면서 물이고 물이면서 물인, 겹침공간 염전. 겹쳐 있다는 것은 이편이기도 저편이기도, 혹은 아무 편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그 ‘폐(閉)’는 진즉 예정된 것인가. 물에서 물로 염전의 물거울 표면을 파르르 흔들며 부는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려, 피약별 아래 늪은 염부들이 은빛 거울 속으로 침빙 들어가고 있다. 그들은 다시 물의 세계로 나올 수 있을까? 폐염전 한 귀퉁이에서 훗훗 거친 숨을 터뜨리는, 아직은 ‘살(殺)’이 아닌 산 풍경을 그린 책이다.

* 출처 : 책 읽는 경향, 이대건(학교도서관저널 편집위원) | 2010년 03월

4부 | 서평, 목소리가 들린다

그림책 서평

어린이 문학 서평

어린이 비문학 서평

313.8

그림책 서평

- ▶ 녹아 없어지는 달이라니... _ 문영신(부천 꿈어울도서관)
- ▶ 똑똑똑... 달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_ 이수경(평택 안중도서관)
- ▶ 나도 달 사베트 만들어 주세요! _ 최미화(하남 시립도서관)
- ▶ 엄마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돼? _ 김준섭(용인 수지도서관)
- ▶ '그냥' 있어주어서 감사합니다 _ 양지영(평택 지산초록도서관)
- ▶ 자기만 아는 꼬마숙녀 봄이, 세상을 보대! _ 이미화(군포 중앙도서관)
- ▶ 할아버지의 마지막 이벤트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_ 이수경(평택 안중도서관)
- ▶ 눈에 띄지는 않아도 우리를 버티게 하는 당연한 것들에 대한 고마움 _ 한선영(군포 중앙도서관)
- ▶ 낯은 어미와 기른 어미 사이, 진짜 '빠꾸기 엄마'는? _ 홍미정(화성 태안도서관)
- ▶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_ 김동관(남양주 별내도서관)
- ▶ 호랑이만큼 강하고 싶다 _ 김영희(성남 중원도서관)
- ▶ 두려움에 맞서는 능름한 장백이처럼! _ 한선영(군포 중앙도서관)
- ▶ 불치병 치료제 '눈물'! _ 이송자(경기도)

녹아 없어지는 달이라니...

문영신(부천 꿈여울도서관)

달을 소재로 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해와 달 이야기도 있고, 요새는 우주에 관련된 지식정보책에서도 달은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달에 대한 지식, 이미지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달이 떨어진다. 푹푹. 우연히 달이 떨어지는 모습을 본 주인공 할머니는 달 물을 받아 달 샤베트를 만든다. 달이 녹아 없어지자 집 잃은 옥토끼는 할머니의 아파트로 찾아온다. 할머니는 화분에 다시 달 물을 붓고, 거기서 자라난 달 맞이꽃에서 시작해 밤하늘에 달이 핀다. 달이 푹푹 녹아서 떨어진다는 설정이나, 그 떨어진 달 물로 샤베트를 만들기, 달이 사라져버려 갈 곳이 없어진 옥토끼의 방문, 달맞이꽃에서 다시 피어난 달 등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달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작가의 상상력이 돋보여 신선하다.

썩썩, 썩썩. 더운 여름날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는 마구 돌아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달이 녹았음을 작가는 암시한다. 그리고 이런 과도한 에너지의 사용으로 아파트도 결국 정전이 된다. 환경문제가 화두인 이 시대에 독자에게 이야기 속에서 문제를 제시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책은 푹푹, 썩썩, 썩썩, 썩썩 등 리듬감이 느껴지는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 그림을 보며 읽는 재미를 선사한다.



그림책인 이 책은 그 그림이 특이하다. 주 배경이 되는 아파트는 모형으로 만들었다. 커튼도, 창틀도, 방 내부의 물건들도 굉장히 사실적이면서 입체감이 살아 있다. 반면에 등장인물은 단면으로 표현했다. 배경 위에, 배경 사이에 스케치한 종이인형을 오려 붙여 넣었다. 배경과 인물의 질감이 이질적이면서도 각각의 특성이 살아 있다. 또한 캄캄한 밤을 표현한 검은 바탕에 달, 달 물, 달 맞이꽃, 조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노오란 빛의 퍼짐 효과는 리얼리티가 살아있다. 이러한 그림의 개성적인 표현이 다른 그림책과의 차이를 두어 독창성을 높인다.

이 책은 환경보호라는 이야기의 주제나 그림의 독창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림책의 주 독자층이 되는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에게도 꽤 좋은 책이다.

『달 사베트』, 백희나 글·그림, 스토리보울, 2010

똑똑똑... 달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이수경(평택 안중도서관)

‘이상한 날씨, 지구 온난화로 병드는 지구’라는 헤드라인의 신문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한파와 폭염, 홍수와 가뭄이 즐비한 전 세계의 기상재해를 설명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뿜고 있는 것이 기사의 주된 내용이었다. 조금만 추워지면 보일러를 쉴 새 없이 가동시키고, 조금만 더워지면 선풍기와 에어컨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 사회이다. 기사 내용에서 언급한 기상재해는 우리가 만들어낸 인과응보,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백희나 작가의 『달 샤베트』는 에너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더 이상 자연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자연을 사랑할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늘 곁에 있기에 소중함을 잊고 사는 환경의 중요성을, 몽환적이며 환상적인 이야기와 그림으로 풀어 나가고 있다.

달이 녹아 오갈 데 없는 노숙자의 신세가 된 토끼. 어쩔 수 없이 토끼는 반장 할머니의 집에 찾아오고 화분 속 꽃잎에 샤베트를 부어 달을 만드는 장면은 몽환적이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독자로 하여금 한껏 누릴 수 있게 만드는 명 장면이라 이야기 할만하다.

이 책에서는 “자연을 사랑하라, 환경을 소중히 여겨라.”식의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저, 너무 더운 날씨에 달이 녹아내리는 상황만을 설정



했을 뿐이다. 그러나, 달이 녹아내릴 만큼 더운 날씨를 만든 주범이 우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겨야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만들어 준다. 그래서 더 무겁고 크게 와 닿는다.

다가올 무더운 여름, 에어컨은 저만치 제쳐두고, 넓적한 부채와, 시원한 수박으로 더위를 이겨내 보는 것을 어떨까? 달이 녹아내리지 않게, 하늘 위에서 아주 오랫동안 선명하게 비칠 수 있게, 오늘부터 우리 모두 조그만 노력부터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달 사베트』, 백희나 글·그림, 스토리보울, 2010

나도 달 샤베트 만들어 주세요!

최미화(하남 시립도서관)

2005년 볼로냐 어린이 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뽑혔다는 이력은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을 손에 든 순간마다 묘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또 어떤 기발한 상상력으로 아이들을 사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랄까!

『달 샤베트』는 책표지를 넘기자마자 이야기가 시작된다.

“아주아주 무더운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잠도 오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밤, 잠자리에서 아이에게 이 부분을 읽어주는 모습을 잠시 상상해본다. 아마도 아이의 눈꺼풀을 뒤덮었던 잠은 멀찍이 달아나고, 얼른 다음 장을 읽어달라고 성화를 부리겠다 싶은 정도로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입부가 돋보인다.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너무너무’ 궁금할 테니 살짝 들여다보자. 무더운 여름밤, 반장 할머니는 너무 더워서 녹아내린 달 물을 받아 시원한 샤베트를 만든다. 전기를 너무 쓴 나머지 정전이 되어버려 갑자기 어두컴컴해진 세상, 깜짝 놀란 동네 사람들 모두 밖으로 나와 노란빛이 새어나오는 반장 할머니의 집으로 모여든다. 그러자 반장 할머니는 모두에게 시원한 샤베트를 나눠준다. 샤베트를 먹은 동네 사람들은 거짓말처럼



시원해져서 선풍기도 에어컨도 안 틀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기분 좋은 잠을 청한다.

이 이야기를 작가는 인형의 집을 만들어 사진으로 촬영하는 기법으로 표현한다. 그림책 속 세상에 사는 종이 인형은 잠도 자고, TV도 보고,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도 한다. 작은 공간에 세밀하게 표현된 동물 캐릭터의 움직임이 생생하다. 또한 각 장면은 원색은 자제하고 어둠과 빛을 표현하기 위해 검은색과 노란색을 적절히 사용하여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특히 정말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노란색은 과연 어떻게 효과를 냈을까 궁금하다. 이야기 글은 푹푹, 썩썩, 푹푹, 웅웅 등 의성어와 의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아이들이 따라 하기 좋게끔 써낸 점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구름에 이어 달까지 먹을거리로 만들어낸 작가의 요리 실력은 감탄할 만하다.

이제 그림책을 덮고 도입부를 읽으며 했던 상상의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본다. 쏟아지는 잠을 꼭 눌러 참고 ‘썩썩, 썩썩, 웅웅’ 따라 읽으며 『달 사베트』의 마지막 장까지 모두 본 아이가 “엄마, 나도 달 사베트 만들어주세요!” 한다면? 이 그림책을 읽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다. 기분 좋은 걱정이다. 이 그림책 덕분에 아이의 상상력이 한 움큼 크게 된다면 걱정은 뒤로 미루고 매일 밤, 잠자리에서 읽어주면 좋겠다.

『달 사베트』, 백희나 글·그림, 스토리보울, 2010

엄마!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돼?

김준섭(용인 수지도서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때때로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 가령 우리에게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체계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식'에 대한 돌발질문이 엄마들을 꽤 당황시키곤 한다.

여기 소개할 제10회 보림창작그림책공모전 수상작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아이들이라면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아이의 시선으로 유쾌하게 알려주는 그림책이다.

이야기의 주인공 봄이는 바람 때문에 자신이 모자가 날아가자 바람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실망한 바람이 멈추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 봄이는 자신의 욕심으로 주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이를 겪으며 바람의 중요성을 인지하게끔 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그런데 이 그림책이 특별한 것은 그림의 구성과 표현이 신인작가 특유의 참신성과 독창성으로 버무려져 있다는 점이다.

그림책에 있어서 한 장의 그림은 부족한 텍스트의 정보를 메워주거나 때로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끌고 가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며 작가는 다양한 미술기법으로 그것을 표현해 내게 된다.

이 책의 표지를 보자. 작가는 주인공 봄이를 고원법으로 화면 가득 채워 넣었다. 사진으로 말하자면 로우앵글 처리인데 이러한 기법은 인물을 부각하고 그 인물의 자신감과 우월한 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흔히 쓰이는 기법이다.

표지를 접한 독자들로 하여금 봄이가 자존감이 높으며 고집이 센 소녀라는



첫인상을 받게끔 의도적으로 연출된 화면이다.

이런 자신만만한 봄이의 모습은 자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고통 받는 이웃들이 늘어날수록 점점 작게 표현되고, 결국 이야기의 절정부분에는 화면의 한 귀퉁이에 초라하게 그려진다. 다시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마지막 모습의 봄이는 처음처럼 화면의 정중앙에 배치되는데 이를 통하여 작가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크기 즉 원근의 느낌으로 텍스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해 내었다.

이 작품에서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은 텍스트의 시각화라 볼 수 있다. 바람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모자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봄이의 입에서 나온 '바람 따위는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텍스트를 점점 큰 활자로 바뀌어 가는 모습으로 시각화시켜 인물의 심리상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나, 마지막 부분인 '그리고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텍스트에서는 글자에 곡률을 주어 바람 때문에 글자가 휘날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는데, 이는 내용을 설명하는 글도 그림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참신한 시도로 해석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람이 불지 않아 풍차방앗간이 멈추고 다음 장에 마을도 멈춰 섰다는 내용을 표현한 부분인데, 마을이 멈춰 섰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작가는 전장에 사용한 풍차를 다시 등장시키는 우를 범한다. 이는 그동안 점진적으로 고조된 '바람이 멈추었다' 라는 느낌을 반감시키는 역효과로 작용한다. 차라리 이 장면을 다른 그림으로 표현했다면 어땠을까? 가령 펄럭이지

않는 학교의 깃발이라던 지, 시원한 바람이 불지 않아 바다에 주저앉아 힘들어 하는 일꾼들로 마을이 멈춘 것을 표현했더라면, 그림책을 읽는 독자의 호흡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런 결말로 이르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이야기의 참신성과 그림책의 본령인 그림에 대한 새로운 구성과 시도로 높은 점수를 줄만한 가치가 있는 수작으로 평가할 만하다.

작가의 다음 작품이 기다려진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서한얼 글·그림, 보림, 2010

‘그냥’ 있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양지영(평택 지산초록도서관)

항상 있어 주어서, 부족함을 몰라서,
그냥 당연하게 여기기만 했던 것들.
공기, 물, 바람, 수많은 생명체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유와 의미가 있다 했던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 주어서 고맙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 더욱 소중하고,
그것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위대하고,
그래서, 있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주인공 봄이는 모자를 날아가 버리게 한 바람에게 “바람 따위는 없었으면 좋겠어!”라며 소리치지만 막상 바람이 사라져 멈춰버린 세상의 고요함에 당황하고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자신의 투정으로 인해 사라져버린 바람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며, 다시 불어준 소중한 바람을 두 팔 벌려 한껏 느끼는 봄이가 한 없이 사랑스럽다. 봄이의 감정에 따른 미세한 표정 변화도 놓칠 수 없는 귀여움이다. 없어봐야 아쉬움을 느끼고 없어봐야 소중함을 알게 되는 사람의 마음을 봄이의 어린아이다운 단순함과 순수함을 통하여 앙증맞게 표현하고 있다.

보송보송한 색감과 여유 있는 여백은 편안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그림을 감상하게 해주며 섬세하고 부드럽게 선을 표현하여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사랑살랑~ 청결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하다.

무엇보다 이 그림책의 강점은 ‘글밥’에 있다. 문장이 짧고 간결하며 수식어의 사용도 적다. 그림을 설명하는 보조 역할을 할 뿐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묘사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면 원래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기란 쉽지 않은데 위와 같은 문장은 어떤 언어로 번역하더라도 원본의 느낌을 충분히 전달하기에 무리가 없다. 풍차방앗간, 마을 풍경 등 다소 이국적인 배경의 모습에서 특정 지역의 냄새를 느끼기 어렵고, 봄이의 모습도 동양인이라기보다 자그맣고 둥그란 귀여운 ‘어린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동물(곰)을 등장시켜 특정 인종의 표현을 무마시켜 주어 보편적으로 거부감 없이 감상할 수 있는 그림이다. 이처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글과 그림의 강점을 한껏 발휘하여 다양한 나라로 수출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림책이 되길 바란다.

아이와 함께 독후활동을 원한다면 ‘없다’ 놀이는 어떻게?

아이가 싫어하던 것들을 열거 한 후 ‘--가 없다면’ 상상하여 이야기를 해보자. 야채, 지렁이, 파리, 똥, 엄마(?) 등 마음껏 열거하고 만약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고 미약하게나마 부재의 고통과 당황스러움을 느끼면 봄이와 마찬가지로 ‘있어주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찮아 보이고 불필요해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세상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깨달을 것이다. 한 차원 더 이끌어 ‘내가 없다면’을 상상



한다면, 자신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시간을 더불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을 가지고 그것의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예를 들어 ‘눈이 내려요’ 하나의 현상을 던져주고 그것이 일으키는 여러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눈이 내리면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세상을 하얗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지만 반면 도로가 미끄러워져 사고를 유발시키며 산사태와 기물파손의 우려도 함께 야기된다. 하나의 현상에 대립하는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며 좀 더 포괄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투덜이’, 매사가 반항적인 ‘삐딱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해 우습게만 생각하는 ‘아이어른’에게 대부분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는 귀한 시간을 선물하는 그림책 『바람이 불지 않으면』이다.

해는 지고 떠야 하며, 바람은 불어야 하며, 물은 흘러야 하고, 꽃은 피워야 하며, 열매는 맺어야 하고, 그렇게 그냥 있어주고 움직여 주어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서한열 글·그림, 보림, 2010

자기만 아는 꼬마숙녀 봄이, 세상을 보다!

이미화(군포 중앙도서관)

빨간 모자를 쓰고 파란 원피스를 입고 심술궂은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는 한 소녀가 보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봄이입니다. 지나가던 바람이 세계 불자 봄이 모자가 날아갑니다. 또 모자가 바람에 날리자 모자를 잡으려고 애쓰던 봄이는 화가 나서 “바람 따위는 없어졌으면 좋겠어!”하고 소리칩니다. 글자 크기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봄이가 크게 소리 지르는 느낌을 줍니다. 봄이의 화난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신기하게 멈춘 바람은 곱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날아오르는 연을 멈추게 하고 마을의 배도 풍차방앗간도 모두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 봄이는 모자를 벗어 주변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희망대로 멈춘 바람으로 주변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젠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무엇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바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합니다.

표지의 첫 그림의 당당하고 새초롬한 표정의 봄이에서, 바람에 따라 날아가는 모자를 쫓는 화가 난 봄이의 표정,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람이 멈추자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 같은 표정 그리고 “바람아 미안해 네가 필요해.” 라고 말하자 다시 불어오는 바람에 심술궂고 입을 꼭 다문 표정의 봄이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미소를 머금고 맑고 순수한 봄이로 다양한 표정의 변화를 섬세하게 그려내어 통해 독자로 하여금 봄이의 마음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아이들은 대개 봄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이기 마련인데 자신이 싫다고 거부한 것을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과 타인에 대한 생각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제목에서의 불어오는 바람이 봄이의 표정으로, 흔들리는 나뭇잎으로, 움직이는 빨간 모자로 책 한가득 느껴지는 그림책!!

만약 사랑거리의 시원한 바람이 멈춘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덥고 예쁘고 하얀 구름도 움직이지 않고 재미있게 가지고 놀던 바람개비도 멈추게 되어 슬퍼하지 않을까요? 정말 바람이 멈추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서한얼 글·그림, 보림, 2010

할아버지의 마지막 이벤트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수경(평택 안중도서관)

20대 중반 나이에든 불구하고, 죽음이란 단어는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생소하기만 하다. 친한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유명 스님과 유명 작가의 타계 소식을 접했을 때도 죽음이란 단어는 그저 안타깝고, 씁쓸할 뿐, 나에게겐 여전히 생소하고 낯선 단어다.

아이들로부터 '죽음'을 멀리 두려는 어른들 탓에, 요즘 아이들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는 더욱 더 낯설고, 생소하지 않을까. 장례식장에서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에서나,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아이들에게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는 듯하다.

유은실 작가의 『마지막 이벤트』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이라는 상황 설정을 통해, 죽음이 갖는 의미와 상황을 화자 영욱의 시선으로 조근조근 이야기해 나가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할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심리를, 영욱이라는 화자를 통해 생생하게 표현해나간다. 또한 죽음과 함께 찾아오는 후회와 좌절, 상실감을 어린아이 특유의 시선으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화자 영욱은 활병수 세 병을 사오라고 한 할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것 같아 혼자 가슴 아파한다. 아빠에게 천덕꾸러기



로 찍힌 영육에게 무한한 애정을 쏟아준 할아버지의 죽음이라, 더욱 그(할아버지)의 부탁을 거절 했다는 죄책감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슬픔이 뒤섞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이야기해 나간다.

영원히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사람이기에, 그래서 더욱 더 보고 싶고 그리워하게 된다. 소통의 대상이었던 할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작가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저 멀리하고 기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한층 성숙하게 만들어 줄 매개라고 말한다. 죽음을 통한 가족 사이 사랑과 화해를 이야기하면서, 산 사람과 남아 있는 사람끼리 후회와 용서를 따뜻한 시선으로 이야기해 나간다.

할아버지의 특별한 마지막 이벤트, 그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이야기 속에 숨진 작은 이벤트 속으로 차근차근 걸어 들어가 보자.

『마지막 이벤트』, 유은실 지음 · 양경희 그림, 바람의 아이들, 2010

눈에 띄지는 않아도 우리를 버티게 하는 당연한 것들에 대한 고마움

한선영(군포 중앙도서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들이 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 존재가 없어져야 비로소 소중하다고 깨닫는다. 그래도 다행히 어른보다 아이들이 작은 것에 대해 더 소중해하고 고마워한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래하지 않는 피아노』, 『달 샤페트』 같은 그림책이, 책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지만 인식하지 않고 지냈던 것들의 존재의 소중함을 알려 주고 있다. 이렇듯 당연하다 느끼며 그 소중함을 잊었던 바람에 대한 고마움을 한껏 표현한 책 『바람이 불지 않으면』을 들여다보자.

이 책은 제10회 ‘보림창작그림책 공모전’의 우수상 수상작이다. 자기만 알던 아이 봄이가 바람을 통해 주변과 세상을 알아가게 되는 모습을 그린 그림책이다.

제일 좋아하는 모자를 쓰고 걸어가던 봄이는 바람에 모자가 날아가자 화가나 “바람 따위는 없어졌으면 좋겠어!”라고 소리친다. 봄이의 말에 바람이 슬퍼서 멈추고, 날아가던 연도 멈추고, 풍차방앗간도, 마을도, 배도 다 멈춰버린다. 봄이의 말에 슬퍼서 멈춘 바람처럼 연을 날리던 곰들의 슬픔, 곡식을 쌓아야 하는 이들이 풍차방앗간에 들렸지만 빵지 못하고 빈손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모자를 벗은 봄이에게 보이기 시작한다. 자기 때문에 멈춘 바람으로 인해 슬퍼하는 다른 이들에게 미안해하던 봄이의 마음은 잔잔히 변화를 보이고, 비로소 작은 소리로 “바람아, 미안해. 네가 필요해.” 하고 사과한다. 그러자 봄이는 다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미소를 짓는다. 자기만 알던 아이에서 주변을 살피고 사과와 용서를 할 줄 아는 아이로 바뀌어가는 것이다.

짧은 그림책이지만 아름다운 그림과 어우러진 글자 말고도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한다.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봄이의 머리카락, 곰의 털, 들판의 풀, 연줄의 모습은 실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을 충분히 전달해준다. 봄이의 표정, 위치, 크기, 미세하게 표현한 색의 변화는 바람으로 인해 바뀌어가는 봄이의 심리를 잘 표현한다.

글 또한 전체적으로 짧고 간결하지만 바람이 불 때는 위에, 바람이 멈췄을 때는 중간이나 아래에 놓였고 마지막엔 글을 바람이 날리는 듯이 표현하여, 글의 위치를 통한 바람의 시각적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보여 준다.

글과 그림에서, 이야기에서 차근차근 주인공의 심리변화를 풀어가고 있지만 아쉬운 점이 눈에 띈다. 섬세하고 아름답게 그려진 그림이지만 바람의 실용성을 표현하기 위해 설정한 풍차방앗간, 유럽풍 돛단배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아 보이지만 이러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아이들이 궁금해 할 수도 있다. 연은 보이지 않고 연줄만 보이는 구성도 아이들에게는 '연은 왜 보이지 않느냐'는 물음을 갖게 할 것이다.

더 아쉬운 점은 표지에 등장하는 봄이이다. 표지 속 봄이는 좋아하는 모자

를 쓴 기쁨도,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해 속상해 하는 것도 알 수가 없다. 주제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바람에 모자가 날아가는 장면’이나 ‘다시 부는 시원한 여름바람에 행복해하는 장면’을 표지로 정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5세 이상의 유아라면 책을 읽고 나서의 남은 약간의 아쉬움을 다음과 같은 책놀이로 연계 할 수 있어 더 적합한 독자가 될 수 있다. 책을 읽은 후 아이와 함께 ‘○○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가 있어서 고마운 점은 뭘까?’ 등의 질문을 주고받으며 독후활동에 빠져보자. 없어지면 안 될 무엇, 있어서 고마운 무엇, 아이들은 무엇을 손에 꼽을까? 아이들이 바람뿐만이 아니라 만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 책을 만나서 얻는 멋진 선물 하나가 될 것이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서한얼 글·그림, 보림, 2010

낳은 어미와 기른 어미 사이, 진짜 ‘빼꾸기 엄마’ 는?

홍미정(화성 태안도서관)

자신의 새끼를 자신이 기르지 않고 남의 둥지에 맡겨버리는 알미운 새가 있습니다. 바로 빼꾸기지요. 몇 년 전 TV에서 우연히 보게 된 빼꾸기의 탁란 동영상은 제법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의 둥지에 새끼를 낳아놓은 것도 알미운데, 그 새끼란 놈은 채 눈을 뜨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른 알들을 둥지 밖으로 가차 없이 밀어냅니다. 둥지 주인의 소중한 알들은 높은 둥지에서 떨어져 허망하게 깨져 버리고 말지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삐꾹삐꾹’ 구슬픈 울음소리를 들려주던 새가 실은 아주 잔인한 새였다는 것어요.

정말 그럴까요? 빼꾸기의 이러한 행동에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습니다. 빼꾸기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른 새들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생태계의 적절한 개체 수 조절의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자연의 섭리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잔인해 보이는 빼꾸기 새끼의 행동도 본능에 따른 자연스런 행동이구요.

『빼꾸기 엄마』는 바로 이러한 자연 생태계 현상을 간결한 문장과 ‘콜라주’ 기법으로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작가는 이 기법을 통해 한 장면 한 장면을 마치 영화처럼 극적으로 연출하고 있어, 읽는 사람을 잔뜩 긴장시키고 나아가 재미를 한 층 더해줍니다. 감쪽지와 나뭇가지로 표현한 어미 새의 모습, 거즈 문양의 나무, 화선지로 털의 느낌을 제대로 살린 여우와 새끼 빼꾸기 등, 다



양한 소재를 활용한 '콜라주' 기법을 눈여겨봐 주세요. 이 책을 즐기는 방법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한가지니까요.

『빠꾸기 엄마』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빠꾸기 엄마』는 빠꾸기의 생태를 모티브로 했지만 생태를 그대로 담아 보여주는데 머무르지 않아요. 주인공 엄마 새에게 감정을 이입시켜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선의로 품어준 빠꾸기 새끼가 자신의 알을 깨뜨린 것을 알게 된 엄마 새는 슬퍼하고 분노하게 되지만, 천진한 빠꾸기 새끼를 차마 외면하지 못합니다. 엄마 새가 눈물을 흘리며 빠꾸기 새끼에게 다가가는 장면, 『빠꾸기 엄마』로서 열심히 먹이를 물어 나르는 엄마 새의 모습이 담긴 마지막 장면은 애잔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선과 악이라는 가치판단을 뛰어넘어 생명을 감싸 안는 모성의 힘은 참으로 위대해보입니다. 자연은 이처럼, 사랑은 이처럼, 놀라운 마법과도 같습니다.

이 그림책을 통하여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빠꾸기 엄마』를 한번 만나보세요. 덤으로 멋진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행운도 얻으시고요!

『빠꾸기 엄마』, 이형진 글·그림, 느림보, 2010

“여우야, 여우야 – 뭐하니?”

김동관(남양주 별내도서관)

책표지속의 흰 여우가 너무 예뻐서 여우에게 혼을 빼앗길 것 같은 책, 『아이여우다』. 표지 속의 하얀 얼굴의 여우와 주인공아이 그리고 아이의 발아래 있는 구렁이에게 무슨 일이?

이 책은 초등학교 교사인 작가가 자신의 어릴 적 겪었던 일을 이야기로 쓴 것이다. 농사일이 없는 겨울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기간이다. 시골아이들에겐 집 밖으로 나가면 모든 곳이 놀이터였던 시절. 주인공 아이는 엉뚱한 생각에 빠지거나 꿈지럭거리며 혼자 놀기를 좋아한다. 몸이 허약해 아이들이 자치기며 여러 놀이를 할 때도 잘 끼지 못하지만 전혀 심심하지 않고 즐겁게 논다. 땅에 낙서를 하고 또 지우고, 돌맹이나 사슴파리를 돌려 맞추기도 하고, 미루나무 가지 끝에 걸린 구름을 보곤 한다.

그런 아이가 혼자 몸을 녹이러 ‘외따리’라는 오두막에 들어갔다가 구렁이를 만나게 된다. 아이는 깜짝 놀랐지만 오두막에 사는 할머니는 구렁이를 달래 밖으로 내보낸다. 하얗게 눈이 내리는 날, 아이는 여우와 눈이 딱 마주친다. “아이여우다.” 너무나 예쁜 여우의 눈빛과 마주치는데…….

이 책은 자연과 어우러져 뛰놀던 옛 어린이들의 모습을 질감 있는 유화그림으로 표현했다. 아이들이 편을 나누어 자치기하는 모습, 주인공아이의 낙서하는 모습이나 돌맹이를 가지고 노는 모습 등 지금의 아이들에겐 생소한 시골아이들의 놀이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추수가 끝나고 눈으로 덮인 시골의 추운 겨울 풍경을 붓의 질감을 통해



부드럽고 따스한 느낌으로 멋들어지게 살려낸 그림과 더불어 이 책의 특징은 “에구, 이 바람 찬 날에 뭐 할라고 나오셨는교. 가뜩이나 약한 아 혼 나간 거 보소. 그라이 마 노여움 풀고 그냥 가던 길 가이소.”라는 대사로 할머니가 집안 서까래에 나타난 구렁이를 자분자분 달래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사용한 구수한 사투리인데 이 대목은 흡사 윤희길 씨의 소설 “장마”에서 나오는 내용과 비슷하다.

이는 작가들이 샤머니즘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생명체를 지식이나 정보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숨 쉬며 살아가야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다.

책을 읽으며 아쉬웠던 부분은 사투리를 정겹게 사용하는 건 좋았지만 ‘꼴을 벤다’, ‘논배미’, ‘사금파리’, ‘할머니의 대사’ 등에서 사용한 생소한 단어, 사투리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어 이 말들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준다는 점이다.

농촌에서 자연과 어우러져 뛰놀던 옛 어린이들의 모습을 구수하고 정겹게 표현하여 책 속에 고스란히 담아 어른 세대들이 겪은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을 따뜻함과 그리움의 세계로 이끄는 책 『아! 여우다』이다.

『아! 여우다』, 김일광 글·장호 그림, 고인돌, 2010

호랑이만큼 강하고 싶다

김영희(성남 중원도서관)

겨레의 동물 호랑이. 우리 민족은 호랑이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첫 장을 넘기자 호랑이 앞부분이 한 번 가득하다. 호랑이 모습을 이 그림책에서는 인간과 대비해서 크게 그렸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옛날에는 호랑이가 궁궐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동네 송아지도 물어갈 정도로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다. 팔뚝들을 잘 던지는 장백이는 영실이네 송아지를 물어 간 호랑이를 잡겠다고 산으로 간다. 거기에서 포수와 만나 호랑이의 습성에 대해 듣는다. 또한 호랑이 대처방법에 대한 옛 어른들의 지혜도 이 그림책을 통해서 알게 된다. 과연 장백이는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에는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곧 담장을 넘어 올 것만 같은 무서움이 있었다. 때로는 우러러보기도 하고 당당하고 의젓한 모습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용맹스러움도 닮고 싶어 했다.

이 호랑이 이야기를 통해 결코 호랑이는 무섭기만 한 동물이 아니란 걸 말한다. 한편 장백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호랑이만큼 빠르고, 용감하고 잘 달리는 어른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그림책은 유아를 위한 책이지만 책 뒷부분의 '한 걸음 더'라는 페이지로 어린이들에게도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 호랑이 잡는



방법, 호랑이가 어디로 갔는지 등의 정보가 있다. 또한 이 책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며 옛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어이쿠나 호랑이다』, 임정진 글 · 김홍모 그림, 웅진주니어, 2010

두려움에 맞서는 늑대한 장백이처럼!

한선영(군포 중앙도서관)

지금의 호랑이는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우리 안에서 사육되는 호랑이지만, 우리 선조들의 생활 속에서 호랑이는 어땠을까? 옛이야기 속 단골 등장인물인 호랑이가 실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책 『어이쿠나 호랑이다!』 호랑이 사냥에 나서는 주인공 장백이의 씩씩하고 용감한 모습이 책 전체를 아우르며 아이들에게 다가온다.

우리 옛사람들의 생활, 역사와 문화를 재미난 이야기로 소개하는 그림책인 달·마루 시리즈의 네 번째 이야기인 『어이쿠나 호랑이다』는 옛날 우리 땅에서 선조들과 함께 살았던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와 호랑이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오랜 세월 한반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 숨 쉬며 한편으로 싸움상대가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호랑이.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해 온 겨레의 동물 호랑이는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동물인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동물이다. 전쟁, 전염병만큼이나 공포의 대상이었던 호랑이는 짐승뿐 아니라 사람까지도 해쳤기 때문에 호랑이와 사람 사이의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옛사람들이 호랑이사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에는 옛사람들의 삶과 생각에 그 호랑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나라와 민간에서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있게 담겨 있다.

『어이쿠나 호랑이다』 속에서 팔뚝들 던지는 솜씨가 으뜸인 개구쟁이 장백이는 좋아하는 영실이네 송아지를 호랑이가 물어가지, 슬퍼하는 영실이를 위해 크면 꼭 호랑이를 잡아주겠다고 약속한다. 때마침 호랑이를 잡으면 큰 상을 내리겠다는 임금님의 방도 붙는다. 호랑이를 잡아 오는 사냥꾼 아저씨들을 보며 장백이는 커서 두려울 게 없는 용맹한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책 속 부록으로 엮인 ‘한 걸음 더’에 수록된 호랑이에 관한 정보는 책을 읽고 호랑이, 호랑이 사냥에 궁금해 할 독자들이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을 준다.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김홍모 작가의 그림은 힘 있는 굵은 선으로 담백한 그림으로 옛이야기의 느낌을 한껏 살려냈다. 동글동글한 아이들의 모습은 익살스러우면서도 동네 개구쟁이의 느낌이 가득하다. 표지에 그려진 집채만 한 호랑이와 깜짝 놀라 달아나는 아이들의 모습, 이야기 첫 페이지의 궁궐에 나타난 호랑이와 놀라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그림의 실체감이 커서, “어이쿠나! 호랑이다, 달아나자!”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무겁지 않은 그림이기에 하얀 눈썹, 매서운 눈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호랑이의 모습은 적당히 무서워서 아이들이 호랑이에 대한 거부감이 안 들게 하지만 거꾸로 호랑이를 잡아야 하는 당위성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옛이야기를 하는 듯이 써 내려간 말투는 읽는 아이들에게 흥미진진함을 잘 전달해준다. 장백이가 직접 호랑이를 잡지는 못했지만 “장백이도 호랑이처럼 크고, 호랑이처럼 용맹한 어른이 될 거야.” 노래를 부르며 마을을 누비는 모습은 언젠가는 자신들도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늠름하고 용감한 어른이 될 것이라는 포부가 느껴져 우리 어린이들도 장백이처럼 두려움을 이겨 씩씩한 모습으로 자라고 싶어진다.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호랑이,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아프리카 밀림 속의 호랑이를 접하는 우리의 어린이들이 이 책을 덮을 때쯤은 ‘아! 호랑이가 이런 존재였구나,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나도 장백이처럼 호랑이, 아니 더 무서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린이가 되어야지!’ 하고 다짐하는 어린이가 그려진다. 7세,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어린이라면 충분히 흥미롭게 이 책을 읽을 것이다.

『어이쿠나 호랑이다』, 임정진 글 · 김홍모 그림, 웅진주니어, 2010

불치병 치료제 ‘눈물’!

이송자(경기도)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옛날 어느 마을에 사람들의 가슴이 얼음덩이처럼 꽁꽁 얼어붙는 무서운 돌림 병이 돌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싫어하면서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가슴을 녹이기 위해 약을 찾기 위해 떠났다. 깊은 산속에서 울보 바보를 만났다. 울보 바보는 다치고 가엾고 여리고 외롭고 늙고 성내고 쌀쌀한 마음을 불쌍하게 여기는 귀한 마음을 온전히 갖고 있는 아이다. 이 아이는 할아버지의 울음보를 터뜨리게 한다. 물어본지 너무도 오래되어 어떻게 울어야 할지도 잊고 있었던 할아버지를.

우리는 흔히 눈물은 약자의 상징으로 교육받아 왔다. 특히 남자들에게 눈물은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울 수 있다는 것은 내면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자기를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마음을 털어 놓게 된다. 마음을 털어 놓는 것이 바로 울 수 있다는 것이다.

순진한 어린이들은 속상하거나, 혼나거나, 무서울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흔히 운다. 속마음을 눈물로 드러내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울지 않는 아이들은 마음의 병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속마음을 나타내는 아이에게 눈물의 가치를 알려준다면 감정에 충실한 아이로 자라지 않을



까? 또한 사람 사는 세상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이들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일본에서 그림 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홍영우 화백의 만화경 같은 익살스러운 풍경들은 우화 같은 이야기 느낌을 주어 어린이에게 더욱 친근감을 주는 그림책이다.

주변에 울보 아이가 있습니까? 눈물은 약자의 상징이 아닌 마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것이니 소중한 것이라 말하면서 이 책을 권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공부하느라 마음이 얼어붙어 자신의 내면을 꼭꼭 채우고 있는 어린이에게, 또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못한 엄마, 아빠도 이 책을 함께 읽고 눈물의 가치를 온 가족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울보 바보 이야기』, 윤구병 글 · 홍영우 그림, 휴먼서어린이, 2010

어린이 문학 서평

- ▶ 아파도 아파도 한 뼨씩 자라는, 미순이의 성장기 _ 문영신(부천 꿈여울도서관)
- ▶ 모든 버려진 생명을 위한 희망의 인사, 굿모닝! _ 김준섭(용인 수지도서관)
- ▶ 굿모닝? 굿모닝! 우리 같이 주위를 돌아볼까? _ 이미화(군포 중앙도서관)
- ▶ 마지막 이벤트에 초대합니다! _ 최미화(하남 시립도서관)
- ▶ 나의 이름 속 감춰진 비밀, 너에게만 알려줄게! _ 이수경(평택 안중도서관)
- ▶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_ 최미화(하남 시립도서관)
- ▶ 소심쟁이 소녀의 아지트에 초대합니다 _ 양지영(평택 지산초록도서관)
- ▶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까 _ 김영희(성남 중원도서관)
- ▶ 사랑은 누구 편? _ 임혜진(평택 시립도서관)
- ▶ 내일 엄마는 싫어요! 오늘 엄마가 되어주세요! _ 홍미정(화성 태안도서관)
- ▶ '=ㅁ', 우리는 늘 관계의 빈칸을 채우며 산다 _ 임혜진(평택 시립도서관)
- ▶ 다정이, 어디에서든 힘내라 _ 김영희(성남 중원도서관)
- ▶ 우정으로 성장하는 두 아이, 멀리 있어도 함께 마음속에는 늘 함께! _ 한선영(군포 중앙도서관)

아파도 아파도 한 뼉씩 자라는, 미순이의 성장기

문영신(부천 꿈여울도서관)

주인공인 미순이는 이불가게에 불이 나는 바람에 빗쟁이들을 피해 외지로 돈 벌러 나간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산다. 한창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커야 할 미순이는 엄마, 아빠가 없다고 마냥 투정부리지 않는다. 누구보다 굳세다.

동화책 미순이의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아픔을 갖고 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살 수 밖에 없는 미순이, 아들 광호를 잃은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지 달근이, 기동서방 때문에 자살 시도를 했던 다방 마담 유진이 엄마, 아빠 없이 사는 유진이. 그렇지만 책의 내용이 한없이 우울하고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도우며 꾀꾀하게 살아간다. 빗 독촉을 하러 온 아줌마와 싸우는 미순이가 아줌마에게 떠밀려 넘어진 작은엄마와 함께 자장면 사먹는 장면에서 잘 나타난다.

이 책의 장점은 대화의 재미이다.

“몰라? 할아버지 화투쟁이, 똥쟁이인 거?”

“저년, 못 하는 소리가 없네!”

위와 같이 미순이가 할머니와 티격태격하는 말싸움이 자주 등장하는데 할머니도 미순이도 구수한 욕을 섞어가며 현실감 있는 대화로 읽는 재미를 선사한다.

책의 제목이 미순이다. 미순이를 수식하는 어떤 단어도 없다.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 미순이에 대해서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표지의 그림을 보면 ‘아! 왈가닥이면서 개구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림에서 미순이의 캐릭터를 잘 표현해 이해를 돕는다. 책 사이 적절히 삽입된 그림들도 그렇다.

이 책은 어른들에게 향수를 자극한다. 요새 아이들에게는 낯선 오이 밭 서리, 망태아저씨, 부대 앞 다방 마담, 티브이에서 나오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코너 등 이야기의 배경과 사건들이 어른이 공감할 수 있는 조금은 옛 시절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화책의 주 독자층이 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미순이에 공감하며 재미있게 읽어나갈 지는 미지수이다.

『미순이』, 이미영 글 · 한은옥 그림, 실천문학사, 2010

모든 버려진 생명을 위한 희망의 인사, 굿모닝!

김준섭(용인 수지도서관)

최근 텔레비전을 보다보면 주인에게 버림받아 길거리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동물들과,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쓸히 혼자 폐지를 주우며 살아가는 독거노인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버려진 동물과 독거노인들이 많다는 반증일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현상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굿모닝, 굿모닝?』은 불속에 뛰어들어 주인을 구하지만 흥측하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개 태풍이와,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폐지를 주우며 무료급식소에서 주는 밥 한 끼로 살아가는 쪽방 할아버지의 만남을 소재로 한 이야기다.

비록 반만 진돗개의 혈통이지만 주인을 향한 충성심만큼은 그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은 태풍은 공원에서 아저씨와 공놀이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버려진다. 그러나 태풍은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주인과 헤어졌던 그 공원 한편의 무료급식소에서 태풍은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할아버지는 태풍에게 미국에 있는 손자에게 처음으로 배운 꼬부랑말인 ‘굿모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둘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가족이 되어 가는데…….

작가는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유기견 문제와 독거노인 문제를 동화라는 형식을 빌려 사람이든 동물이든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관심이 중요하고 필



요하다는 메시지를 잔잔하게 그려낸다. 특히, 책의 말미에서 화재로 죽을 뻔한 할아버지를 구하고 쓰러진 굿모닝이 “할아버지, 굿모닝! 아침에 만나요!” 하고 인사할 때, 더 이상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버려지는 생명(그것이 동물 이든 사람이든)이 나와서는 안 되며, 버려진 이들의 모든 고통과 불행을 우리 모두가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도 손색이 없는 수작이다.

『굿모닝, 굿모닝?』 한정영 글 · 이승현 그림, 미래아이, 2010

굿모닝? 굿모닝! 우리 같이 주위를 돌아볼까?

이미화(군포 중앙도서관)

따뜻한 노란바탕에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쓰다듬는 모습의 표지. 표지의 강아지가 우리의 주인공 ‘굿모닝’이다. 제목과 표지만으로는 참 밝고 긍정적이다. ‘할아버지와 강아지’가 나누는 행복한 우정이야기려니 생각했는데, 책장 안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정 반대다. 그렇다면 표지의 그림은 ‘의도된 역설’?

주인공 태풍이 ‘굿모닝’은 주인 여자아이를 불에서 구하려다 그을려 흉측해진다. 남루하고 초라해진 탓에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인 가족에게 버려진다. 길을 잃고 사냥꾼들에게 쫓기는 여러 위험 속에서 친구 두리를 만나 생활한다. 태풍이는 자신을 굿모닝으로 부르면서 예뻐해 주는 가난한 할아버지와 위험하기는 하지만 편할 수도 있는 거리 생활에서 갈등하고, 할아버지는 남겨둔 채 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한 옛 주인을 따라 무한정 질주하기도 한다. 그런 굿모닝과 가족에게 버림받아 외롭게 살아가는 할아버지가 천천히 둘 사이 거리를 좁혀가면서 서로 의지하게 되고 가슴 따뜻한 교감을 나누며 진정한 가족이 되는 이야기다

“경경.” “버려졌다는 건 말이야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뜻이야.”

“사람들과 우리의 공통점은 버려졌다는 것이야.”

얼마 전 유기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TV프로그램을 보았는데 돌보던 애완동물도 아무렇게나 버려서 유기견들이 넘쳐난다고 한다. 이제는 애완동물을 반



려동물이라 부른다.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물로 존중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한 반려동물인 강아지가 한해 버려지는 수는 8만 마리가 넘는다고 한다. 생명의 귀중함도 모르고, 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책임감 또한 갖추지 못한 것이다. 강아지 갓모닝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의 현실세계는 사랑을 주고 아끼다가도 한순간에 버려지는 강아지를 잡아서 먹고 흥취하고 못생겼다고 꺼리고 미워하는 무정하고 메마른 곳이었다

“가족이란 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해야 하는 거야……. 난 또 너마저 나를 두고 가버리는 줄 알았잖아.”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함께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다. 결국 마지막 화재에서 할아버지를 구출해내고 진정한 갓모닝으로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동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반성하게 된다. 주인에게 버려진 개와 가족에게 버려진 할아버지가 만나서 서로의 아픔을 알고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은 서로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진짜 가족이 되는 게 아닐까?

요즘은 이기적이고 각박하고 경쟁이 심한 사회이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에 익숙해 있다. 이 책은 이런 어린이들에게 동물과의 유대감과 사랑, 교감 그리고 나누는 것의 중요함,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쉬운 필체

로 알려주고 있다. 바쁘고 각박해진 우리의 모습에 따뜻한 정과 소외된 이웃에 대하여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게 해주는 마음 따뜻한 동화이다. 이름도 밝고 경쾌한 소리 ‘굿모닝? 우리도 같이 ‘굿모닝? 하면서 주변을 같이 둘러보고 살 펴볼까?

『굿모닝, 굿모닝?』, 한정영 글 · 이승현 그림, 미래아이, 2010

마지막 이벤트에 초대합니다!

최미화(하남 시립도서관)

우리말에서 ‘죽다’를 이르는 표현은 몇 가지나 될까? 잠깐 인터넷을 뒤져보니 몇몇 표현이 눈에 띈다. 눈을 감다, 하늘나라로 가다, 돌아가(시)다, 고인이 되다, 숨을 거두다, 저승길을 건너다……. 이외에도 다양한 표현이 있으니 대단하다. 죽음과 관련하여 이렇듯 다양한 표현을 쓰는 곳이 또 있을까 싶다. 그래도 모자라다 싶었는지 이 책은 죽음을 이르는 표현으로 ‘마지막 이벤트’를 하나 더 보탠다.

이 책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죽음’을 마지막 이벤트로 만들어낸 작가의 색다른 시각이 눈여겨볼 만하다. 나이 들면 어린이가 된다든가, 할아버지는 영육이와 사우나에 갈 때도, 박물관에 갈 때도 언제나 이벤트라고 한다. 그런 할아버지의 비밀 상자 속에 남겨진 이벤트 아이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마지막 이벤트는 예상치 못한 반전과 함께 죽음의 의미를 슬프면서도 유쾌하게 펼쳐 놓는다. 또한 작가는 장례식장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영육이의 눈으로 보면서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그려낸다. 그와 아울러 영육이의 입을 빌려 어른의 잘못된 행동을 질책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 무엇보다 눈여겨볼 대상은 아버지의 냉대에 마음 아파하는 영육이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마지막 이벤트 뒤에도 아버지와 영육이의 관계에 변화는 없어 보인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주인공을 걱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이 그 경우이다. 할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듯한 아버지의 태도가 극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기에 걱정과 함께 아쉬움이 남는다. 가



장 의지하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게 된 영육이가 기댈 곳은 어디인가 싶다. 이 부분에 대해 작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함께 할 할아버지가 없는 영육이의 쓸쓸함을 부각하기 보다는 영육이 곁에 남은 가족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끝맺음하였다면 좀 더 따뜻한 책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어린이에게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노력한 결실인 이 책은 자녀에게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기를 망설이는 부모에게 좋은 설명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먼저 읽고 자녀에게 추천해줄 만한 책이라 하겠다.

『마지막 이벤트』, 유은실 지음 · 양경희 그림, 바람의 아이들, 2010

나의 이름 속 감춰진 비밀, 너에게만 알려줄게!

이수경(평택 안중도서관)

이름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가장 뚜렷한 단어이자,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가장 명확한 언어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도, 자신의 신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시킬 때도 늘 이름을 먼저 밝히게 된다.

이름은 그 존재 자체로서 불투명한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는 놀라운 힘이 있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저마다 자신을 대변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름들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많은 비밀을 담아 둔 채, 우리들로 하여금 불리게 되었다.

〈이름이 궁금해〉 세 번째 시리즈인 『빈대떡은 왜 빈대떡일까?』는 우리가 즐겨먹는 음식들의 이름 속 숨겨진 비밀을 구어체의 형식으로 정감있게 표현하고 있다. 불고기는 왜 불고기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지, 시래기는 왜 시래기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설명해가면서 다양한 음식 속 각양각색 비밀들을 어린 독자들에게 대화하듯 자세하게 이야기해 나간다.

작가는 불에 구워먹는 모든 고기요리를 불고기라 부른다고 설명하면서, 이천 년 전부터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다는 사실을 익살스러운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한다. 또한 음식 속에 담긴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를 어린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면서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음식 속

많은 정보를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터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음식의 이름 속 숨겨진 어원과 그 역사를 알고 싶은 어린 독자들, 그동안 몰랐던 음식 속 숨은 비밀을 알고 싶은 어린 독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빈대떡은 왜 빈대떡일까?』, 박시화 글 · 이종호 그림, 아울북, 2010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최미화(하남 시립도서관)

요즘 어린 세대에게 우리의 분단 현실을 가슴에 와 닿도록 이야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남북분단’을 한국사의 일부분으로 배워서 알고 있을 뿐, 그 역사로 말미암은 아픔과 서러움을 알지 못하기에 세대 간 허물 수 없는 벽을 느끼는데 그치고 만다.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작가는 색다른 접근 방식으로 어린이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이 책은 누군가의 기억 속으로 다가가려는 한 소년의 궁금증으로 시작된다. 프랑스에 사는 한국인 소년 봉주. 프랑스 지방 ‘뚜르’로 이사한 첫날, 봉주는 책상 한 귀퉁이에서 “사랑하는 나의 조국, 사랑하는 나의 가족, 살아야 한다.”고 외치는 듯한 한글 낙서를 발견한다. 봉주는 그 낙서가 마치 한 번도 사람이 살지 않았던 무인도에서 발견한 글자 같아서 궁금증을 떨치지 못 하고 낙서의 주인공을 찾아 나서게 된다. 한 편의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 책은 특유의 재미와 반전의 묘미를 준다. 그러면서 작가는 우리가 처한 분단 현실을 잠깐의 이야기거리로만 삼은 것이 아니라 책의 처음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아우르며 우리의 현실에 대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하려 애쓴다. 조국이 분단된 현실을 아무리 설명하려 한들 이 책의 작가처럼 가슴에 와 닿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없는 현실. 남들 모르게 우정을 나누지만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두 아이의 우정과 헤어짐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우리의 분단 현실이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처음 이 책의 제목을 보고 그저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이민 가족의 이야기라고 예



상했으나 프랑스라는 다소 생뚱맞은 배경 속에서 '남북분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조국을 떠나 있는 남북한의 두 소년이 등장하여 '조국'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더 절실히 다가왔을 것이다.

언젠가 우리나라의 '분단'에 대해 묻는 아이가 있다면 아이에게 우선 이 책 『봉주르, 뚜르』를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직접적인 이야기보다는 그 아이와 왜 봉주가 친구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친구와 헤어진 봉주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봉주르, 뚜르』, 한윤섭 글 · 김진화 그림, 문학동네, 2010

소심쟁이 소녀의 아지트에 초대합니다

양지영(평택 지산초록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얀 레이스 커튼이 드리워진 폭신평신향 침대가 보이고, 마법의 구슬 스탠드 불빛이 영롱하게 반짝인다. 핑크빛 화장대에는 에메랄드 빛 반지와 예쁜 구슬로 장식된 각종 액세서리가 준비해 있고 방바닥에는 폭신평신향 분홍 하트 모양 양탄자가 깔려 있다. 그 위에는 예쁜 티 테이블이 놓여 있고 나는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싱그러운 바람을 느끼고 있다. 이곳은 나만을 위한 공간, 나의 아지트.

‘쨍그랑!’ 달콤한 상상이 산산조각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나가! 꺼져버려! 나 혼자 있고 싶단 말이야.” 중학생 언니가 주인공 진솔을 아내는 양갈진 목소리가 들린다. 언니가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소심한 진솔이의 탈출 장소는 ‘옥상’ 뿐이다. 자신의 방은커녕 모든 식구들이 한방에서 함께 생활하며 더군다나 그곳은 ‘이정형외과 출입금지 구역 창고방’이라는 것이 진솔이의 참담한 현실! 출입금지 구역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는 특별함 따윈 없다. 마냥 창피할 뿐이다. 아는 사람 만날까봐 두렵고, 공동 화장실도 짜증나고 남들처럼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소심하여 친구조차 없는 진솔이는 이런 답답함을 해소할 곳도 없다.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컴퓨터의 미니룸을 꾸미는 것으로 대신하고, 답답함을 옥상에서 ‘혼자 놀기’의 진수를 맛보며 해소하고, 사귀고 교류하고픈 마음은 언니 일기장 ‘훤쳐보기’로 대리만족하는 주인공 초등학생 진솔.

차츰 진솔이는 '옥상'에서 보내는 색다름을 맛보며 서서히 자신의 아지트로 만들어가고, 일기장을 통하여 날카롭기만 해보이던 언니의 말랑말랑한 내면을 만나고 더 가깝게 느끼는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옥상에 불청객이 찾아오고 불청객의 행동과 말이 짜증나지만 소심하여 말도 못하고 슬며시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일기장 훑쳐보는 것도 언니에게 발각되어 가뜩이나 좁은 방이 살얼음판이 되어버리고,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불청객이 아끼는 반지를 훑쳐 불안함에 끄끙대다 들켜 버리고 마는데…….

이처럼 암울하기만 한 상황에서 손을 뻗어주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고 용기를 얻어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불청객도 마음을 나누고 파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아지트에 초대하게 된다.

풍요롭지 않은 현실과 여러 사건사고로 마음 고생하는 진솔이의 모습이 불행하게 보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부러운 마음마저 드는 것은, 그곳에서 새로운 만남과 사귄과 그들과의 교감으로 현실의 별 거 아닌 듯 해 보였던 것들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얻기 때문이다.

울며 도망치는 진솔에게 식상한 위로나 동정이 아닌, 그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도둑질한 진솔을 나무라기보다 아무 말 않고 따뜻한 차 한 잔 내주며 마음으로 안아주는 엄마, 자신의 일기장을 훑쳐 본 꽤심한 진솔을 쿨~하게 봐주고 '수다' 형식으로 마음을 시원하게 터놓는 언니, 그리고 그것을 기뻐한 자매만



의 병원식당에서의 먹다 남은 돈가스 튀김과 스탠드 조명을 활용한 그들만의 작은 만찬. 이러한 일상의 소소한 것들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진솔이에게 꿈의 공간과 현실과의 차이에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렇지만 쉽게 말하지는 말자. 참으로 진부한 표현이나,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쯤 알고 있지 않은가? 하늘의 별을 따는 고통으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쉽게 던지기 미안할 말이다. 진솔이도 현실에 만족해하지 않고 그로인해 창피해하고, 눈치보고 아파하며 많은 마음고생과 함께 행복을 향한 계단을 하나하나 오른다. 소심하고 한없이 움츠러드는 성격에 계단을 오르는 과정이 더욱 힘겹게 보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진솔이가 대견하다. 공간과 관계에 익숙해지는 어른이 되기까지, 진솔이는 또 얼마나 많은 아픔과 만나게 될까? ‘ 짹짹! 진솔이 파이팅!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마음으로 힘차게 응원한다.

이 책을 입을 독자들이여! 후루룩~ 푹푹 읽어버리고 ‘책 다 읽었음’ 하지 않기를 바란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소중한 아지트를 만들고 그곳을 사랑하고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는 축복에서 진정한 행복을 깨닫는 진솔이를 조금 더 애뜻하게 바라봐 주고 자신의 현실과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왕소심 소녀 ‘이진솔’은 참담할 것만 같았던 ‘이정형외과 출입금지 구역’에서 특별한 아지트를 얻었으며 언제, 어떤 아픔이 다가오더라도 잠시만 슬퍼하고 다시 한발 내딛을 수 있는 ‘행복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된다.

초대합니다. 나만의 아지트. 나만의 공간으로…….

이곳은 비록 보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 무얼 먹어도 맛나고, 무얼 해도 즐겁고, 누구든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답니다. 소중한 당신들과의 작은 만찬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정형외과 출입금지 구역』, 신지영 글 · 정문주 그림, 사계절, 2010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까

김영희(성남 중원도서관)

마음이 자라는 가치동화! 가치동화란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의지, 용기, 자유, 정직, 절제, 행복, 용서, 성장, 약속 같은…….

『슈팅할 날을 기다려라』는 약속이라는 테마로 성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아이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든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꼭 타인과의 약속만이 아니고 자신과의 약속이라는 점도 차츰 알아가게 된다. 약속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성하는 공부방 가는 시간이 자주 늦는다. 공부방 가기 전 매일 게임방을 들리기 때문이다. 성하는 자신과 합의하지 않은 약속은 지키기가 싫다. 게임방은 잔소리도 없고 게임방에서의 약속은 달콤하다.

어느 날 게임방에서 나오다 공부방 선생님한테 들키고 만다. 잘못이라는 걸 알고 선생님을 피해 뛰다 다치기도 한다. 선생님과 엄마 모두 실망한다. 어느 날 우연히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 엄마의 모습도 보게 된다. 약속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래서 공부방선생님과 스스로 약속을 하게 되고 약속을 잘 지키면 돌아오는 게 있다고 믿는 성하. 한 달 후에 과연 성하는 슈팅 할 수 있을까.

이 동화책은 읽기가 참 편하다. 다 읽지 않고 차례만 읽어도 즐거리를 상상



할 수 있을 것 같다. 책의 크기도 펼쳤을 때 편하고 글씨도 커서 3~4학년이면 부담 없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요즈음 3~4학년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표현 되었다. 우리가 아이들과 약속을 할 때 흔히 어른들의 바람대로 일방적인 약속을 하고 지키게 하고 있는지 뒤 돌아 보게 한다. 우리가 또한 지키지 않은 약속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상기 시킨다. 한편 약속을 잘 지킨 성하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슈팅할 날을 기다려라』, 백은하 지음 · 이선화 그림, 을파소, 2010

사랑은 누구 편?

임혜진(평택 시립도서관)

아이들은 자신의 바람이 뜻처럼 이뤄지지 않았을 때 마치 무기인 냥 ‘집에 안 들어간다’, ‘밥 안 먹을거야’ 하고 반항을 한다. 그럼 어른들도 지지 않고 ‘그래 들어오지 마’ 같이 대답하기 일췌이다. 왜냐면 아이들이 집에 안 들어올 수도 없고 밥은 언젠가 먹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지만 사실 움찔 속으로 놀라기는 한다. ‘무슨 불만일까’, ‘말로만 듣던 사춘기가 온 걸까’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지나가지만 놀란 마음을 감추고 무슨 연유로 그런 얘길 하게 된 것인지 차근차근 들어보기로 하자.

이 책은 ‘연진이의 가출 소동’, ‘가출이야기’ 등 뻔하게 떠오르는 제목이 아닌 ‘집에 안 들어감!’ 하고 경고조의 제목으로 눈길을 끈다. 표지를 보면 아이들은 화가 났지만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서가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 두 여자 아이는 연진이와 미진, 두 자매이고 둘 다 엄마한테 혼날 일 때문에 학원도 못가고 있다가 엄마에게 문자로 ‘가출 선언’을 하게 된다.

아이들이 경고문을 날리는 이유는 천차만별이지만 공통적으로 자신의 뜻을 부모님이 알아주었으면 할 때 뒷감당 할 수 없는 말을 내뱉곤 한다. 연진이와 미진이의 경우도 연진이는 학교에서 엄마가 싫어하는 만화를 그리다가 선생님께서 들켜서 엄마 모시고 오란 얘길 듣고 엄마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미진이는 엄마가 싫어하는 친구랑 계속 잘 지내고 싶은데 엄마가 반대하여 자신을 과연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졌다. 아주 초등학생같은 발상이지



만 장소를 옮겨가며 엄마가 나타나는지 아닌지 숨어서 지켜보다가 결국 엄마도 장소마다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가출사건으로 아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룬 것은 아니다. 그걸 가지고 엄마가 꾸짖으면 또 가출을 해서 더욱 어려운 문제를 내리라고 생각한다. '나 혼자 속으로 "엄마, 나 사랑해?"하고 세 번 물었던 곳으로 오시오' 그야말로 미궁이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여기 저기 학원에 보내주고 원하는 것 다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값나가는 물건들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치유된다는 것을 잊고 아이들이 가출소동까지 벌이도록 놔둔 건 아닐까 하는 반성이 든다.

이 책은 자매의 기상천외한 가출이야기를 예쁘게 그려낸 내용으로 결국 엄마에게 자신의 뜻은 이루지 못한 채 다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가출을 계획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되는데 뭔가 해결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 아쉽다. 아이들의 가출로 살짝 눈물을 보이던 엄마를 생각하면 잔인한 결과가 아닐까. 그렇다면 엄마도 새로운 대응책을 생각해내고야 말 것이다. 나 혼자 마음속으로 "우리 딸들 사랑해." 하고 수 천 번 대답했던 곳으로 오시오.

『집에 안 들어감!』, 이여누 글 · 배현정 그림, 바람의아아들, 2010

내일 엄마는 싫어요! 오늘 엄마가 되어주세요!

홍미정(화성 태안도서관)

서가 뒤편에서 뽀로통한 얼굴을 쏘옥 내밀고 있는 두 여자아이가 보이는군요. 머리 위에는 먹구름과 번개가 얹혀있습니다. 두 아이의 심경이 매우 복잡하고 불편해보여요. 그 옆에 쓰여 있는 커다란 제목이 눈에 들어오네요. ‘집에 안 들어감!’

바로 『집에 안 들어감!』이라는 책의 표지 이야기입니다. 오호라! 그럼 이 두 여자아이가 가출을 한 것인가요? 맹랑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과연 무슨 이유로 가출을 감행했을까, 잔뜩 궁금해져 책장을 넘겨봅니다.

만화가가 꿈인 연진이는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하다가 선생님께 걸려 학교에 어머니를 모셔오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습니다. 잔뜩 풀이 죽어 하교하고 있는 연진이의 앞에 언니 미진이가 나타나고, 언니 역시 친구의 일방적인 절교 선언으로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엄마 때문이지요. 만화가가 꿈인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엄마, 언니의 가장 친한 친구를 싫어하는 엄마 때문에 우리의 학교생활이 엉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학원을 빼먹고 분식집에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던 연진이와 미진이는 딸들의 이유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 전화로 호통을 쳐대는 엄마가 야속하여 가출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하라는 엄마의 문자에 “우리가 없어져도 엄마는 우릴 안 찾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지요. 그래서 둘은 결국 문자로 엄마에게 자신들이 있는 장소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그 장소에 엄마가 나타나 주기를 기다립니다. 평소에 우

리 마음을 너무도 몰라주는 야속한 엄마가 과연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지 시험해보기로 한 것이죠.

그 장소에 대한 힌트란 엄마가 나에게 ‘미운 오리새끼’라고 말했던 곳, 엄마가 내 머리를 열 셀 동안 쓰다듬어 주었던 곳, 언니가 ‘엄마 행복해’라고 말했던 곳입니다. 참으로 귀여운 아이들이지요? 이 세 장소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있는 곳으로, 엄마가 그 장소를 전혀 기억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엄마는 그 장소를 기억해내어 딸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주인공의 심리를 좇아 한 장 한 장 책을 읽어가다 보니 저 멀리 까맣게 잊고 있던 놀라운 기억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어린 시절 가출을 했었다는 사실이었지요. 오래전 어느 날 엄마와의 작은 말다툼 후 가출을 한 장소는 다름 아닌 우리 집 옥상 창고였습니다. 우리 집 옥상 한 구석에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곳에 몸을 숨기면 그 누구라도 찾아내기 어려웠거든요. 처음에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서러움에 한참을 울고, 울고 나서는 창고에 있는 오래된 책과 갖가지 물건 등에 빠져 한참을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는 사이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 지친 나는 슬그머니 창고를 나왔지요. 현관 앞에서 저와 마주친 엄마는 걱정 어린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배고프지? 어서 저녁먹자!” 저녁 식사 후 저는 웬지 모를 안도감과 편안함에 휩싸여 새록새록



쿨쿨 단잠을 잤답니다.

참 재미있지요? 가출 아닌 가출이었지만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살아나는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주인공 연진이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고, 연진이의 심리가 오롯하게 이해가 되네요. 비록 평소에 자신들을 귀찮아하며 “내일 얘기하자.,” “내일 해줄게.” 하고 약속을 자꾸 미루어 버리는 ‘내일 엄마’이지만, 엄마와의 따뜻한 추억을 더듬어가며 그것을 엄마도 기억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인공들의 마음은 어린 시절 저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신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가까운 사이이기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가족이라는 의미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동화 『집에 안 들어감!』. 가출이라는 조금 무거운 소재이지만, 아이들의 눈을 통해 순수하고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문자 힌트를 이용하여 엄마와 술래잡기하듯 가족 간의 에피소드 장소를 찾아다니는 일은 마치 추리소설 한편을 보는 듯 흥미진진합니다. 여기에 양념처럼 들어간 삽화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만화체 형식을 취하여 글의 유쾌함을 더하고 있네요. 마치 비늘과 실처럼, 글과 그림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보입니다.

책 마지막 부분에는 주인공이 그린 4컷짜리 만화 ‘내일 엄마’를 소개하는 것으로 글 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만화이지만 꼭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엄마’는 싫어요! ‘오늘 엄마’가 되어주세요. 오늘 당장!”

『집에 안 들어감』, 이여누 글·배현정 그림, 바람의아이들, 2010

‘=ㅁ’, 우리는 늘 관계의 빈칸을 채우며 산다

임혜진(평택 시립도서관)

특별한 이웃이라니! 하기가 핵가족화가 만연하면서 이웃은 제2의 가족이거나 친척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더군다나 특별하게 여기는 이웃은 열 친척 부럽지 않은 존재임에 분명하다. 제목에서 그저 이웃과의 다툼, 화해 등을 다룬 것 같았던 이 책은 뒤표지를 보는 순간 이웃의 의미는 심상치 않은 ‘이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모티콘의 일종인 것 같았던 ‘=ㅁ’도 무언가 채워 넣어야 하는 빈칸임을 알아냈다.

『특별한 이웃=ㅁ』는 ‘이웃집 영환이’, ‘나는 아버지의 친척’ 등 청소년 소설을 썼던 남상순 작가의 신작이다. 저자가 서두에서 밝혔듯이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실감나게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실제로 인물들 모두가 작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성격대로 행동하는 걸 알 수 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우이진’은 엄지다. ‘우이진’은 유관순이라는 별명답게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성격이고, ‘엄지’는 궁지에 몰리면 적당히 둘러대는 스타일이다. 이 둘의 성격 형성에 이바지한 사람이 바로 그들의 엄마들이다. ‘우이진’의 엄마는 새엄마인데 이웃처럼 멀다가도 어떤 일인가 벌어졌을 때, ‘특별한 이웃’ 처럼 친하게 느껴지는 존재이다. ‘엄지’의 엄마는 딸과 종교에 대한 관심이 집착으로 비취질 수 있는 사람이다. 어느 날, 이진과 엄지는 떡볶이 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몸에 좋은 것만 먹이려는 엄지 엄마한테 들켜 혼계를 듣게 되고 결국 엄지 엄마의 종교 강요까지 듣게 된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

던 중 우훅(이진의 새엄마, 딸꾹질 날 때 새엄마에게 지어준 별명)이 특별한 이웃이 되어 해결해주고 이진은 엄지의 남자친구인 영빈에게 문자를 보냈던 이유로 엄지와 다투게 되는데 서로 오해를 풀고 친한 친구로 지내게 된다.

이 책은 초등 고학년 친구들 사이에 있을 법한 우정 문제, 이성 문제, 부모와의 관계 등에 대해 재미난 이야기로 꾸미고 있다. 각 인물들의 성격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람들로써 실존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 친근하고 흥미롭다. 특히 새엄마인 우훅의 성격을 보자면, 이진이 엄지 엄마한테서 교회 다니길 강요받았을 때 새엄마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적당한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친다. 이를 통해 이진의 고집스런 성격은 더욱 성장한다. 또한 새엄마는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길 강요하기보다 특별한 이웃이라고 정하고 빈칸 안에 ‘친구’ 혹은 그보다 사이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생각나면 넣도록 하자고 한다. 이진도 처음에는 그 뜻을 잘 몰랐는데 엄지와 우정을 다시 확인하면서 특별한 이웃은 아주 친한 친구를 뜻함을 알게 된다.

결말부분에서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결말 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새엄마가 아주 친한 친구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올 법하다. 엄마라고 하기엔 아직 너무 멀고 새엄마나 계모라고 하기엔 매정한 것 같아, 우훅에 대한 호칭을 특별한 이웃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발하고 흥미롭다. 또한 ‘=ㅁ’는 사람



관계를 한 단어로 규정시키기엔 관계를 제약하는 것 같아 관계는 계속 빈칸을 채우며 변화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만큼 새엄마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을까 하고 책의 뒷이야기가 더 궁금해진다. 발전하든 퇴보하든 우이진과 특별한 이웃이 빈칸 속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해보자.

『특별한 이웃=ㄹ』, 남상순 글·서영경 그림, 사계절, 2010

다정이, 어디에서든 힘내라

김영희(성남 중원도서관)

키가 큰 하바라기와 다리가 불편해 휠체어에 앉아 공부를 해야만 하는 다정이 사이 우정을 그린 『하얀 우산』. 두 아이가 처음에는 가까워질 것 같지 않았지만 차츰 빛나는 우정을 쌓아 가는 이야기이다. 작가 김덕윤이 중학교 1학년 때 쓴 작품으로 6회 건국대학교 창작동화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6학년인 하바라기는 반에서 가장 키가 크다. 어느 날 휠체어를 탄 여학생인 다정이가 전학을 와 바라기의 옆자리에 앉게 된다. 좋아하는 여학생 소영이와 더욱 멀어지게 된 바라기는 기분이 좋지 않다. 머리가 찰랑이고 큰 눈을 가진 다정이지만 서로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그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던 두 아이는 차츰 서로 이해하고 우정이 싹튼다. 그러나 독일로 떠나는 다정이…….

바라기의 마음이 너무도 솔직하고 순수하게 드러나고 다정이의 섬세한 감정도 잘 나타나 있다. 책을 읽다보면 중간 중간 배경의 그림 또한 상상력을 키우기 충분하다.

작가가 중학생일 때 쓴 작품이지만 우리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미처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한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을 여러 장면으로 고발해 주고 있다. 결국 다정이가 우리나라를 떠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이렇듯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어우러지고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될 수 있으려면 아직도 세심한 주위 환경 만들기가 필요하다. 다정이처럼 몸이 불편한 어린이도 전학하지 않고도 쭉쭉 졸업할 때까지 다닐 학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얀 우산』, 김덕윤 글 · 신민재 그림, 문학과지성사, 2010

우정으로 성장하는 두 아이, 멀리 있어도 함께 마음속에는 늘 함께!

한선영(군포 중앙도서관)

『하얀 우산』은 제6회 건국대학교 창작동화상 수상작으로 현재 대학생인 저자가 중학교 1학년 때 쓴 동화라고 한다. 출품을 위하여 수정작업을 했겠지만 이만한 작품을 중학생이 썼다니, 그 사실이 놀랍고 신선하다. 심사평의 내용처럼 왕따와 장애라는 새롭지 않은 소재를 가지고 신선하면서도 깊이 있게, 단정하고 산뜻한 문장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하얀 우산』은 선생님보다도 더 선생님같이 보일 만큼 키가 너무나 큰 소년 '바라기'와 불편한 다리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소녀 '다정'이 쌓아 가는 우정이야기다. 올해 6학년이 된 하바라기는 별명이 '해바라기'다. 늘 자신의 큰 키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휠체어를 탄 소녀, 김다정이 전학 온다. 다정이는 움직임이 불편한 휠체어 때문에 맨 뒷줄에 혼자 앉아 있던 바라기와 짝이 되지만, 짝이 되어서도 바라기와 다정이는 서로가 불편한 관계다. 그러던 중 쪽지시험 시간에 필통을 안 가져와 문제를 풀 수 없는 바라기를 위해 다정이는 일부러 연필을 떨어뜨린다. 바라기가 시험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그 뒤로 바라기도 다정이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비 오는 날 같이 우산을 쓰고 가고, 교실의 허브 화분들을 돌보는 등 하루 하루를 함께하며 조금씩 가까워진다. 어느새 서로 이해하게 되고, 처음엔 서로에게 선입견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정이가 독일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되어 둘은 이별하게 되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우정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성장해간다.

너무나 다른 두 아이, 바라기와 다정이의 시선을 교차하여 써 내려간 이야기는 마치 일기 같아 교차된 바라기의 이야기와 다정이의 이야기는 각각 아이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듯하다. 읽다 보면 교환일기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 교차된 이야기엔 교환일기에서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알 수 없기에 애잔하고 슬프다.

삽화도 두 아이의 관계가 성장해가는 것을 맞춤하게 표현하고 있다. 두 아이의 표정 또한 서로를 향한 우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둡다. 연필을 빌려주는 쪽지시험 장면의 바라기는 다정이를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한 바라기의 모습이다. 상자를 열 듯 열린 바라기의 가슴엔 우정이라는 빨간 하트가 있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새 우산을 산 두근거림을 느껴보고 싶어 혼자서는 비 오는 날 우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다정이는 엄마를 졸라 하얀 우산을 산다. 비가 오는 어느 날, 우산이 없는 바라기와 우산은 있지만 혼자 쓸 수 없는 다정이가 같이 우산을 쓰고 가게 된다. 바라기는 우산을 들어 같이 쓸 뿐, 다정이의 휠체어를 밀어주지는 않는다. 휠체어를 미는 다정이의 모습을 인정하는 바라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다정이와 바라기가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과정은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다.

“넌 단지 남들보다 다리가 불편한 것뿐이다.”라고 말하는 바라기 덕분에 다정이는 걷지 못하는 자신의 다리를 진심으로 인정하게 된다. 다정이가 자신의 다리를 인정한 후, 다정이에게 비치는 운동장의 모습은 자신이 걸을 수 없는 그 만큼을 채우기 위해 친구들이 대신 뛰고 있는 모습이다.

큰 키 때문에 농구선수 하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 웬지 농구는 하기 싫었던 바라기 또한 키 큰 자신을 인정하고 농구를 배우기 시작한다.

교실에서 일어난 도난사건. 다정이가 훔치지 않았을 거란 걸 반 아이들은 알고 있지만 다정이를 의심하고 따돌린다. 아이들의 따돌림을 곳곳이 건디는 다정이는 약한 듯하지만 강인하고, 부드럽지만 꾀꿉한 모습이다. 또한 아이들의 다정이를 향한 따돌림에 도와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바라기의 모습도 그들의 잔잔한 우정을 느끼게 한다.

표제지에 하얀 우산을 쓰고 날고 있는 다정이의 모습은 다정이가 꿈꾸는 모습이 아닐까? 하얀 우산은 두 친구의 우정을 이어주는 매개가 되어 다정이의 마음속에, 바라기의 곁에 존재한다. 다정이가 가는 독일엔 하바라기를 그릴 수 있는 해바라기가 있고 바라기 옆에는 다정이가 남긴 허브와 하얀 우산이 있으니, 이 둘에겐 평생의 힘이 되어줄 둘만의 우정이 있다.

책 뒷표지에 초등학교 3~4학년 이상 권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린이뿐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이 읽더라도 따뜻한 문장에서 느껴지는 잔잔한 감동을 통해 두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하얀 우산』, 김덕윤 글·신민재 그림, 문학과지성사, 2010

813.8

어린이 비문학 서평

- ▶ 아이를 잡아먹는 마법 상자? -100년 전 사진이야기 _ 김준섭(용인 수지도서관)
- ▶ 우리 조상들의 삶이 궁금하다고요? _ 박정서(성남 중원도서관)
- ▶ 내 몸 하나만 건강하면 그만? 과연 그럴까? _ 홍미정(화성 태안도서관)
- ▶ 친절하고 재미있는 제주올레 설명서 1탄 _ 문영신(부천 꿈여울도서관)

아이를 잡아먹는 마법 상자?

-100년 전 사진이야기

김준섭(용인 수지도서관)

최근 디지털카메라가 널리 보급되면서 우리는 사진을 손쉽게 찍을 수 있게 되었고, 영화와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우리는 가히 사진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진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약 100여 년 전으로, 아이를 잡아먹는 마법 상자로 여기며 두려워한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이런 사진의 발전을 과연 상상조차 할 수 있었을까?

『사진 찍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는 사진의 역사라는 주제 아래 아이들이 가질만한 여러 궁금증을 동화라는 형식을 빌려 들려준다.

주인공 삼식은 헤어진 여동생을 찾아 나서고, 아이를 잡아먹는 마법 상자라고 불리던 사진기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다. 동생이 마법 상자에 갇혀 있을 거란 확신을 한 삼식은 우리나라에 사진기를 처음 도입한 황철이라는 역사적 실존 인물을 만나 그를 통해 사진을 배우며,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이처럼 작가는 삼식이 겪게 되는 여러 에피소드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사진이 어떻게 처음 도입되었으며, 사진이라는 신기술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로 인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자연스럽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역사동화의 특성상,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허구의 경계가 모호한 점은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껏 흔히 보아왔던 왕권 중심의 역사서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냈던 점에서 이 책의 존재 가치는 충분



하다.

사진이나 사진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흥미롭게 읽어 내려갈 수 있으며, 급변하는 과학과 기술의 파고를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이들과 함께 하는 토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사진 찍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서지원 글 · 조현숙 그림, 꿈꾸는 사람들, 2010

우리 조상들의 삶이 궁금하다고요?

박정서(성남 중원도서관)

오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그 오랜 시간만큼이나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지혜를 얻고 또 그 지혜를 미풍양속으로 키워왔다. 그 중에 우리의 옛 건축물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오천 년 지혜 담긴 건물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이 집을 지을 때의 모습을 통해, 건물뿐만 아니라 정원, 흙 담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않고 자연과의 조화를 완성한 선조들의 지혜를 꼼꼼히 소개한다. 양반의 힘을 상징한 양반집 이야기, 착한 선비의 모습을 닮은 초가집 이야기, 공부를 하던 향교, 옛날 임금이 살던 곳 궁궐의 모습까지 우리 문화와 조상들의 삶을 실감나고 재미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다채로운 책의 그림 속 등장인물들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생활양식까지 엿볼 수 있어 우리 민족의 삶과 지혜를 깨닫게 한다.

우리의 전통, 사회, 문화, 인물, 역사를 귀여운 백두낭자와 한라도령이 꼼꼼히 설명하고 '꼼꼼 지식 돋보기 코너'는 건축물들이 언제,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식자료의 보충역할을 하고 있다. 부록으로 권별 교과 연계표가 50권 나열되어 있고 학년, 학기별 관련표시가 되어 있어서 아주 유익한 정보로 활용 할 수 있다.



이 책을 들고 용인 민속촌이나 안동 하회마을, 경복궁, 창경궁 등지에 잘 보존되어 있는 옛 건축물의 구조 등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 역사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산지식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천 년 지혜 담긴 건물 이야기』, 우리누리 글·조승연 그림, 주니어중앙, 2010

내 몸 하나만 건강하면 그만? 과연 그럴까?

홍미정(화성 태안도서관)

우리는 몸이 아프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자신의 건강은 오로지 본인만의 문제’라고 단정을 지어 말하지. 혹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의심해 본 적 있니? 우리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강 지식들을 살짝 뒤집어 놓은 책이 있어. 바로 『우리는 모두 건강할 권리가 있다』라는 책이야.

이 책은 현재 약사로 일하는 선생님이 우리의 몸과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놓은 책으로, 선생님이 조카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선생님이 이 책을 쓰신 이유는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한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바람 때문이래. 자 그럼,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책 속 여행을 떠나볼까?

이 책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어. 1부는 몸, 병, 약을 둘러싼 건강 이야기야.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원인과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 우리 몸은 균형이 어긋나면 원래대로 맞추려고 하는 ‘자연치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습관은 바람직하지 않대.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휴식을 취할 것인지 약을 먹을 것인지 현명하게 선택하라고 조언해 주셔.

이 밖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일깨워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건강한 미래사회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잘 읽어보



이야 할 거야. 대강 요약하여 말하자면 경제논리 때문에 약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 제약회사의 약값 횡포 문제, 약의 올바른 복용법과 복용 후 남는 약의 처리 방법, 감기와 독감의 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병을 만들어내고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국제기구에 대한 내용들이지.

이밖에 매스컴에 자주 언급되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와 그 치료약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평소에 가졌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2부는 어떨까? 나, 우리, 자연으로 이어지는 건강 이야기야. 나 자신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적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이웃과 나아가 지구촌 그리고 자연을 함께 생각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 살고, 다른 생물들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이 오염되거나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자신의 건강도 지키기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

광우병이나 슈퍼균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의 관계를,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이야기를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경제 성장과 평등한 사회보장제도 이야기를 통하여 건강사회를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 그 예로 미국의 민영보험제도, 터키의 의료서비스와 주치의 제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어서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맺음말에서는 건강한 몸, 건강한 사회란 결국 어떤 걸까? 하고 물으면서, 진정으로 건강한 사회란 모든 사람이 건강할 수 있도록 불평등을 개선하는 사회라고 작가의 생각을 전하고 있지. 모든 사람에게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져야 할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사회, ‘돈’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 그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과 다른 생물들을 배려하는 사회 말이야.

이 책은 일반 건강관련 책과는 다르게 우리의 몸, 병, 약을 둘러싼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자연과 사회의 건강까지 돌아볼 수 있게 하는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 또한 본문 하단에 작가가 인용한 참고 도서를 소개하여 더 자세한 정보로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

무엇보다 어린이가 이해하기 쉽게 어린이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간 점, 본문 중간 중간 만화를 삽입하여 글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도 칭찬해 주고 싶네.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자신의 건강도 잘 지키면서 사회의 건강도 잘 챙길 수 있는 멋진 ‘건강 지킴이’가 되었으면 해. 그럼 모두 건강해!

『우리는 모두 건강할 권리가 있다』, 김선 글 · 김소희 그림, 낮은산, 2010

친절하고 재미있는 제주올레 설명서 1탄

문영신(부천 꿈여울도서관)

아이들에게 제주도는 꽤 익숙하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주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정보가 그리 많다고 할 수는 없다. 제주올레 시리즈 2권 중 첫 번째인 이 책은 만화 형식으로 아이들이 제주도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전형적인 도시 아이를 대표하는 주인공 호진이가 부모님에게 이끌려 방학동안 제주도에 가게 된다. 호진이는 이곳에서 우연히 만난 큰생이(뽕)의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친구 시로미, 감상(개)과 길을 나선다. 이 길이 시흥초등학교에서 광치기해변까지 이어지는 제주올레1코스이다. 올레길을 걷는 동안 만나는 동네 사람들과의 대화,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제주도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 책은 또한 제주에만 있는 특이한 문화들을 만화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 제사 후 남은 음식인 '식계뒤물'을 이웃과 나눠 먹는 풍습이나 제주 전통 가옥의 대문 역할을 하는 '정낭' 등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그리고 성산 일출봉과 관련한 설문대 할망 설화에 대한 소개나 제주의 장례문화에 대한 설명은 책을 읽는 어린이의 제주 이해를 돕는다. 제주를 그려낸 작품답게 제주 방언에 대한 친절한 해석도 덧붙였다.



이 책은 오름 입구부터 말미오름 정상의 풍경까지 마치 제주도가 눈앞에 펼쳐진 듯 하며 제주의 풍경을 그대로 담기 위해 애를 쓴 작가의 흔적이 보인다. 또한 만화라는 형식을 빌려 등장인물의 표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길을 잃었던 호진이와 시로미가 만나는 장면에서는 마치 카메라로 잡듯이 위에서 그려서 장면의 생동감이 살아있다. 또한 등장인물의 캐릭터의 특징, 목소리의 톤, 장면의 분위기에 따라 글씨체(대사)의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여 보면서 읽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자연보다는 컴퓨터게임, PC방, TV가 더 익숙한 보통의 아이인 호진이 같은 그 또래의 초등학생들이 보면 좋을 책이다. 제주올레에 대한 책들 중에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만화의 형식을 빌려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도 추천할 만하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감상이를 새총으로 괴롭히고 때리는 장면, 큰생이를 버리고 오는 장면에서 드러나는 폭력성은 호진이의 캐릭터를 강조하기 위한 인위적인 설정으로 비춰진다는 점이다.

『호진이와 시로미의 좌충우돌 제주올레 1부』, 김경수, 시사인북, 2010

5부 | 서평연수, 워크숍으로 꽃피다

서평연수 지상중계
워크숍 모듈별 서평

313.8

813.8

서평연수 지상중계

2010 경기도 공공도서관 사서서평교육 연수

사서서평교육 연수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2009년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사서서평교육은 사서들이 도서관과 책에 대한 전문가로서 능력을 배양하여 도서관에서 좀 더 질 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보전문가, 정보교육가, 문화제공자, 독서전문가 등의 역할을 하는 책에 대한 전문가로서 사서의 자리를 메김하고, 책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견문으로 책을 안내하고, 정보를 창출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국내 어린이 작품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국내 작품이 국내 독서시장에서 탄탄한 자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으로 서평결과지를 발간하고, 향후 도서 선정, 목록제공, 서평 및 기타 정보 제공에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에 충실을 기합니다.

사서와 서평 사이 관계를 찾아갑니다.

- ◎ 사서들이 두려움 없이 서평을 쓸 수 있다.
- ◎ 어린이 책 전문가로서 역량을 강화한다.
- ◎ 도서관에서의 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끈다.
- ◎ 서평지에 원고 게재를 통한 필자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 ◎ 어린이 책을 둘러싼 제반 환경과 서평 매체의 의미에 대한 특강.
- ◎ 분과별 책 토론 및 서평쓰기 실제(쓰기, 수정, 보완, 첨삭).
- ◎ 워크숍을 통한 말과 글로 책에 대한 자기 논리 발표.
- ◎ 어린이 책에 대한 자기 관점 세우기.
- ◎ 서평지에 원고 게재.
- ◎ 교육 결과 서평지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2010 발간.

교육일정

no	영역	내 용	비 고
1	개강식/특강	국내 독서 환경	과제
		서평의 개요와 역할	
		서평과 매체(국내외서평지리뷰/영향력)	
2	연수 교육	서평 강의	서평 및 편집 실무 평가/과제 (1박2일)
3		글쓰기 특강	
4		서평 실무	
5		장르 서평	
6		편집 실무	
7		비평 및 평가	
8		종합 토론	
9		분과 교육	
10			
11			
-	편집회의	서평지 편집회의	2주
12	종강식/토론	서평지 품평과 토론, 수료식, 토론회	

강사 및 담당자

구 분	이름	프 로 필
강사	조월레	아동도서평론가, 경민대학 초빙교수
	이대건	편집자, 고창 책마을 촌장
	윤한구	출판사 대표
	오 채	어린이책 작가
기획	정은영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사서

세부교육일정 및 내용

	영역	내용	강사	일시	비고
1	개강식 특강	개강식	-	1/7 15:00 ~ 19:00	서평과제
		책, 사서, 서평	조월례		
		서평 쓰기 개요	이대건		
		국내외 서평 매체와 역할	윤한구		
2~8	연수교육	09:00~10:00 접수, 연수개요, 모둠정리	정은영	1/17 09:00 ~ 1/18 12:00	서평 편집실무 평가 서평과제 (1박2일)
		10:00~12:00 작가와의 작품 분석	오 채		
		12:00~13:00 점심	-		
		13:00~14:10 서평실제/장르서평(등화책)	조월례		
		14:20~15:30 서평실제/장르서평(지식정보책)	이대건		
		15:40~17:00 서평실제/장르서평(그림책)	윤한구		
		17:00~17:50 모듬서평 설계	이대건 윤한구		
		18:00~19:00 저녁, 휴식	-		
		19:00~21:00 모듬서평 쓰기	모 두		
		07:00~09:00 아침, 자유시간	-		
		09:00~11:40 모듬별 발표, 토론과 강평	모 두		
		11:40~12:00 연수총평 및 정리	조월례 정은영		
9	분과교육	분과별 서평쓰기 첨삭 지도	조월례 윤한구 이대건	1/17 ~2/20	과제/지도 3주
10					
11					
12	총강식	도서관과 사서, 서평 토론, 수료식	모 두	2/21	

서평 워크숍 이모저모



2011년 1월 17일과 18일 용인 한화콘도에서 가진 서평교육 워크숍. 유난스런 겨울 추위를 헤치고 결기에 찬 사람들이 모였다. 모듬을 나누자마자, 『나의, 블루보리양자』의 오채 작가와 글쓰기 주변이야기로 워크숍을 시작했다. 작가의 내면, 작가의 유년, 가족 안에서 눈물과 웃음이 엮보이는 솔직한 이야기, 유명세에도 작가와 대화 자리가 처음이었다. 이른바 ‘작가와만남’ 데뷔무대였던 것이다.

조월례, 윤한구, 이대건 강사의 어린이 문학, 그림책, 비문학의 서평실제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고, 모듬별 서평쓰기 돌입. 쓰기라는 건너기 어려운 강을, 모듬 동료들이 힘을 모아 건너자는 것이다. 책을 고르고, 읽고·보고 여념이 없다. 이어지는 책에 대한 토론, 브레인스토밍이다. 서평설계의 반환점을 돌아, 서평쓰기. 이윽고 밤이 깊었다.

워크숍 둘째 날, 모듬 서평쓰기의 결과 발표와 강평이 이어졌다. 질의와 답변, 강평 속에는 따뜻한 애정과 날카로운 칼날, 두 가지 전혀 다른 얼굴이 비쳤다. 서평 워크숍을 통해 같은 책에 대해 얼마나 많은 다른 시선이 존재하는지 알았다. 그 시선들 거두어들이고 다시 서평의 줄기를 확보하는 방법을 살짝, 엿볼 수 있었다.

‘여행 다녀와 남는 것은 사진’이라고 했다. 몇 장의 사진으로 서평워크숍의 감흥과 치열한 현장을 느껴보시기 바란다.



1모듬은 '책교'다. 책의 물꼬를 트자는 뜻이다. 한겨울 논의 물꼬보다는 책의 물꼬가 트기 훨씬 쉬울 터. 모내기 복장으로 바지를 걷고 이미화·김동관·최미화·양지영 사서가 모였다. 서평은, 책을 고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 이은홍 화백이 쓰고 그린, 『호랑이가 예끼 늬』으로 서평 설계를 시작한다.



2모듬은 '이판사판'이다. 이편 아니면 저편! 서평 아니면 죽음, 서평쓰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었다. 김준섭·이수경·문영신·박정서·박영애 사서가 팔을 걷어붙였다. 서평의 글감으로 자신의 유년공간을 무대로 단단한 구성력을 선보인 이혜란 화백의 『짜장면 더 주세요』.



3모듬은 '밥먹고합시다'이다. 김경애·김덕겸·임혜진·김영희·신정아 사서가 자리를 잡았다. 우리나라 그림책의 역사에 한몫을 단단히 한 이억배 화백의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을 택해 우리 현실의 문제를 담담한 필치로 적어가기 시작했다. 아래 사진은 '작가와만남'에 함께한 오채 작가, 작가사인 장면.



4모듬은 '오채만족'이다. 작가와 만남, 오채 작가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작명. 서평 평가에 오채 작가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으니, 작명이 무색하다. 이송자·홍미정·한선영·여민혜·김충선 사서가 모듬을 이뤘다. 어른이 읽어도 좋은, 『작은 당나귀(김예인지음)』로 서평의 칼을 뽑아들었다.

813.8

워크숍 모듬별 서평

“예끼 놈, 더러운 인간 쥐도 안 먹어!”

- 웰빙 호랑이 식단 관리하다

1모듬 책꼬, 이미화·김동관·최미화·양지영

아니, 이게 무슨 소리?

건강에 좋은 신선한 생물만을 먹는 ‘웰빙 호랑이’에게 무슨 일이?

표지에서 전래동화 느낌이 나는 『호랑이가 예끼 놈』이라는 제목을 본 순간 ‘이건 뭐지?’ 라는 호기심이 들었다. ‘아하! 표지에 친절한 설명이 있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연암 박지원의 「호질」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작가가 각색한 책이란다.

잠을 자고 일어난 호랑이. 호랑이가 실컷 자고 일어나 먹잇감을 알아보다가 한 사람을 추천받아 찾아간다. ‘귀하고 높으신’ 홀로홀로방방이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학식과 지위가 높아 보였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었다.

홀로방방이 밤에 개구멍을 통해 몰래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과부 집이었다. 그가 과부에게 수작을 거는 순간 과부 아들들에게 들통이 나서 도망을 치다 뚱뚱에 빠진다. 이 장면을 지켜본 호랑이는 뚱뚱에 빠진 홀로방방을 실컷 꾸짖는다.

“잡아먹지 않으면 만 명을 대신 내준다고? 사람은 다 그런 것이냐? 네가 귀하고 높은 사람이라 그런 것이냐?” 위기에 닥치자 자기 자신 대신 사람 만 명을 내준다는 표리부동한 홀로홀로방방을 향한 호랑이의 꾸짖음은 오직 그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꾸지람이기에 부끄러움에 얼굴이 벌개질 정도이다.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하는 못된 심보,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의 마음, 자연을 파괴하여 동물이 살 곳과 먹을 것을 없애버

린 사람들, 인간들끼리 전쟁을 일으켜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 호랑이가 “안 먹어!”를 외치며 아무리 배고파도 사람은 먹지 않겠다고 소리치는 장면은 웬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 왜일까?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항상 말만하는 우리들에게 만화라는 형식을 빌려 인간의 이중성에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고 재미있게 전달해준다. 다만 만화그림이 산만해서 책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점이 아쉽다.

『호랑이가 예끼 놈』, 이은홍 글·그림, 사계절, 2010

우리 동네 짱 셰프를 소개합니다

2모듬 이판사판, 김준섭 · 이수경 · 문영신 · 박정서 · 박영애

불과 일이십 년 전만 하더라도 선생님의 장래희망을 물으면, 대부분 아이들이 대통령, 과학자, 선생님, 운동선수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곤 했다. 누군가 특이한 직업을 꺼낼라치면 곧바로 놀림의 대상이 될 만치 아이들 꿈도, 교육도, 사회도 철저히 획일화된 시대였다.

뉴턴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사과장수가 될 것이며, 에디슨은 전파상 주인이 될 것이란 우스갯소리가 나왔을까. 이제 이런 한국의 교육도 많이 바뀌어 남들과 다른 한 가지 재능만 있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학도 진학 할 수 있는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하니 닳았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이런 다양성의 추세에 발 맞춰 사계절에서는 ‘일과 사람’이라는 시리즈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을 생생한 취재와 작가만의 독특한 시점으로 그려내고 있다. 시리즈 1편 ‘짜장면 더 주세요’는 중국집 주방장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저자가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본 아버지의 하루 일상을 세밀한 관찰력으로 정감있게 표현하였으며, 화려하게 보이지 않기에 자칫 무관심해질 수 있는 중국집 요리사라는 직업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 요리사라는 호칭보다는 ‘셰프’라는 호칭에 더 익숙하다. 이 책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중국집 아저씨를 아주 멋진 요리사로 소개하고 있다.

『짜장면 더 주세요』은 중국음식점에 대한 그림책이자 정보책이 될 수도 있고 세세한 그림으로 인해 도감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류 책들은 아이들에게 부분적인 내용전달에 있어서는 효과적이거나 자칫 잘못하면 집중력을 흐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중국집 하루’라는 스토리의 힘으로 극복하여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재미있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책 속에 묘사된 아빠의 모습이 다른 인물보다 크게 표현되어 아빠에 대한 저자의 존경과 사랑을 엿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훈훈하게 펼쳐지는 가족의 작은 행복이, 요리사라는 직업과 잘 버무려져 있다.

다만, 세세한 부분의 짜임새 있는 구성과는 달리 아이들이 읽기에 작은 글씨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책이 소중한 것은 부모세대라면 누구나 있을법한 자장면(이 책에서는 일부러 짜장면이라고 쓰고 그 이유를 밝혀놓았다)이란 추억의 소재를 다루고 있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읽고 얘기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온 가족추천도서로 선정할 만하다.

『짜장면 더 주세요』, 이혜란 글·그림, 사계절, 2010

통일문을 열고 싶어요

3모둠 밥먹고합시다, 김경애 · 김덕겸 · 임혜진 · 김영희 · 신정아

서해에서 동해까지 248km, 남북4km의 큰 가시철 띠를 두른, 그곳을 우리는 ‘비무장지대’라고 부른다.

먼저 이 책의 그림을 보면 북녘고향을 바라보는 노인과 DMZ 안의 풍경, 그리고 철조망을 견고하게 지키는 군인, 그것에 관계없이 노니는 동물들의 자유로운 몸짓이 반복된다.

그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철조망은 분단의 상징이고 그 속의 녹슨 철마와 지뢰는 과거 전쟁의 상처들이다. DMZ 울타리 안의 동물과 사람(군인)은 현재를 나타내는데 동물은 분단과 관계없는 자유를 상징하고 군인은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작가는 아이러니한 이 광경을 통해 비무장지대가 주는 극적 긴장 속에 자유와 평화의 중요성을 확신시키고 있다.

DMZ에 등장하는 기러기, 원앙, 고라니, 수달, 산양 등에게 국경은 없다. 계절순환으로 전개되는 풍경은 물범이 발해만에서 백령도섬으로 돌아오고 연어가 태평양의 긴 여행을 통해 남대천의 고향으로 돌아오며 기러기도 철조망을 넘나든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평안과 위안, 혈육의 뿌리가 있는 곳 바로 고향이다. 망원경을 통해 고향산천을 바라보는 실향노인 뿐만 아니라 남북의 군인들도 겨울밤 달을 바라보며 마음은 고향에 가 있다. 이것은 끝없는 대립이 아닌 타협과 미래공존의 여지를 보여 주는 또다른 메시지이기도 하다.

작가는 비무장지대가 '동물들이 노닐고 있는 동물의 낙원만이 아니라 평화와 생명의 땅' 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평화와 생명의 땅은 바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곳 이어야 온전한 의미를 갖는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아무도 열지 못했던 가시철망은 어느덧 '통일의 문'이 된다. '수달'이 헤엄치고 '연어'가 돌아오고 '기러기' 울음이 그치고 점박이물범이 찾아오는 봄이 오자 더 이상 할아버지는 전망대를 찾지 않는다. 대신 할아버지는 소년과 함께 통일의 문을 열고 '양지바른 풀밭' 평화의 땅으로 들어간다. 그곳에는 북녘의 할아버지와 소녀가 있다. 그리고 서로 얼싸 안는다. 동물의 낙원 비무장지대가 화합과 평화의 땅 진짜 봄이 온 것이다. 이 봄은 앞날의 우리가 바라는 평화의 모습이며 또한 작가가 바라는 통일되는 그 날의 간절함이기도 하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철조망 안 동물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비무장지대만의 사계절 변화를 특징적으로 그려내며 평화통일의 밝은 기대를 전달하고 있다. 책 앞뒤 안쪽 표지에는 세계유일분단국가 한반도가 분단이전과 통일 이후의 지도로 숨은그림찾기처럼 대비시켜 놓았는가 하면 '통일문'을 그린 부분은 면을 과감하게 내어 통일열망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자연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이다. 한중일 세 나라 작가들과 출판사들이 함께 기획한 '평화그림책'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다.

『비무장지대에 봄이 오면』, 이억배 글·그림, 사계절, 2010

같은 하루? 다른 하루!

4모듬 오체만족, 이송자 · 홍미정 · 한선영 · 여민혜 · 김충선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반복된 일상에 지친 여러분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해야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는지를 우회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008년 CJ그림책축제 일러스트레이션상을 수상한 이 책은, 이국적인 거리와 등장인물을 한국적인 수묵화 기법으로 그려내어 독특한 느낌을 담아내고 있으며, 글은 최대한 절제하여 여백의미를 살리고 있다.

책의 전개는 기본적으로 기형도의 시 '숲으로 된 성벽'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그림이라는 부가적 표현을 더하여 내용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특히, 온통 흑빛 뿐인 그림에 등장한 노란 점을 따라 가다보면 왜 수묵화기법을 택했는지, 작가가 어디서 희망을 찾고 있는지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글과 그림 모두 함축적이고 철학적인 표현이 많아 내용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 한다면 여러 번 책을 읽어보고 음미해 보아야 한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 일상에 지친 작은 당나귀는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의 여행을 꿈꾸고, 어느 날 떠돌이 시인의 도움으로 숲속을 여행하게 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 책에서 '평화로운 성'은 욕심과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순수한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상징하며, 노동재봉사인 '작은 당나귀'는 사

회적 약자 또는 쳇바퀴 같은 삶에 지친 현대인을 비유하고 있다. 즉, 재봉틀 돌아가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는 자신의 마음먹기에 따라 얻을 수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결국 작은 당나귀는 숲속에서 보이지 않는 자연의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들여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보물만 찾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숲을 훼손시키는 우를 범했다.

비록 외관은 그림책의 형태이지만,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의 탈출을 꿈꾸는 성인에게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일상 속에서 이제껏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또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어떨까? ‘도시생활에 지친 이가 여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쉽게 아이들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책은 그림책의 형태이나 어린이들이 보고 내용을 해석하기에는 그림이나 글이 난해하다. 작가가 어린이를 독자로 삼고 싶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글을 구성하거나, 성인을 독자로 삼는 거라면 표지 상에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라고 지정해 줄 필요가 있었다.

마음먹기에 따라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작가의 메시지처럼 이 책을 읽고 반복되는 일상을 평화롭게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

『작은 당나귀』, 김예인 글·그림, 느림보, 2010

2010,
서평교육연수에 함께 했습니다.

813.8

2010년 서평교육 수료자 명단

김덕겸(파주 중앙도서관), 김동관(남양주 별내도서관), 김영희(성남 중원도서관), 김준섭(용인 수지도서관), 문영신(부천 꿈여울도서관), 박정서(성남 중원도서관), 양지영(평택 지산초록도서관), 이미화(군포 중앙도서관), 이수경(평택 안중도서관), 이송자(경기도), 임혜진(평택 시립도서관), 최미화(하남 시립도서관), 한선영(군포 중앙도서관), 홍미정(화성 태안도서관)

서평자, 서평에 붙인 한마디

* 김덕겸(파주 중앙도서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파주 토박이다. 많은 호기심을 풀어주고 좋은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는 도서관은 장차 나의 고향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꾸며줄 책을 내는 샘물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 주말이면 출판단지 내 책방과 헤이리 내 무료 갤러리에 자주 나타난다.

* 김동관(남양주 별내도서관)

안녕하세요. 남양주 별내도서관에 사서로 근무하고 있는 김동관입니다. 도서관에서 시민들에게 책을 선별해주는 사서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그러하지 못하네요……. 앞으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서들이 쓴 서평을 통해 올바른 책을 선택할 수 있게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 김영희(성남 중원도서관)**

안녕하세요? 성남 중원도서관 자료실에 근무하는 김영희 사서입니다. 서평쓰기를 뒤늦게라도 접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물론 단순한 행복은 아니지만요. 책보기를 더욱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준섭(용인 수지도서관)**

고등학교 시절, 저는 학교 옆 공공도서관을 자주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던 사서선생님으로부터 독서, 진로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책, 도서관, 그리고 사서란 직업에 대해 매력을 느껴 관련학과로 진학, 현재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문영신(부천 꿈여울도서관)**

부천시립도서관 사서. 책을 많이 보고, 읽고, 더불어 많이 쓰고 싶은 사람. 이번 서평교육을 통해서 쓰는 고통이 언젠가 즐거움이 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 박정서(성남 중원도서관)**

서평이 무엇인지? 서평의 구성, 서평의 의도 이런 것 몰랐습니다. 당당하게 책 읽고 감상문을 제출했던 부끄러운 사서의 서평이 교육 끝난 이제는 아하~라고 고개 끄덕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부디 더 많은 사서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양지영(평택 지산초록도서관)**

두 세 줄의 글 따위로 나를 소개할 수는 없다. 나를 알고 싶은가? 나를 만나 보라. 나를 얼마나 만나면 나를 알 수 있을까? 한 10년?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나를 소개하라는 것은 나에게서는 너무 잔인한 일이다.

책을 읽는다. 좋다. 그런데 과연 내가 종이 한 장을 채울 수 있을까? 서평을 쓴다. 종이 한 장을 채웠다. 오~ 혼자 자화자찬 난리다. 다시 읽어본다. 이렇게 창피할 수가. 앞뒤 말도 안 맞고 맞춤법은 죄다 틀리고, 수정한다. 다시 읽어본다. 조금 나아진 듯하다. 그치만 여전히 별로. 고민고민하다 서평을 보낸다. 조언을 받는다. 더 이상 손 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서평이 수정이 된다. 아까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다. 이렇게 자꾸자꾸 하다보면 어느새 내가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과정이 조금 고통스럽지만 뿌듯하고 대견하다. 그냥. 내가 조금 성장한 것 같다.

* 이미화(군포 중앙도서관)

안녕하세요. 군포시 중앙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이미화입니다. 우선 서평교육을 무사히 마치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처음에 서평교육을 들을 때도 주저했던 것이 사실이고 1박 2일 세미나에서 서평에 대해서 알고 책을 읽고 과제를 제출하면서 과연 내가 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함께 했는데……. 미흡하지만 서평을 쓰고 나니 왠지 모를 성취감과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서평이란 무엇인지 아직도 글쓰기에 겁이 나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금이나마 서평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서평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자라나게끔 해주신 강사님들과 같이 들었던 사서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이송재(경기도)

욕심과 의욕만 앞세우고 시작한 서평교육……. 심한 농땡이였지만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빈칸을 채워나갈 때 쾌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흔적을 남기는 책임기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음에 스스로 만족하렵니다.

*** 이수경(평택 안중도서관)**

안녕하세요. 평택 시립 안중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새내기 사서 이수경입니다.

◎ 이: 이렇게 열심히 서평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 수: 수없이 고치고, 다시 쓰고를 반복하며, 몇 번을 들여다봤는지 모릅니다. 서평교육을 통한 ◎ 경: 경험을 바탕으로, 글 쓰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갑니다. 새내기 사서로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혜진(평택 시립도서관)**

한때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과학에 소질이 없다는 걸 알았고, 작가도 되고 싶었지만 글솜씨의 기복이 심했고, 운동선수 부인도 하고 싶었지만 미모가 부족했고……. 결국 책냄새가 좋아서 도서관 사서가 된 사람. 30대 중반을 달리면서도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무지무지 많은 나.

*** 최미화(하남 시립도서관)**

도서관에 오는 모든 아이들과 반갑게 눈 맞추며 인사하고 싶은 5년차 사서입니다. 도서관에 자주 오던 아이였는데 두 달 남짓 보이지 않아 걱정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다시 도서관에 오기 시작 했습니다. 너무 반가워 한달음에 달려가 아이의 두 볼을 감싸며 반갑게 인사를 했지요. “선생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어디 갔었어?”

도서관에 찾아오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해바라기처럼 한결같이 바라보는 사서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바라기’ 사서라고 불러주세요!

*** 한선영(군포 중앙도서관)**

수리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군포 중앙도서관 어린이자료실의 담당사서. 푸근(포근이 아니고 푸근)한 인상의 동네 아줌마 같은 아줌마 냄새 폴폴 풍기는 그런 사서의 모습이 바로 나. 1년 반 동안 매월 이용자들에게 배포하는 추천도

서목록을 만들면서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를 내 자신에게 되물었던 자신감 0%의 모습이, 서평교육을 통해서 도전정신을 갖았고, 자신감도 충전했다. 교육이 끝나니 업무가 바뀌어 업무적으로 추천도서목록, 서평을 만들지는 않게 되었지만 둘째 딸이 조금 더 자라서 생활에 2%의 여유가 생긴다면, 진정한 사서로서 책 소개하는 글을 쓰고 싶어진다.

* 흥미정(화성 태안도서관)

매일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지독한 회색 빛 도시에 난 서 있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나의 꿈은 무엇이었나?”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씬 없이, 의미 없이 재봉틀만을 돌려댔다. 그런데 어느 날 내 곁에 시인이 나타나 ‘서평의 세계’라는 숲속 여행을 이끌었고, 난 그 숲속에서 오랜만에 달콤한 행복과 평화로운 휴식을 얻었다. 그렇다. 내 이름은 바로 ‘작은 당나귀-흥미정’이다.

서평하는 사서 곁에서, 또 한마디

* 작은 불빛 하나가 큰 어둠을 이긴다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사서들이 어린이 책을 읽고 그 해에 돋보이는 작품을 가려내어 상을 주는 일을 해보자는 말을 해오고 있다. 국립극장까지는 아니어도 아담한 어린이 도서관을 정해서 사서라는 전문독자들이 고른 작품에, 작가에게, 화가에게 상을 주고 격려하는 잔치를 마련해보고 싶다.

우리나라 사서들이 선정한 책에도 칼데콧 상의 권위에 버금가는 힘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나아가서 사서들이 읽고 고른 책을 바탕으로 서평지를 내보고도 싶다.

아직은 우리나라 책 문화 현장에서 사서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사회 각 분야에서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서들의 참여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나의 바람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 같다. 2009년에 이어 2010년 올해에 경기 사이버 도서관이 마련한 사서 서평연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서평연수에는 수원, 화성, 남양주, 의정부 등 곳곳에서 찾아와 읽고 토론하고 글을 썼다. 연수를 마치고 나서도 세 편의 과제 서평을 써내야 하는 짐을 마다하지 않았다. 물론 사서들은 이전에도 각 지역 매체에 이미 글을 쓰고 있거나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다만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부족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도 익숙한 칼데콧 상은 미국 도서관협회가 매년 미국에서 출판된 그림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을 그린 화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칼데콧 메달 스티커가 붙은 책은 '좋은책'이라는 인식이 굳건하다.

우리는 우리 방식의 또 다른 '칼데콧' 상을 제정해서 작가, 화가를 격려하고 독자와 소통하는 장을 마련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설 수 있는 집단이 사서들이다. 사서들은 주례사 비평을 쓰지 않아도 되고, 출판 자본과 결탁하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독자들과 건강한 소통을 하면 되니까.

사서 서평쓰기 과정은 그런 날이 학수고대, 기다리며 진행하는 준비과정이다. 이런 기회들이 거듭되면서 사회가 사서집단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사서들은 어린이 책의 문화를 이끌어 가는 맨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이렇게 소박한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는다. 글을 쓴 사서들은 부끄러워 마지않았지만 서평쓰기 과정에 참여한 한 사람의 강사로서 사서들께 감사한 마음과 박수를 보내고 싶다.

작은 불빛 하나가 큰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소박하게 내딛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똥 냄새 가득한 세상을 바꾸는 작은 불빛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지 않아 사서들이 마련하는 풍성한 책의 밥상을 기대해도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어 마지 않는다.

조월례. 경기사이버도서관 서평연수 강사, 어린이 책 비평가, 경민대 초빙교수.

* 이제 시작이다!

추운 겨울 날씨에 목도리를 칭칭 감고 먼 거리를 달려와 머리를 맞대고 모여 앉아 밤늦게까지 도서관 사서들이 서평을 써야 하는 이유와 서평 쓰기에 대해 생각하고 공부했다. 어떤 이는 글쓰기에 재능이 없다고 두려워했고, 어떤 이는 도서관에도 할 일도 많은데 사서가 서평까지 써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다. 나 또한 도서관 사서들이 '진정으로 서평을 쓰고 싶어 하는지' 의심했다.

어느새 들판에 쌓여 있던 눈이 녹고 나뭇가지에 꽃망울이 맺혔다. 우여곡절 끝에 교육 과정도 끝났다. 우리의 교육 과정이 어떤 결실을 거두었는지 궁금하다.

우리에게는 많은 재능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재능과 가능성이 있다하여 그것을 진작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과 연관 짓기는 어렵다. 글을 잘 쓴다고 '나에게 소설가의 재능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한두 번 칭찬을 받았다고 '나에게 그림에 재능이 있으니 화가가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번에 함께 한 서평 쓰기 과정은 막연한 가능성과 재능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서평 쓰기는 도서관 사서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사서의 권위를 드높이고 바람직한 독서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앞으로 사서들이 해야 할 일을 깊이 생각하고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그러니 부담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뜻하지 않은 의무감과 책임감이 느껴졌을 게다.

우리는 살면서 자기의 재능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에서도 뜻밖의 성과를 거두는 경우를 많이 본다. 우연히 눈이 가고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 열중하다 보니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얻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나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서평 쓰는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열중하다 보면

언젠가는 서평을 잘 쓰게 될 테고 보람도 느끼겠지. 때로는 서평을 쓰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사명감을 느끼며 꾸준히 서평을 쓰겠지. 그는 분명 누군가로부터 선구자로 불리게 될 거야.”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선구자의 영광은 밤잠을 설치고 서평을 쓰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작은 보람을 느꼈을 우리 경기도 도서관 사서들의 몫이라고.

윤한구. 도서출판 도깨비로 어린이 책 출판 분야에 들어온 이후 꼭두,

한겨레 SI 일러스트레이션학교 등에서 그림책 강의를 했다.

최근에는 강의와 더불어 어린이 책을 기획하고 있다.

* 눈 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행운, 이제부터죠?

‘글을 쓰는 것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부터예요’, 말은 참 그럴싸하지요.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천부당만부당 고개를 끄덕이지요. 그런데 30년에서 40년, 혹은 50년 가까이 습(習)으로 몸에 배인 일상은 어찌 나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부여받은 엄밀한 짜임의 삶, 세포까지 스며 있을 텐데요. 이제 와서 ‘대폭’ 시간을 내어 뭔가를 새로, 그것도 글쓰기를 새로 시작한다니. 여의하지 않을 테지요. 꼭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서평’을 받고, 그 ‘서평’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그 ‘서평’을 받고. 그러면서 알게 되었어요. 시나브로 어엿해지고 있었던 것어요. 이런 비유, 미안해요. ‘서당 개 삼년’이라잖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도서관이라는 책담에 기대, 책 가까이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습관처럼 문자귀신들과 지계장단 맞춰왔던 거라구요, 그랬던 거라구요. 축하해요. 이 험난한 길에 들어, 쓰지 않고는 속병이 들고 마는 이 행복한 오르막길에 들어오신 것어요. ‘이제, 하산하시오~’ 그날 우리 함께 술 한 잔 나눠요. 눈 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행운, 이제 시작이라 하셨죠?

“그가 망설이다 손을 내밀었어요. 손가락 사이 따순 바람이 머물다 슬쩍 흠어지네요. 봄이었어요.”

이대건. 책을 꾸미(편집)다가 이제는 책을 내(출판)기도 한다.

도서출판 기억(나무늘보), 고창책마을 촌장.